

KOREA

WOOD

2025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KOREA WOOD DESIGN AWARDS

DESIGN

AWARDS

K O R E A

W O O D

2025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K O R E A W O O D D E S I G N A W A R D S

D E S I G N

A W A R D S

발 간 사



올해 23회를 맞이한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은 산림청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후원하며, (사)한국목조건축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목조건축 문화의 가치와 가능성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목재는 인류의 오랜 역사와 함께해 온 건축 재료이자, 기후 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핵심 자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본 대전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목조건축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미래 건축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라 하겠습니다.

이번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에는 계획 부문에 66개, 준공 부문에 21개의 작품이 출품되었습니다. 이중 계획 부문에서 15개의 작품과 준공 부문에서 11개의 작품이 수상하여 이들 작품을 묶어 책으로 발간하였습니다.

그동안 공모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이영재 건축가위원장님, 최혜진 심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정훈, 이소진, 박지현, 이상준, 오윤택 심사위원님, 물심양면으로 후원하여 주신 회원사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대전에는 학생과 전문가를 비롯한 많은 참가자들이 목조건축의 창의성과 기술력을 작품으로 담아내 주셨습니다. 각자의 아이디어와 열정이 깃든 작품들은 목조건축이 단순한 구조재를 넘어, 인류와 환경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건축 패러다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성과는 한국 목조건축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적인 흐름과 발맞추어 나아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과 어려운 건설경기 속에서도 제23회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작품집을 발간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참가자 여러분께서 목조건축의 가치와 가능성을 담아 창의적인 성과를 선보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헌신과 노력이 오늘의 결실로 이어진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25년 11월
(사)한국목조건축협회 회장 **강 승 희**

격려사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제36대 산림청장 김인호입니다.

2025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대전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깊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목조건축의 가치에 공감하시고, 이번 대전에 참여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지난 8월 산림청장으로 취임하며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목조건축은 숲과 국민이 상생하는 최적의 수단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목조건축은 기존 건축이 갖는 탄소배출 문제와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래 건축 패러다임입니다. 실제로 목재는 산림이 성장 과정에서 흡수한 탄소를 저장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에 편안함을 주는 유일한 건축 소재입니다. 또한, 무게 대비 강도가 높아 공장에서 건축 자재를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건축하는 미래형 건축 기술 OSC공법(탈현장공법)에도 적합한 장점을 가집니다.

세계 각국은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산림청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어 국토교통부와 함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목조건축을 확산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노력이 민간 영역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은 국산 목재를 탄소가 장기간 저장되는 장수명 형태로 활용하고, 단계적 이용 원칙을 실현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국민에게 ‘목재 사랑’이라는 인식을 심어드리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목재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대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 우리나라 목조건축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한국목조건축협회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정성과 열정을 기울여 주고 계시는 참가자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목조건축 분야 관계자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산림청장 김인호

축 사



〈2025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수상 작품집〉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자 여러분의 열정과 창의적 노력이 결실을 맺어 한 권의 책으로 탄생했습니다.
이번 작품집이 목조건축의 가치와 매력을 널리 알리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행사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은 해마다 수준 높은 작품을 통해 목조건축의 잠재력과 새로운 해법을 제시해 왔습니다. 올해 역시 다양한 시도와 실험적인 접근으로 목조건축의 영역을 확장하며 한 단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목재는 생산부터 시공, 해체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구조체에 탄소를 저장하는 지속가능한 건축 자재입니다. 재활용률이 높고, 자연 친화적 특성이 뚜렷해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수단으로 꼽힙니다. 앞으로 목조건축은 미래 세대를 위한 건축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2020년에 높이와 면적 제한을 해제하고, 2024년에는 공동주택 층간 바닥 두께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설계와 시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해 현재 발의된 목조건축 활성화 관련 법률 제정안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대전을 계기로 목조건축협회와 학계, 산업계가 함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국토교통부도 건축 정책의 주무 부처로서 현장 의견을 세심히 듣고 목조건축이 국민들의 삶에 더욱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국토교통부 장관 김 윤 덕

축 사



제23회를 맞이한 ‘2025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대회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매년 창의적인 목조건축 작품들로 우리 사회에 목조건축의 가치와 비전을 제시해 주고 계신 (사)한국목조건축협회 강승희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축 분야는 탄소중립 사회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료와 설계 방식, 공간 개념 전반에 대한 혁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목재는 탄소를 저장하고 순환시키는 대표 자원으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목조건축은 전통을 계승함과 동시에 미래지향적 대안으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건설산업은 경기 위축과 자재 수급 불안정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목재산업 전반 또한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 실정입니다. 산업 전반의 활력 회복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절실한 시점이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은 단순한 공모전을 넘어, 위기 속 기회를 발굴하는 전략적 플랫폼으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목조건축 1동은 이산화탄소 40톤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목재는 정서적 안정감과 더불어 아토피·천식 개선 등 인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용하는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자원 순환성은 국제사회에서도 주목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도시와 친환경 건축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목조건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중·고층 목조건축을 가능하게 하는 CLT 생산 기반 등 기술적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 발굴된 다양한 사례들은 목조건축의 가치와 가능성을 구체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침체된 목재산업 전반에 새로운 방향성과 기회를 제시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목조건축이 단순한 소재의 선택을 넘어 사람과 자연, 기술과 환경을 잇는 통합적 건축 언어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임업진흥원은 목재산업의 진흥과 목재제품 품질관리, 인증제도 운영 및 지원 등 목재산업 전반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한국목조건축협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목조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5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여하신 모든 분의 열정과 아이디어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목조건축을 만들어 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한국임업진흥원장 최 무 열

축 사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목조건축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건축인 여러분!

2025년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로 23회째를 맞은
본 대전은 우리 건축계에 친환경적이고 창의적인 목조건축의 가치를 확산하며, 지속가능한
미래 건축을 향한 다양한 시도와 혁신의 장이 되어 왔습니다.

목조건축은 친환경, 내구성, 그리고 디자인적 요소까지 누구나 함께 누릴 수 있는 미래 건축의
길입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친환경성과 에너지 절감,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미를 담아낸 창의적인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여, 목재가 지닌 고유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수상작을 비롯한 모든 출품작들은 각기 독특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담겨 있습니다. 수많은
참가자와 심사위원 여러분께서 더욱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대한민국 목조건축의
새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치열한 노력이 우리나라 건축 기술 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관계자 분들, 그리고 미래 목조건축을
이끌어갈 젊은 인재와 건축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건승, 그리고 대한민국 목조건축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김 재 록

축 사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UIA 국제건축가연맹 이사 한영근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한국목조건축협회가 미래 발전적인 목조건축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한 2025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과 그 결과를 모은 수상 작품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강승희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과 이를 위해 수고해주신 심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모든 분께도 감사와 축하의 인사 말씀을 전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최근 우리 모두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전례 없는 이상 기후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극심한 가뭄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선 대규모 산불과 폭우로 인한 홍수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저지대 국가들의 침수, 생태계 변화 및 생물 종 다양성 감소 현상은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친환경, 제로 에너지, 탄소 감축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 목조건축이 바로 그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목조건축은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대안이라는 선택의 영역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우리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해답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 자리가 더욱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일련의 논의들이 수상의 기쁨을 함께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보다 바람직한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교류와 소통,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바쁜 와중에도 뜨거운 열정과 관심으로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사)한국목조건축협회 관계자 여러분들과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참여해 주신 건축가 여러분과 관계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한국건축가협회에서도 한국 목조건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발전 방향에 대해 (사)한국목조건축협회와 함께 모색하며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5년 11월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 UIA 국제건축연맹 이사 **한 영 근**

축 사



제23회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신 목조건축협회와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목조건축은 가장 오래된 건축의 형식이며 건축 그 자체입니다. 또한, 우리 삶과 자연, 그리고 시간에 대해 다시 묻게 만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무엇으로 집을 짓는가, 어떤 방식으로 공간을 만들 것인가 하는 질문은 곧,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묻는 일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빠르게, 크고, 효율적인’ 건축의 시대를 지나, ‘지속가능하고 건강하며, 인간적인’ 건축의 가치를 새롭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목조건축이 있고 그런 실행의 바탕을 만드는 목조건축협회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나무는 인간이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재료이며, 동시에 가장 깊은 역사를 품은 재료입니다. 그 나무를 다루는 손끝에는 기술이 있고, 철학이 있으며,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목조건축은 여전히 제도와 인식, 기술적 편견 속에서 많은 장벽과 마주하고 있고, 그만큼 더 많은 실험과 도전, 그리고 연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목조건축대전의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는 단지 성과를 발표하고 경쟁하는 무대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나무를 통해 새로운 건축의 가능성을 모색해 온 이들이 서로의 고민과 시도를 나누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서로 다른 해석과 접근이 만나는 이 축제가 한국 목조건축의 지평을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목조건축협회가 중심이 되어 우리 환경과 문화에 맞는 건축적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그 여정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동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제23회 목조건축대전을 축하드리며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한 모든 분의 열정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새건축사협의회 회장 임 형 남

축 사



자연의 재료가 건축을 통해 문화가 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목조건축은 전통과 미래, 그리고 사람과 환경을 이어주는 새로운 다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올해 23회를 맞은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은 그 어떤 때보다 의미 있는 전환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우리는 목조건축이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문화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담아내는 예술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한국목조건축협회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출품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최근에는 산불 피해목을 활용한 목조건축이라는 새로운 시도가 더욱 눈에 띕니다. 쓰임을 잃을 뻔한 나무가 건축물로 다시 태어날 때, 그것은 재난을 극복하는 상징이자 지역 재생과 순환 경제의 실천 모델이 됩니다. 이처럼 목조건축은 사회적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담아내는 강력한 도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층 주목할 만한 변화는 바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공공건축물 우선 적용, 규제 완화, 세제 혜택, 예산 반영과 같은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안에는 목조건축 지원센터 설치, 정책협의체 구성, 전문 인력 양성, 설계 및 시공 표준화, 통계조사, 목조건축도시 지정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이 제정된다면 국토교통부와 산림청 간의 협력과 정책 추진 기반이 대폭 강화될 것이며, 목조건축이 공공과 민간 건축 현장에 더욱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건축의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는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목조건축이 단순히 유행이 아닌 일상의 표준이 되기 위해서는 안정적 품질관리와 유통체계의 구축, 기술혁신,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과 인식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 모든 국민이 목재의 아름다움과 그 가치를 함께 경험하게 만드는 플랫폼입니다. 앞으로도 이 대전이 건축의 문화적 전환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연결하는 든든한 내비게이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수상자 여러분의 열정과 성취에 축하를 드리며, 목조건축이 우리 삶 속에 더 깊은 울림과 희망을 전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목재문화진흥회 회장 오 세 창

2025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차 례

03 (사)한국목조건축협회 회장 발간사

05 산림청장 격려사

07 국토교통부 장관 축사

09 한국임업진흥원장 축사

11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축사

13 한국건축기협회 회장 축사

15 새건축사협의회 회장 축사

17 목재문화진흥회 회장 축사

20 2025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개요

22 2025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심사평

25 준공 부문 수상작

26 대상 | 치유의 집

34 대상 |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42 특별상 | 진양호 우드랜드 부속동

48 최우수상 | 명지각 1956

54 최우수상 | 아중호수도서관

60 우수상 | 당진 학생활동 커뮤니티 센터

64 우수상 | 제주 나의 집

68 우수상 | 상형서사

72 구조디자인상 | 유지 커피 워크스

76 장려상 | 木苑

80 장려상 | 숲속의 사진관 제라

85 계획 부문 수상작

86 대상 | 서문시장, 나무가 숨은 시장

90 대상 | 나무의 틈으로 채운 도시의 균형

94 특별상 | 전통건축 사선부재를 재해석한 템플스테이 계획안

98 최우수상 | 지역과 결구하는 청년 문화 기숙사

102 최우수상 | 시장길을 수놓다

106 우수상 | 플로팅 웰컴

108 우수상 | 수림재

110 우수상 | 산불, 그 이후의 이야기

112 우수상 | 자연 환기와 미기후를 고려한 하이브리드 목조 온실 계획안

114 장려상 | 오송역 선하장터

116 장려상 | 어반 팀버 프레임

118 장려상 | 추억의 남천 우수폴장

120 장려상 | 서울역 2.0

122 장려상 | 되살린 집, 덧입힌 삶

124 장려상 | 재·결구: 목조건축이 일상화된 도시로 돌아가기

126 (사)한국목조건축협회에서 하는 일

130 2025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협찬사

132 (사)한국목조건축협회 활동 회원사 리스트

2025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개요

■ 2025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은 산림청이 주최하고, (사)한국목조건축협회가 주관하며,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후원하는 행사로 올해 23회를 맞이하는 사업임

■ 응모 부문 및 대상

계획 부문

- ◎ 주제 : 결구_서로를 연결하는 구조
- ◎ 응모작품 : 목구조 · 목조 친환경 디자인 등의 공법과 재료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해 미래 목조건축의 가능성을 표현하는 미발표 창작물 또는 목재를 활용한 미래 새로운 건축재로나 구조에 대한 제안
- ◎ 응모자격 : 제한 없음(단, 국내 거주자)
- ◎ 응모 작품 수 및 인원 : 응모자 1인당 1작품, 공동 출품은 3인 이내

준공 부문

- ◎ 응모작품 : 제출일로부터 3년 이내(2022. 8. 15. 이후) 준공한 국내 목구조 건축물, 혼성 구조물, 목재를 활용한 리노베이션 건축물, 목재를 활용한 인테리어 및 조경시설물 등의 제 분야
- ◎ 응모자격 : 응모작품의 설계자, 시공자(혹은 제작자), 건축주로서 출품 건축물의 관련 서류(건축물대장 등 증빙서류) 상에 명시되어 있는 자
- ◎ 응모 작품 수 : 1인당 최대 3점 이내

■ 심사위원단

- ◎ 위원장 : 최혜진 오즈앤엔즈 건축사사무소 대표
- ◎ 위원 : 이정훈 ㈜조호 건축사사무소 대표, 이소진 ㈜건축사사무소 리움 대표, 박지현 ㈜비유에스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대표, 이상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임업연구관, 오윤택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사무관

■ 접수

- ◎ 계획 부문:
 - ▷1차(작품계획안) : 2025. 8. 11(월) ~ 2025. 8. 14(목)
 - ▷2차(패널, 모형) : 2025. 9. 12(금)
- ◎ 준공 부문
 - ▷포트폴리오 : 2025. 8. 11(월) ~ 2025. 8. 14(목)

■ 심의

- ◎ 일시 및 장소
 - ▷계획 부문 1차 포트폴리오 심사 : 2025. 8. 26(화) / 건축사사무소 리움
 - 2차 공개심사 PT : 2025. 9. 12(금) /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다목적실
 - ▷준공 부문 1차 포트폴리오 심사 : 2025. 8. 26(화) / 건축사사무소 리움
 - 2차 현장심사 : 2025. 9. 3(수), 9. 4(목), 9. 10(수), 9. 11(목) / 작품 소재지

■ 전시회 및 시상식

- ◎ 전시회 일시 및 장소 : 2025. 11. 4(화)~11. 11(화) / 서울에너지드림센터 3층
- ◎ 시상식 일시 및 장소 : 2025. 11. 5(수) 오후 2시 /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다목적실

■ 주최 산림청

■ 주관 (사)한국목조건축협회

■ 후원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 수상 결과

준공 부문			
구분	작품명	설계자	시공자
대상(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치유의 집	한양대학교 김재경, ㈜홍은건축사사무소 임일중	㈜스튜디오하우스 차민주
대상(국토교통부 장관상)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가와중합건축사사무소 최삼영, ㈜솔토지빈건축사사무소 조남호	㈜해송종합건설 박화율, 경민산업㈜ 이한식(목구조 시공자)
특별상(서울특별시장상)	진양호 우드랜드 부속동	해가패시브건축사사무소 조민구, ㈜가와중합건축사사무소 최삼영	동광종합건설㈜ 김영애, 니드텍건설㈜ 유창민, 지호진
최우수상(산림청장상)	명지각 1956	㈜지랩건축사사무소 강해천	(유)정민건설 최수진(본관), 정성종합건설㈜ 두병은(동관)
최우수상(산림청장상)	이중호수도서관	이엠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김은미, 길종합건축사사무소 ENG 이길환	(유)지웅건설 양희연, 동연티앤씨 이영근(목구조 시공자)
우수상(대한건축사협회장상)	당진 학생활동 커뮤니티 센터	㈜지역도시 건축사사무소 리플래폼 윤여갑, 건축사사무소 세종 정효경	천지건설㈜ 구재문, ㈜수피아건축 이주석(목구조 시공자)
우수상(한국건축가협회장상)	제주 나의 집	에이루트 건축사사무소 이창규, 강정윤	다봄주택 최규철
우수상(새건축사협의회장상)	상형서사	㈜소솔건축사사무소 왕성환, 김두원	㈜미도종합건설 이재우
구조디자인상(한국목조건축협회장상)	유지 커피 워크스	㈜이성범건축사사무소 이성범, 구조설계자 : 환 · 구조기술사사무소 민환석	㈜티피에이종합건설 한재성
장려상(한국임업진흥원장상)	木苑	㈜2A건축 김개천, ㈜하우스스타일 건축사사무소 김주원	㈜케이에스파엔써 장길완
장려상(한국목조건축협회장상)	숲속의 사진관 제라	투닷건축사사무소㈜ 조병규, 모승민	㈜브라운트리 종합건설 김재욱, 오권만

계획 부문			
구분	작품명	수상자	소속
대상(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서문시장, 나무가 숨은 시장	임원섭, 오도윤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실내건축학과
대상(국토교통부 장관상)	나무의 틈으로 채운 도시의 균형	공예진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특별상(서울특별시장상)	전통건축 사선부재를 재해석한 템플스테이 계획안	이승범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학과
최우수상(산림청장상)	지역과 결구하는 청년 문화 기숙사	권민수	숭실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최우수상(산림청장상)	시장길을 수놓다	윤기민, 김효은, 김근혜	경북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우수상(대한건축사협회장상)	플로팅 웰컴	임유진, 장범용, 육은찬	청주대학교 건축학과
우수상(한국건축가협회장상)	수림재	장수현, 박병순	아펠리에장, ㈜터구조
우수상(새건축사협의회장상)	산불, 그 이후의 이야기	박정민, 오선민, 오탉양	충북대학교 건축학과
우수상(한국목조건축협회장상)	자연환경과 미기후를 고려한 하이브리드 목조 온실 계획안	조병준, 김형준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학과 졸업
장려상(한국임업진흥원장상)	오송역 선하장터	유하영, 김소영, 안길웅	청주대학교 건축학과
장려상(한국목조건축협회장상)	어반 팀버 프레임	노민재, 이서영, 전현준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전통건축전공, 공간디자인학과, 건축학전공
장려상(한국목조건축협회장상)	추억의 남천 유수폴장	양재혁, 정성택, 황지원	경북대학교 건축학과
장려상(한국목조건축협회장상)	서울역 2.0	강호민	동국대학교 건축공학부 건축학전공
장려상(한국목조건축협회장상)	되살린 집, 덧입힌 삶	사유현, 오지원, 김유진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학과
장려상(한국목조건축협회장상)	재 · 결구: 목조건축이 일상화된 도시로 돌아가기	임정현, 홍유빈, 이하은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전통건축전공



2025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은 ‘결구’라는 주제로 목조건축이 지닌 구조적 잠재력과 사회적·도시적 가능성을 탐구하는 자리였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한국 목조건축의 변화와 실험을 본격적으로 감지할 수 있었던 중요한 장이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 목조건축의 수준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출품작들은 단순한 양적 확대를 넘어, 목조건축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다른 구조와의 결합으로 구조적 가능성이 한층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목구조 건축물은 제출된 사진이나 도면만으로는 공간의 깊이와 재료의 감각을 충분히 느낄 수 없기에, 심사위원단은 가능한 한 많은 작품을 직접 방문하여 공간적 체험을 통해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건축가들의 설명과 시공자들의 목구조에 대한 세심한 노력과 애정은 작품에 담긴 진정성을 더욱



선명하게 전해주었고, 현재 우리나라 목구조 설계와 시공의 현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가능성에 대해 함께 논의해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목조건축이 가진 고유한 가능성과 그 잠재적 확장성을 다각도로 평가하며, 특히 새로운 시도를 통해 목구조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탐색한 작품들을 우선적으로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대상에 선정된 두 작품은 한국 목조건축의 새로운 방향성을 열어준 작업이라는 점에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받은 ‘치유의 집’은 판조·명상·회복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서로 다른 목구조 방식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전통 결구와 공포를 현대적 구법으로 재해석한 지붕 구조를 통해 동아시아 목조건축의 미학을 새롭게 보여주었으며, 한옥이 지닌 가능성과 한계에 과감히 도전하며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 건축가의 집요한 실험 정신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은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는 국내 최초 7층 규모의 목조건축으로, 목구조를 보편적인 재료와 공법으로 확장해 실험한 작업입니다. RC 위주의 현행 건축법규와 규제 속에서도 끝까지 완성을 이끌어낸 집요한 노력은 한국 목조건축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귀중한 성취였습니다. 동시에 이 작업은 우리 목조건축이 앞으로 극복해야 할 제도적·기술적 과제를 드러내는 한편, 새로운 도약을 향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별상을 수상한 ‘진양호 우드랜드 부속동’은 목조건축의 본질적 구조와 원형을 구현하



고자 한 시도가 돋보였습니다. 목재가 지닌 물성과 전통적 건축 방식의 정수를 충실히 드러내어, 목조건축의 뿌리를 다시금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최근 다양한 하이브리드 구조와 실험적 시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작품은 오히려 목조건축의 근원적 가치와 원형적 미학을 재조명한 점에서 특별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명지각 1956’은 남원 구도심의 빈집을 활용해 도시 재생의 일환으로 기존 건축물의 목구조를 세심하게 드러내어 지역성을 강조하고, 주변 도시 조직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한 전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공공 프로젝트로서 완성도 높은 경험을 위한 새로운 시도들, 그리고 발주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잘 드러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아중호수도서관’은 대지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유선형의 건축 형태와 목구조의 건축적 장점이 자연스럽게 결합된 작품입니다. 하나로 이어진 도서관 내부에

다양한 높이로 전개되는 중목구조의 공간감이 압도적이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특별한 공간 경험을 선사하는 공공 건축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했습니다.

우수상을 수상한 세 작품 중 ‘당진 학생활동커뮤니티 센터’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목구조의 형식과 잘 어우러진 작업으로 내부 공간을 감싸는 넓은 목구조 지붕을 노출하기 위한 건축가의 공간적, 설비적인 해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목조 지붕과 철골 기둥의 구조적 조합과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공간적 실험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주 나의 집’은 주택의 보편적 구법 중 하나인 경량목구조를 제주라는 지역적 특성에 맞게 세심하게 적용한 작품입니다. 벽식 구조가 가지는 한정된 공간감을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돋보였으며, 보편적 구법 속에서 특별성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심사 과정에서 깊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상형서사’는 주민센터, 도서관, 보건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한 공공건축으로, 각 기능과 성격에 맞추어 RC와 목구조를 다채롭게 결합한 구조적 특징이 돋보였습니다. 특히 목구조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기능별로 적절한 구조 방식을 제안한 점이 인상적이



었으며, 공공건축에서 목구조의 가능성을 폭넓게 보여준 사례로 평가되었습니다.

구조디자인상을 수상한 ‘유지 커피 워크스’는 경사의 박공 지붕을 중앙의 나무 형상의 기둥이 떠받치고, 외주부는 철골과 철골 커튼월이 지지하는 독특한 구조적 해법을 통해 목구조와 철골, 커튼월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새로운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구조적 해법과 조형이 일체화 되어 공간 경험과 건축적 서사를 형성하는 장치로 확장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계획 부문에는 올해에도 60여 점이 넘는 학생 작품이 접수되어, 목조건축에 대한 젊은 세대의 높은 관심과 탐구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차 심사를 통과한 아홉 작품은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심사위원들과 직접 질문을 주고받으며 생각을 나눌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각 제안의 진정성과 가능성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계획 부문 심사에서는 특히 ‘결구’라는 주제를 어떻게 사회적 이슈와 연결할 수 있는 지, 그리고 그것을 물리적 결구 방식으로 어떻게 설득력 있게 구현했는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대상을 수상한 ‘서문시장, 나무가 숨은 시장’은 기존 RC 건물에 목구조를 결합하여 도시적 기능을 새롭게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섬세한 디테일로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습니다. 또 다른 대상작인 ‘나무의 틈으로 채운 도시의 균형’은 고층 목구조 빌딩의 건축적 가능성과 구법적 실험을 충실히 담아내어 미래적 잠재력을 제시했습니다.

전통 건축의 지렛대 구조를 파라메트릭 기법으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템플스테이 계획안’은 목구조가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탐구한 실험적 제안으로, 그 도전적인 태도와 창의성을 높이 평가하여 특별상을 수여하였습니다.

‘지역과 결구하는 청년 문화 기숙사’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회 문제를 건축적 시선으로 포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적 제안과 구조적 해법을 설득력 있게 담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최우수상인 ‘시장길은 수놓다’는 기존 도시와 건축적 맥락을 존중하면서도 그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돋보였습니다. 이 외에도 도시와 사회적 차원에서 목조건축이 지닐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실험한 작품들에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여하였습니다.

올해 심사를 통해 우리는 한국 목조건축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제약과 한계 속에서도 도전과 실험을 멈추지 않은 작품들은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때로는 미완의 제안 속에서도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수상 여부를 떠나 모든 출품작이 한국 목조건축을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시도라 생각합니다. 이번 대전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열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러한 다양하고 진지한 노력들이 모여 앞으로 더 풍요로운 목조건축의 미래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KOREA WOOD DESIGN AWARDS

2025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준공 부문 수상작

대상 | 치유의 집(House for Rejuvenation)

대상 |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National Forest Welfare Education Center)

특별상 | 진양호 우드랜드 부속동(Jinyang-ho Woodland Annex)

최우수상 | 명지각 1956(Myeongjigak 1956)

최우수상 | 아중호수도서관(Ajung Lake Library)

우수상 | 당진 학생활동 커뮤니티 센터(Dangjin Student Activity Community Center)

우수상 | 제주 나의 집(My Little Hut)

우수상 | 상형서사(Narrative in Pictograms)

구조디자인상 | 유지 커피 워크스(YUJI Coffee Works)

장려상 | 木苑(Mokwon, Wooden Atrium)

장려상 | 숲속의 사진관 제라(Studio ZERA)

준공 부문 | 대상

치유의 집

House for Rejuvenation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강변로 60

대지면적 : 4,976m²

연면적 : 951.19m²

건축면적 : 520.2m²

규모 : 지하 1층, 지상 1층

주구조 : 일반목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준공일 : 2024. 8. 22.

설계자 : 한양대학교 김재경, (주)홍은건축사사무소 임일중

시공자 : (주)스튜디오하우스 차민주

정신과 육체의 안식처

경주 '치유의 집'은 '정신과 육체의 안식처'라는 건축 본연의 모습을 찾고자 공간을 통한 몸과 마음의 치유라는 주제 아래 관조, 명상, 회복의 테마를 가진 세 개의 집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집은 다른 개념의 목구조 방식으로 전개된 개성적 내부 공간을 가진다. 각 목조 방식은 전통을 재해석하고 경주 지역성을 반영하여 고안된 것이다. 세 개의 집은 다른 목조 방식뿐만 아니라 빛의 받아들이, 개방성과 폐쇄성의 적용에 따라 색다른 분위기를 가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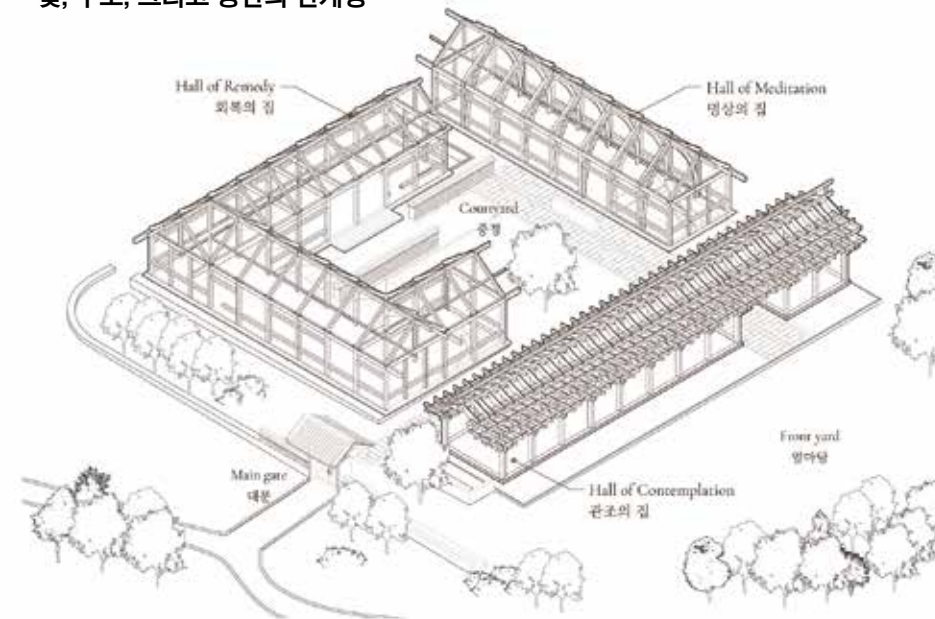


전통과 지역성의 새로운 탄생

'치유의 집'은 한옥의 구조와 공간 체계의 혁신적인 재창조로 한옥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리고, '치유의 집'은 경주의 역사, 문화, 전통 및 자연환경을 반영해 사라진 건축적 지역성을 되살린다. 불국사 범영루(8C), 양동마을 향단(16C), 귀래정(1755), 삼괴정(1815), 그리고 대지 인근 신라시대 능묘인 오릉(五陵)은 '치유의 집'의 디자인에 영감을 준 대표적인 경주만의 건축과 자연 유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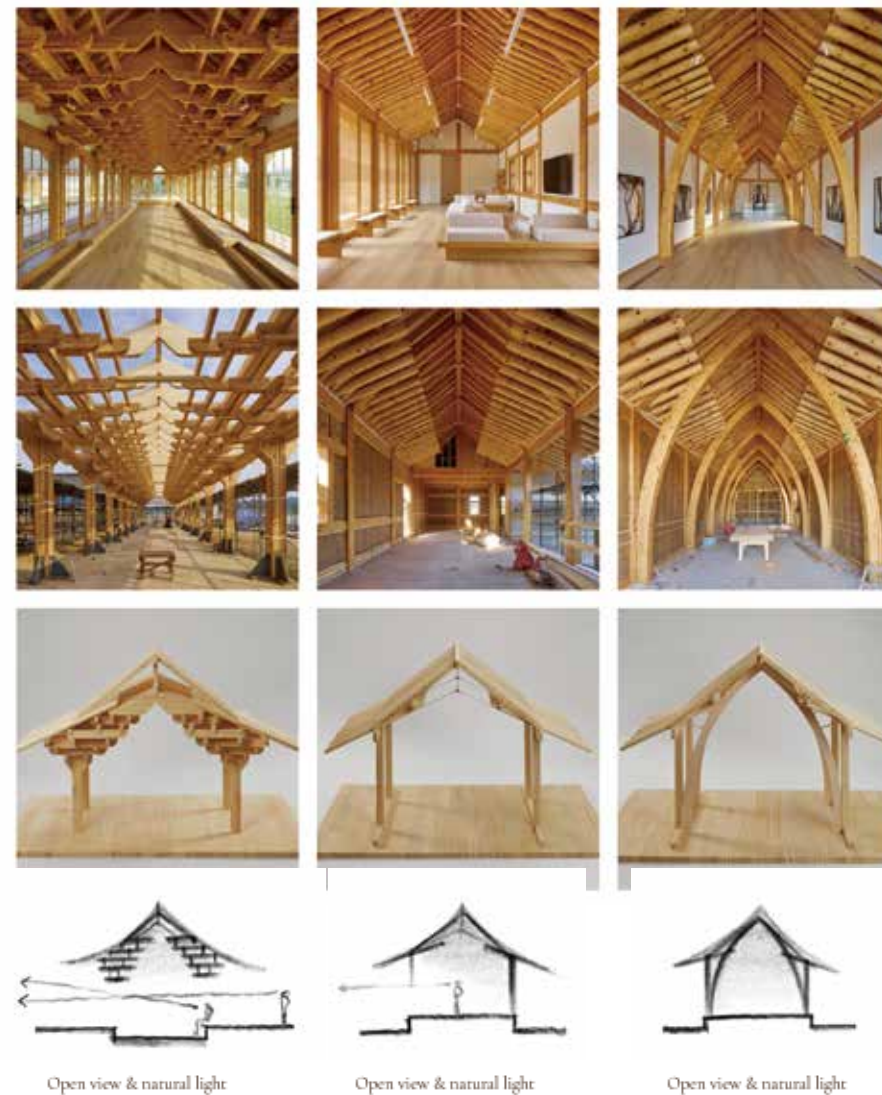
빛, 구조, 그리고 공간의 관계성



관조의 집
다목적 문화공간, 찻집

회복의 집
한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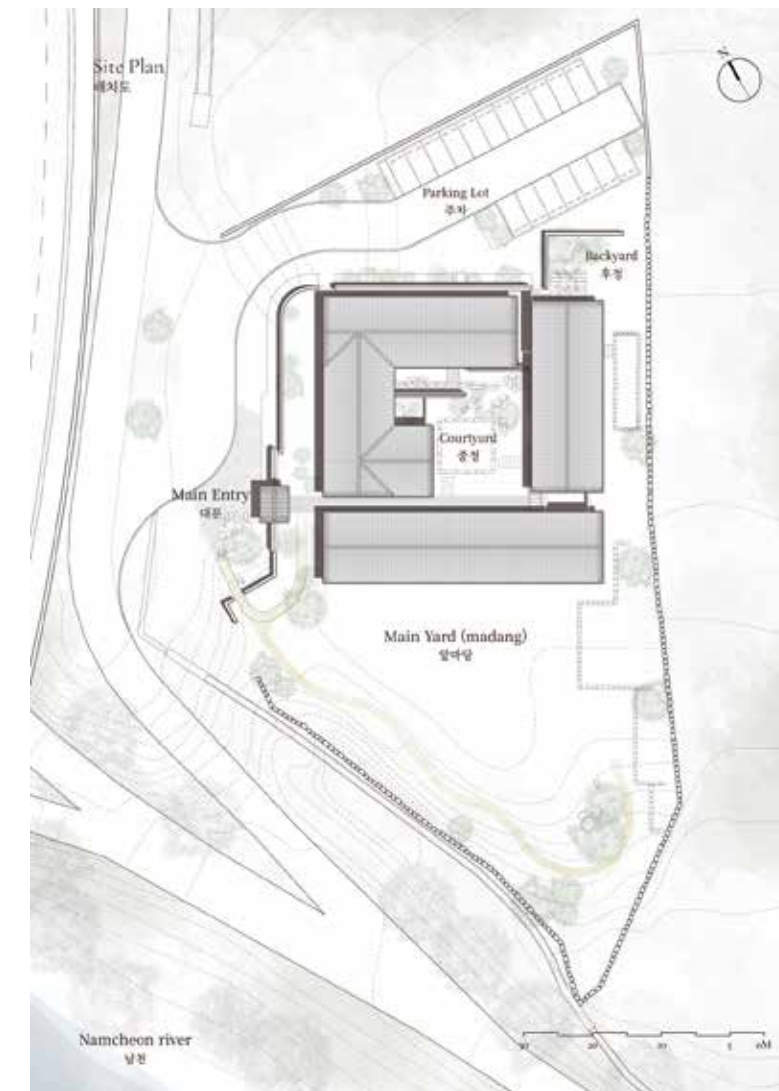
명상의 집
전시공간



세 개의 구조, 세 개의 공간

'관조의 집'은 경주 남산의 풍경과 중정을 담은 개방적인 공간으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한다. 집의 상징인 지붕 구조는 동아시아 전통 목구조의 결구와 공포(栱包)를 재해석하고 '떠 있는 무거운 지붕'이라는 전통건축의 역설적 미학을 보여준다. '명상의 집'은 닫힌 공간에 스며든 빛과 독창적인 구조가 만들어진 상호작용으로 내면의 성찰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의도한다. '회복의 집'은 간결한 구조의 높은 천장, 조절된 채광으로 심리적인 평온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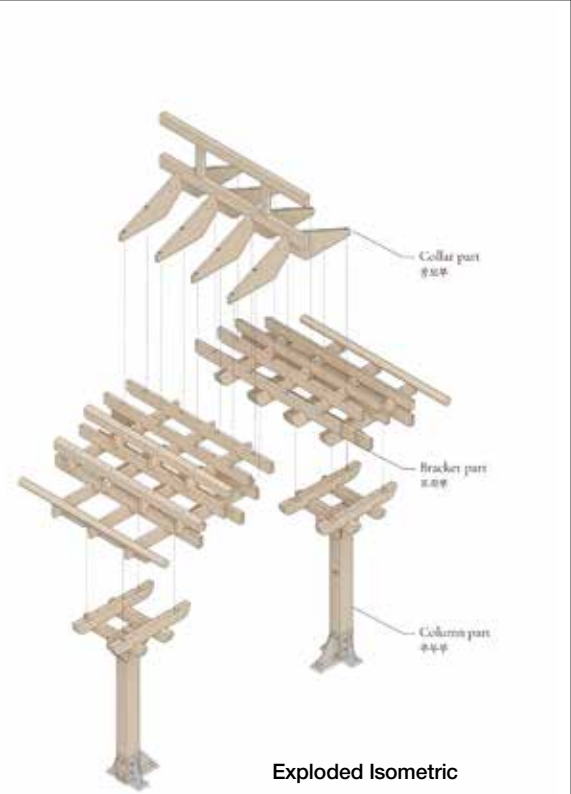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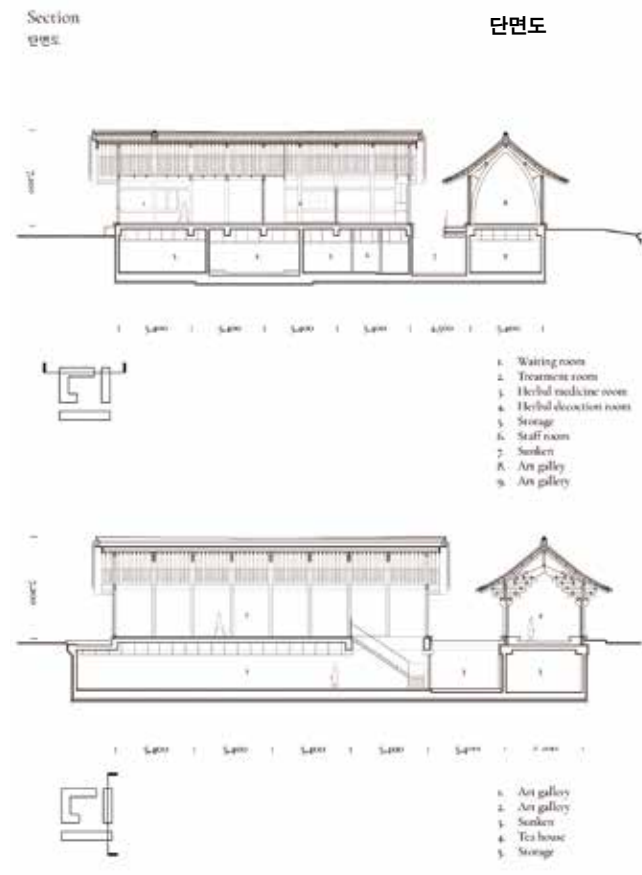
관조의 집

'관조의 집'은 경주 남산의 풍경과 중정을 담은 개방적인 공간으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한다. 지면보다 낮고 사방이 열린 내부 공간에서 툇마루에 앉은 사람들은 일상과 다른 눈높이로 주변 자연을 바라본다. 이것으로 풍경은 다른 시각으로 경험된다. 내부 툇마루는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치유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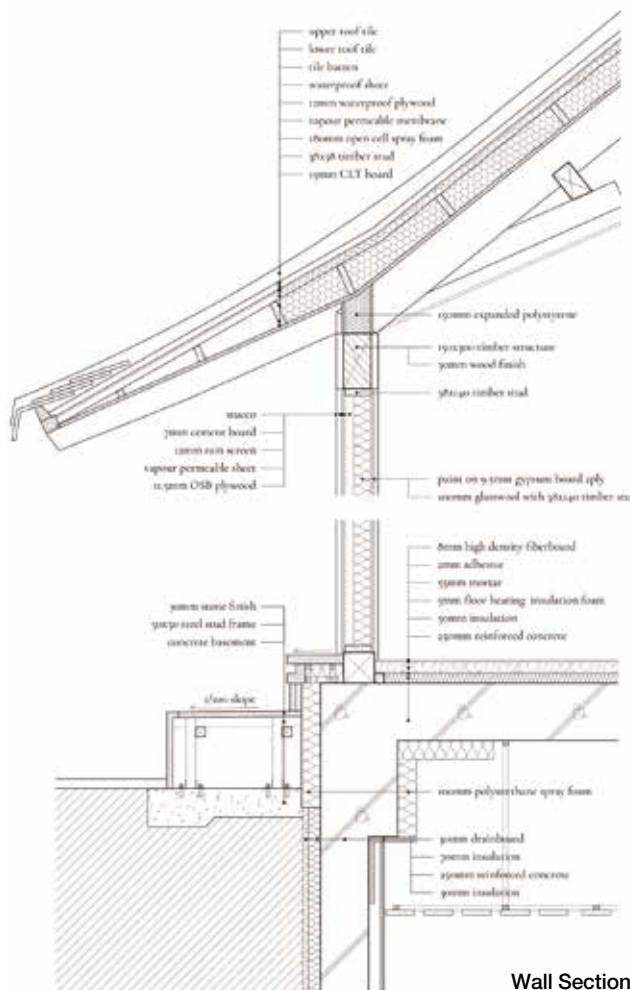
'치유의 집'의 외부 공간은 앞마당, 중정, 툇마루로 이루어져 있다. 남측의 앞마당은 경주 남산과 남천 및 주변 자연환경을 관조하기 위한 외부 공간이다. 경주 남산은 200개가 넘는 불상, 불탑과 같은 불교 유적을 간직하고 있는 1000년 전 신라 불교를 상징하는 장소이다. 앞마당은 절제된 외부 공간으로 경주 남산을 위한 무대가 된다. 대문으로 들어오면 자연스레 중정으로 진입하게 된다. 세 개의 집으로 둘러싸인 중정은 개방적인 앞마당과 달리 아늑하여 정서적 안식처를 의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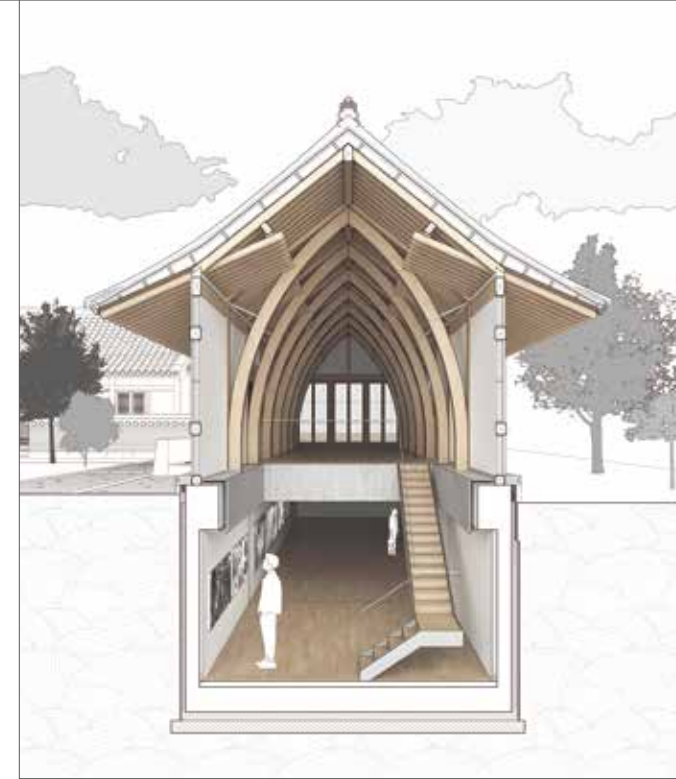


회복의 집

'회복의 집'은 간결한 구조의 높은 천장, 조절된 채광으로 심리적인 평온을 제공한다. 한의원으로 쓰이는 '회복의 집'은 효율적 평면 계획으로 이용객에게 편안한 치유 환경을 제공한다.



Wall Section



명상의 집

'명상의 집'은 닫힌 공간에 스며든 빛과 독창적인 구조가 만들어진 상호작용으로 내면의 성찰을 위한 공간적 분위기를 담고 있다. 북측 창을 통해 들어오는 은은한 빛은 흰 기둥이 형성한 대칭적 공간에 독특한 분위기를 더해 방문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목재 결구와 금속 결합부



고딕 아치가 연상되는 '명상의 집'의 구조는 불국사 자하문과 삼괴정의 흰 대들보에서 영감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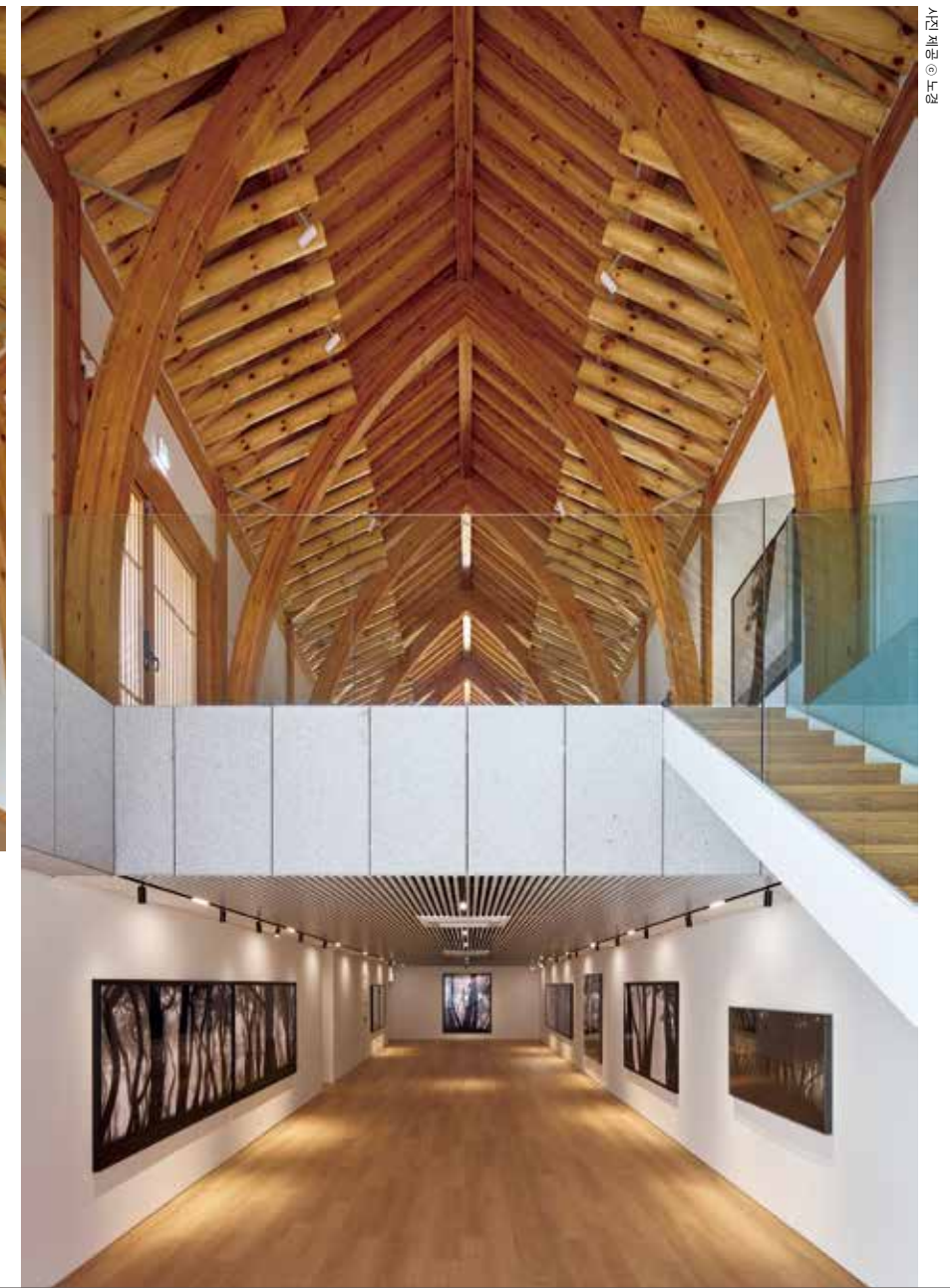


사진: 노경

준공 부문 | 대상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National Forest Welfare Education Center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구봉산북로 96-90

대지면적 : 26,665.4m²

연면적 : 9,938.24m²

건축면적 : 2,157.33m²

규모 : 본관동(지하 1층, 지상 7층), 교육동(지하 1층, 지상 3층), 숲속도서관(지상 2층)

주구조 : 목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준공일 : 2025. 6. 27.

설계자 : (주)가와종합건축사사무소 최삼영, (주)솔토지빈건축사사무소 조남호

시공자 : (주)해송종합건설 박화율, 경민산업(주) 이한식



목구조의 유형 제안, 코로나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는 건축법에서의 목조건축의 층수 제한 항목이 삭제되어 우리나라에서도 고층 목조건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실현된, 파일럿 프로젝트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국내 최초 목조 7층 건물의 실현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새로운 다층·대형 목조건축에 적용될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도심 목질화를 위한 유형을 제안하고자 했다. 기본 계획 수립 시 374억의 예산으로 4개 동 건립을 목표로 하였으나, 제약적으로 책정된 초기 예산에 더해, 코로나로 인해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겹치며, 불가피하게 본관동, 교육동 2개로 축소 설계되었으나, 발주처의 노력으로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숲속도서관까지 총 3개 동으로 준공했다.





배치_자연과 도시의 회복 탄력성

산림복지교육센터는 우리 시대의 사회적, 환경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진화하는 리질리언트 시스템(resilient system)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대지는 구봉산 자락 신설되는 도시공원과 경계를 이룬다.

지난 시대의 개발 방식은 성절토를 통해 평평한 가용지를 극대화하고, 건물을 후면 배치하는 방식으로 자연을 단절시키는 방식이었다. 산자락의 자연스러운 굴곡을 대지 안으로 끌어들이고, 건물의 뒤(남쪽)에 충분한 오픈스페이스를 둬으로써 자연과 도시 사이 경계의 의미를 재해석하고자 한다. 대지계획에 있어서 기후중립적인 건물 계획과 더불어 미래사회가 지향하는 회복 탄력적 계획을 반영한다.



단지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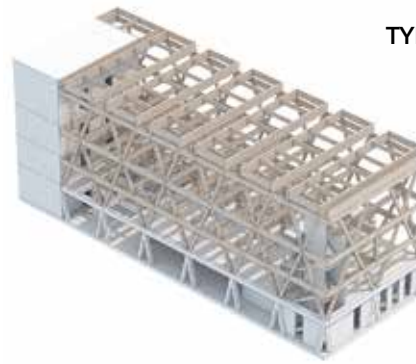
도심 목질화 木質化를 위한 유형적 접근

목조건축을 확산시키기 위해 이제까지의 노력은 목조가 어떠한 특수성을 갖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목조건축이 도시에서 일상적인 건축재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건축의 재료와 공법으로서 갖는 보편성을 증명해야 한다. 이 두 가지 관점을 통합하는 것이 유형적 접근이다.

목구조의 다양한 유형과 구조설계

TYPE 1 : Office_본관동 (2시간 내화)

도시건축을 이루는 첫 번째 유형은 업무시설이다. 업무공간을 위한 합리적인 모듈과 가변성을 갖는 구조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수직과 수평의 반복적 모듈을 적용하고 RC 코어와 CLT 벽체로 횡력을 보강했다. 목재는 구조재이면서 마감재로 사용되는데 근대 오피스의 이성적인 공간 구성을 성취하면서 친근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TYPE 2 : Education_교육동 (1시간 내화)

문화와 교육시설은 도시건축에서 연속적이기보다는 오브제로서 장소적 특징을 갖는다. 균질한 활동이 아닌 다양한 종류의 활동을 담는 보자기와 같은 공간이다. 강의실부터 강당까지 다양한 크기의 공간을 포용하는 구조 형식이 적용된다. RC 코어와 사선 기둥을 통해 별도 보강 없이 횡력에 저항하는 구조시스템이다.

TYPE 3 : Community_숲속도서관

숲속도서관은 대지에 반응하는 두 가지 태도에 의해 만들어진다. 대지의 특성을 재현하는 철근콘크리트와 대지를 존중해 그것으로부터 들어 올려진 목구조로 구성된다. 건축과 책, 사람의 활동이 연속적으로 통합이 이루는 풍경을 만들며, 도서관으로 명명하지만, 카페이기도 하고, 명상의 공간이며, 숲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집회장이기도 하다. 우측의 구봉산으로 오르는 보행 전용로와 맞닿아 주민들의 쉼터로도 활용된다. 공간의 개방감을 위해 지붕 장선보에 스틸과 목재가 혼합되는 하이브리드 구조를 적용했다.





입면 디자인과 재료의 사용

국내 최초인 지상 7층 목구조 본관동은 수직 패턴을 강조하여 건축물의 상징성과 위계를 드러내도록 계획하고 사선 기둥이 적용된 교육동은 수평 패턴을 강조하여 본관동과 대비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입면 구성을 의도하였다. 내화 구조 대상에서 제외되는 숲속도서관은 탄화 우드 사이딩과 루버를 적용함으로써 목재의 자연스러운 질감을 살리고, 주변 숲 환경과 연계된 건축 이미지를 구현하였다. 목구조 건축물이 대형화·다층화됨에 따라 난연 재료의 적용은 필수적이다. 특히 높이가 높을수록 풍하중의 영향이 커지고, 목구조는 앵커볼트 대신 스crewbolts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목재 구조체에 부착할 외장재는 경량이면서 동시에 난연 성능을 갖추어야 하므로 재료 선택에 제약이 따른다. 이에 본관동과 교육동은 외장재로 시멘트 사이딩을 적용하여 목구조의 구조적 안정성과 방재 성능을 확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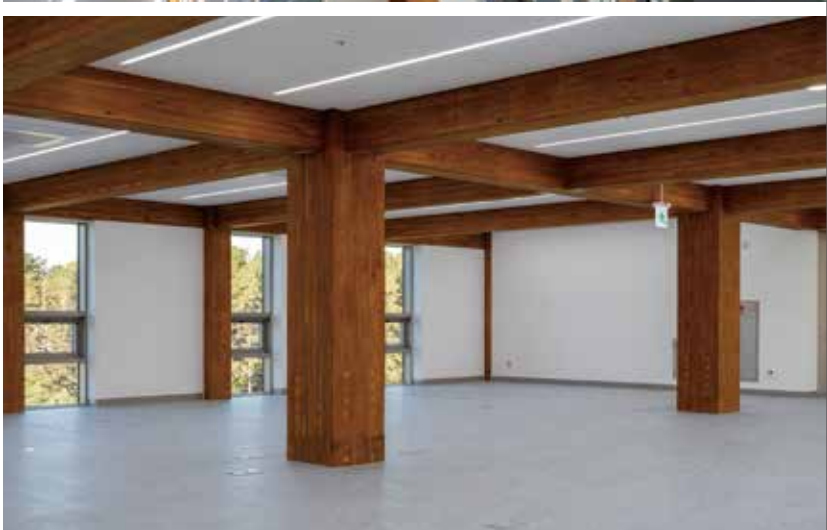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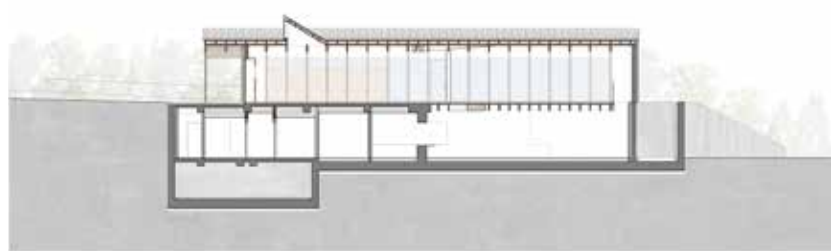
단열의 고민

기존의 목구조 건축물은 주로 38×140 경량 목구조 벽체 내부에 유리섬유 단열재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구조체 외측에는 OSB 합판과 타이벡을 적용하였으나, 고층 목구조의 경우 구조체 자체가 불연재가 아니라는 한계가 발생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시간 내화 본관동에서는 외단열 공법을 도입하였으며, 동시에 목구조 특성상 필수적인 투습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기공을 가진 투습·방수 유리섬유 판형 단열재를 적용했다.



설비 시스템 _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는 건축

본 설계에서는 목구조가 가진 고유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기둥과 보를 노출하였다. 내화를 고려한 노출로,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보 위에 바닥 조이스트 방법을 택하였고, 보 위에 조이스트 장선을 설치하고 그 위쪽으로는 60~120mm 시멘트를 부었다. 그 이유는 위쪽에서의 내화 역할과 바닥의 설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조이스트 하부는 방화 석고보드를 2~3겹 부착해 내화를 해결한다. 여기에 천장면을 하나 더 만들어 전등, 에어컨 등을 자유롭게 설치 가능하게 했다.





본관동 시공과정



1. RC구조 위 양카, 베이스철을 설치

2. 구조용 집성목 조립(1~7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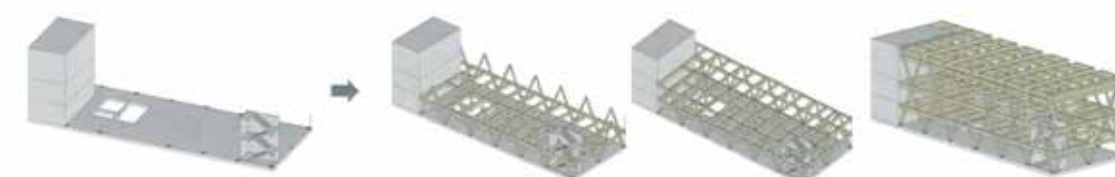


3. 바닥장선, 구조용 데크

4. 내·외벽 경골 벽체

5. 외벽, 지붕 내수합판, 투습방수지

교육동 시공과정



1. RC구조 위 양카, 베이스철물 설치

2. 구조용 집성목 조립(1~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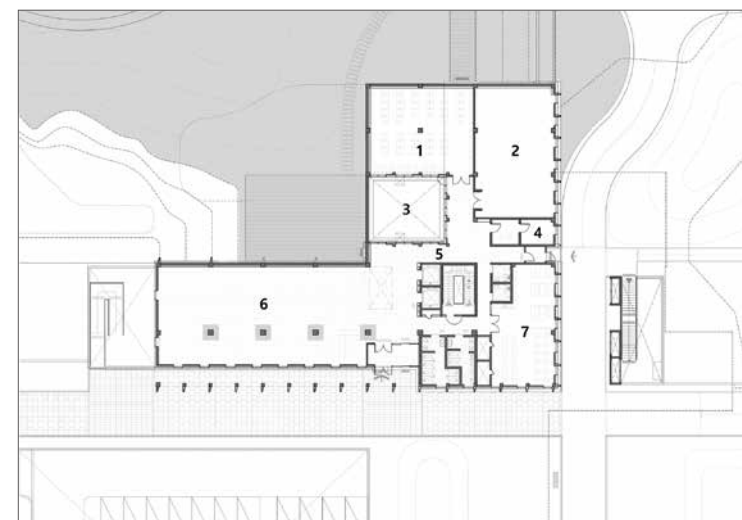
3. CLT 패널 조립

4. 내·외벽 바닥장선 등 경량 목조

5. 외벽, 지붕 내수합판, 투습방수지

2시간 내화 현장 인증과 공기 산정

현행 법규상 목구조 2시간 내화는 현장마다 실험체를 제작 후 건기원 인증을 득해야 한다. 이에 시공단계에서 집성재 제작 기간과 현장 반입, 설치 공기를 고려해 교육동을 우선 시공하여 약 10개월에 달하는 인증 기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



사진제공 © 건원수

대형, 다층화 목구조 건축물에 대한 고민

산림복지진흥원을 통해 수년간 목구조 건축을 설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법규 해석과 설계 적용 과정에서 여전히 어려운 숙제들이 남아 있다. 대형·다층 공공 목구조 건축에서는 더욱 경제적인 구법과 보편적인 시공 디테일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사례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와 목구조 건축물이 불에 잘 탄다는 오해로, 실제 기준보다 상향된 법규 적용을 요구해 건축허가와 소방 협의에 일반 건축물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현재 국내에서 목구조 공공건축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공사 발주 시 최저가 입찰 관행, 시공사와 감리의 경험 부족, 그리고 목구조 분리 발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 소재 문제 역시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진양호 우드랜드 부속동

Jinyang-ho Woodland Annex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판문동 478 외

대지면적 : 23,350m²

연면적 : 3,630.82m² (본관동 : 3,433.99m², 부속동 : 196.83m²)

건축면적 : 2,481.83m² (본관동 : 2,285m², 부속동 : 196.83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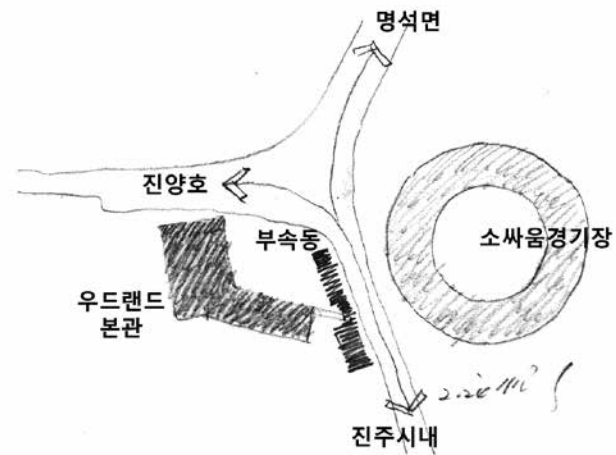
규모 : 지상 1층

주구조 : 일반목구조

준공일 : 2024. 12. 27.

설계자 : 해가패시브건축사사무소 조민구, (주)가와종합건축사사무소 최삼영

시공자 : 동광종합건설(주) 김영애, 니드텍건설(주) 유창민, 지호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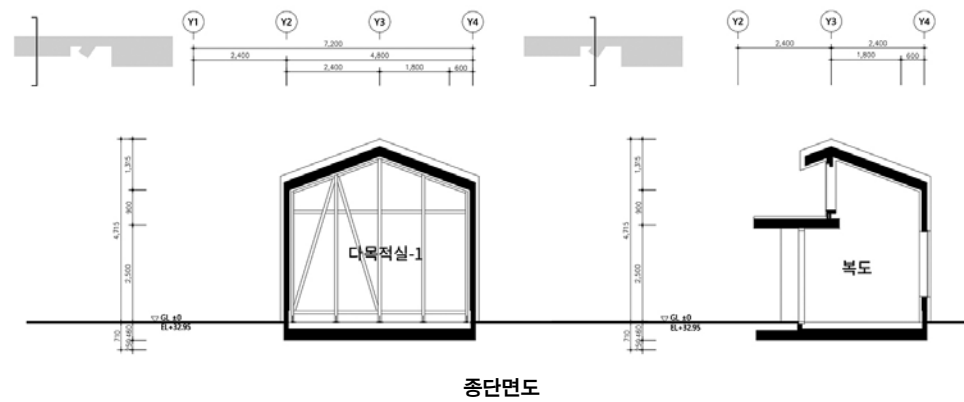
진주시 목조건축의 품격을 더하는 단아한 부속동

진주시의 공공 목조건축 정책과 방향은 '탄소중립 시대에 발맞춘 친환경 건축 선도'와 '목조건축 대중화를 통한 도시 품격 향상'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로당, 문화센터, 주민자치시설, 쉼터 등 다양한 용도의 공공시설물을 목조건축물로 건립하여 시민들에게 친숙하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진양호 우드랜드 부속동은 본동과 회랑으로 연결되어 진양호 관광지구의 관문을 형성하는 소규모 공공건축물이다. 단순하고 긴 수평 매스를 통해 안정감을 확보하고, 양면 창과 드러난 목재 프레임을 통해 풍경과 구조미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내·외부 모두 목재를 사용하여 따뜻하고 정직한 공간을 구현하였으며, 이는 지역적 맥락과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목조건축의 품격을 드러낸다. 또한 이 건물은 단순한 부속 시설을 넘어, 주민 모임과 문화 활동을 담아내는 커뮤니티 거점이자 방문객에게 열려 있는 휴식 공간으로 기능한다.



배치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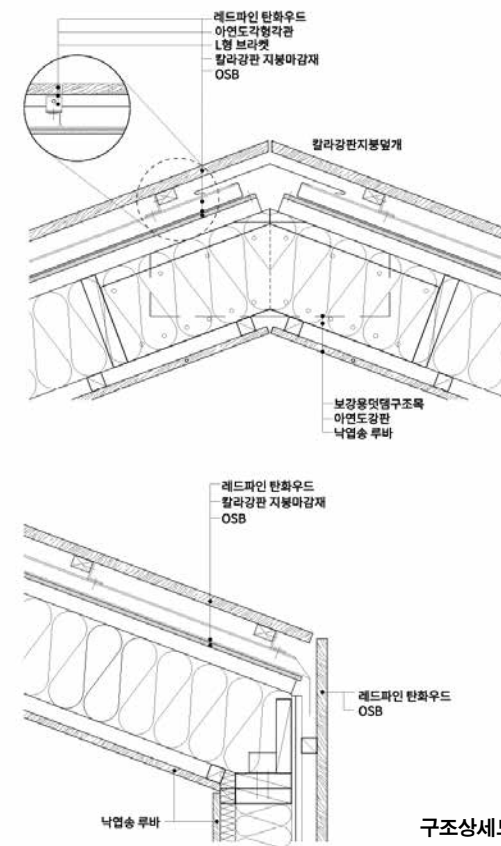
단순하고 긴 형태 위에 담긴 유연한 공간 구성

부속동은 길이 약 30m의 단순한 장방형 평면을 갖는 단층 건물이다. 본동과 기능적 연계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이 배열되었고, 긴 형태의 평면은 구조적 안정성과 시각적 통일감을 동시에 확보한다. 일부 공간은 개방되어 내부와 외부, 본동과 부속동 사이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준다.



풍경을 관통하는 시선의 흐름, 구조를 드러내는 개구부

길이 방향을 따라 배치된 양면 창은 내부 공간에 관통하는 시각적 개방감을 제공한다. 특히 일부 창에는 횡력을 지지하는 사선 프레임이 결합되어 있어 구조적 기능과 공간적 경험이 통합된다. 이러한 창호 구성은 마치 단관망원경을 통해 풍경을 들여다보듯 외부 자연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연출하며, 목조건축의 구조미 또한 드러낸다.



간결한 경량 목구조, 드러난 프레임의 정적함

주 구조는 경량 목구조(2X, X)를 기본으로 하며, 일부 구간에는 횡력을 지지하기 위한 사선 프레임이 더해진다. 이 구조적 솔루션은 간결하면서도 건축물 전체의 일체감을 강조하며, 본동과 부속동이 하나의 구조적 리듬을 공유하게 한다. 프레임은 내부에서 가감 없이 드러나 목조건축 특유의 정직하고 따뜻한 구조미를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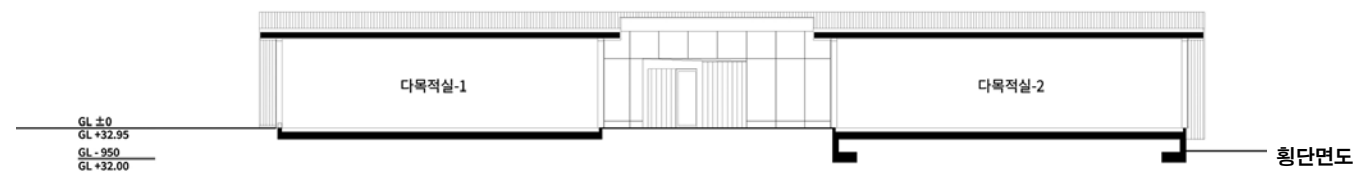


내외부를 아우르는 목재의 통일감

외벽과 지붕은 SPF 열처리 목재로 마감하였으며, 외피 하부에는 메탈 방수층과 기능성 에어벤트가 설치되어 내후성과 내구성 확보했다. 내부 역시 동일한 SPF 판재로 마감하여 실내외 재료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전체적으로 목재 고유의 온기를 강조한 공간을 완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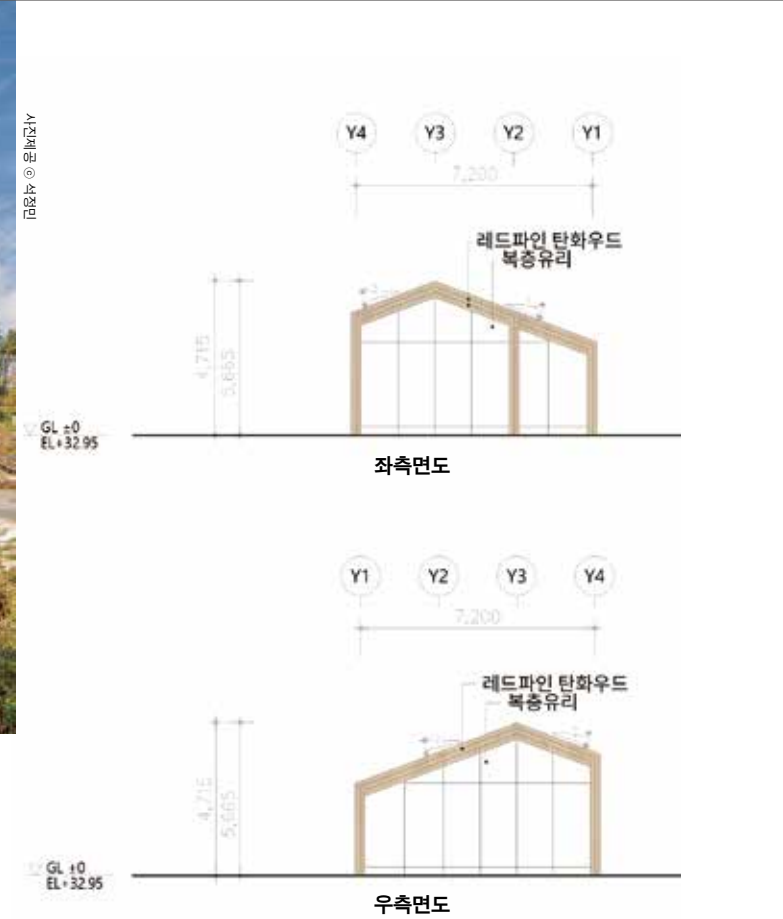
처마, 프레임, 개구부가 만드는 목조 단면의 리듬

단면 구성은 수평적 매스 안에서 구조, 개구부, 마감이 유기적으로 통합되는 형태로 계획되었다. 길게 이어지는 처마와 프레임 구조는 단면에서 직선적 안정감을 보이며, 일부 지점에서는 회랑과의 접속부, 횡력 프레임의 삽입 등에서 수직·수평의 대비가 목조 단면의 특징을 드러낸다. 이러한 단면은 목조건축의 시범적 모델로서, 소규모 공공건축에서 실현 가능한 구조적·공간적 전략을 제시한다.



소규모 건물이 만드는 실질적 지역 거점

현재 우드랜드 부속동은 단순한 부속 건물의 역할을 넘어,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마을 회의, 소모임, 문화 프로그램, 주민 워크숍 등 다양한 목적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진양호 관광지구를 찾는 방문객들에게도 잠시 머물고 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공간 활용은 부속동이 단순한 건축물 그 이상으로,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실질적 거점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준공 부문 | 최우수상

명지각 1956

Myeongjigak 1956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금동 45 외(본관), 남원시 쌍교동 118(동관)

대지면적 : 2,904m² (1,419m², 1,485m²)

연면적 : 870.10m² (460.63m², 409.47m²)

건축면적 : 994.63m² (460.63m², 534m²)

규모 : 지상 1층 10동

주구조 : 일반목구조

준공일 : 2024. 11. 22.(본관), 2025. 4. 25.(동관)

설계자 : (주)지랩건축사무소 강해천

시공자 : (유)정민건설 최수진(본관), 정성종합건설(주) 두병은(동관)



사진제공 © 노경

명지각은 남원 구도심의 중심에서 1950년대부터 명지관, 명지장, 명지호텔이라는 이름으로 1980년대까지 운영되다가 숙박 시설의 기능은 잃은 채 한정식집으로 사용됐다. 이를 '남원 구도심 도시재생' 구상을 바탕으로 남원시와 함께 '2022년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 공모'를 거쳐 명지각 1956으로 완성되었다.

지방 소도시의 인구 감소와 빈집은 국가적 위기로 인식되는 상황이며, 각 지방 소도시는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광 콘텐츠 확보는 도시 존속과 경제적 자립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명지각의 재생은 남원시뿐만 아니라 당면한 문제의 많은 지방 소도시 도시재생의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동관이 위치한 부지는 원래 남원시에서 빈집을 매입해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던 곳이었다. 많은 지방 도시들이 원도심 재생을 위해 빈집을 매입하지만, 그 활용 방안이 뚜렷하지 않아 결국 공용주차장으로 귀결되는 사례가 많다. 이 장소 또한 그러한 전형적인 사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빈집들을 활용해 숙박시설로 만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주변 민가와와의 조화였다. 마을과의 공생을 핵심 가치로 삼는 '마을호텔'이라는 개념처럼, 물리적 요소 역시 마을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조화와 어우러짐이 있을 때, 호텔은 단지 이질적인 공간이 아니라 마을의 일부로 기능할 수 있다고 믿는다.



사진제공 © 노경

명지각 1956 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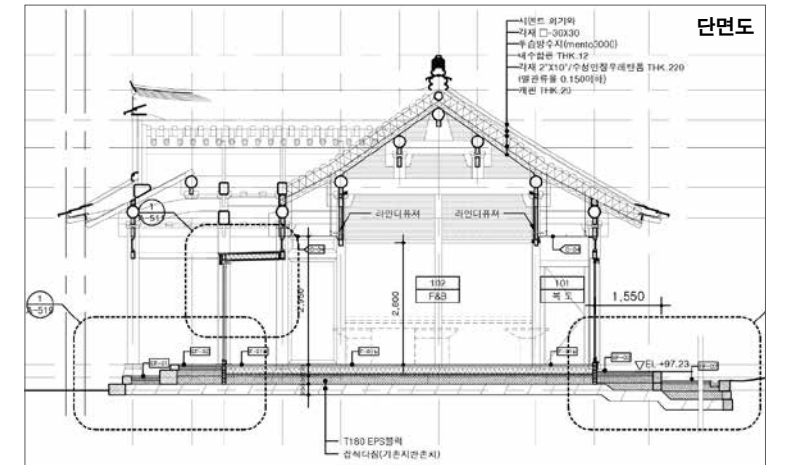
명지각 본관은 1950년대 유흥과 숙박을 위한 시설로 지어지고 사용된 한옥이다. 높은 층고와 기둥과 창호에 남아있는 화려한 장식 요소, 서양식 포치와 회랑 같은 독특한 평면 구성의 특징을 살리며 리모델링하는 게 가장 큰 과제였다. 연대별로 증축되어 온 각 채의 위계와 이로 인해 만들어진 외부공간을 통해 각각의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동선을 분리하는 전략으로 전체 계획을 진행했다.

명지각 1956 본관 - 사랑채

명지각 본관의 사랑채는 독특한 꽃 조각 기둥과 목구조의 서양식 포치(porch), 중정을 중심으로 한 공간 배치, 깊은 처마와 회랑 등 고유한 공간적 특성을 보존하고 원형을 복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동시에 현대적인 기능과 규모에 부합하도록 프로그램과 평면을 재구성했다.

명지각 1956 본관 - 안채

객실은 명지각의 정원과 회랑을 통해 진입할 수 있도록 설계해, 명지각만의 공간적 특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단층 구조로 인한 프라이버시의 한계는 원래 명지각에 있던 문살 이미지를 모티브로 목재 덧창을 디자인하였고, 상대적으로 좁을 수 있는 객실 공간은 프라이빗한 기능만 유지하고 사랑채의 F&B 시설과 안사랑채의 라운지로 거주성을 보완하였다.



명지각 1956 본관 - 안사랑채, 별채

안사랑채는 숙박객 라운지로서 툇마루에 앉아 중정을 바라보며 차를 마실 수 있도록 계획된 공간이다. 기존 건물의 구조상 객실에 설치하기 어려운 목조는 별도로 신축된 별채를 목욕장으로 만들어 해결했다. 목구조인 한옥에 목욕장과 사우나를 설치하기 위해 환기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특히 많은 고민이 반영되었다.



명지각 1956 동관

한옥이 밀집한 남원의 원도심 주거지역에 폐가 3채를 활용하여 숙박시설을 증축하였다. 기존의 도시조직을 존중하고 각각의 독채 스테이가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이트의 외곽을 따라 객실을 배치하고 각각의 객실로의 진입은 중정을 둘러싼 회랑을 통하도록 하였다. 이 회랑에는 한옥의 한지 창처럼 반투명한 스크린을 설치하여 조경과 마당은 공유하고 각 객실의 독립성은 유지하도록 하였다.



명지각 1956 동관 - 티하우스, 누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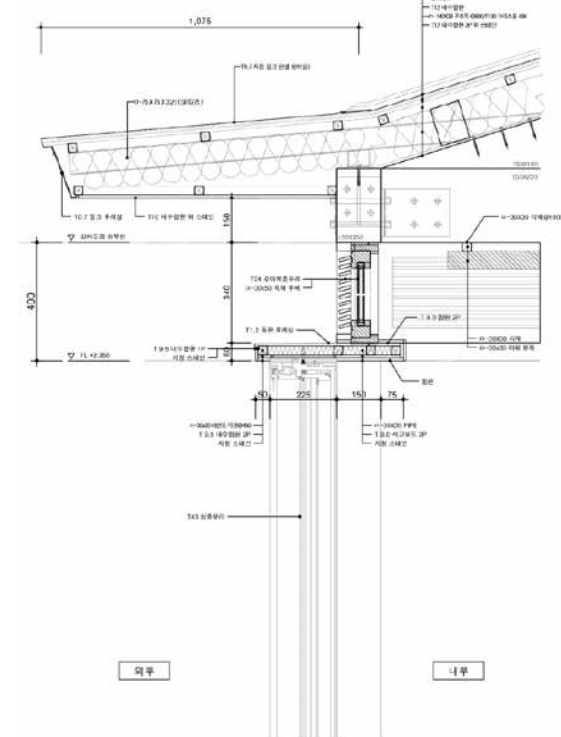
이러한 맥락에서 '회랑'은 중요한 해법이 되었다. 회랑은 공용 공간과 객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명지각 동관의 인상적인 공간적 특징을 형성하고 각 독채의 프라이버시를 자연스럽게 보호해 준다. 게스트는 진입부에 위치한 티하우스에서 환대를 받고, 회랑을 따라 이동하며 객실에 대한 기대감을 쌓아간다. 회랑은 동관의 중심 이미지이자 동선을 이끄는 중요한 장치이며, 각 채의 대문을 지나 작은 정원으로 들어서면, 그 정원이 객실 내부의 연장처럼 느껴져 한옥과 정원이 하나의 완결된 공간으로 경험되도록 유도한다.

명지각 1956 동관 - 객실

여러 채의 한옥과 공용 공간을 구성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주변 민가와와의 조화였다. 마을과의 공생을 핵심 가치로 삼는 '마을 호텔'이라는 개념처럼, 물리적 요소 역시 마을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조화와 어우러짐이 있을 때, 호텔은 단지 이질적인 공간이 아니라 마을의 일부로 기능할 수 있다고 믿는다.



지붕 상세도



사진제공 © 윤석준



준공 부문 | 최우수상

아중호수도서관

Ajung Lake Library

아중호수도서관

사이트의 이야기는 전주시 동쪽의 승암산 기린봉에서 아중호수로 이어지는 암반 부분이 돌출되면서 만들어진 곡선 도로에서 시작된다. 산으로 이어지는 등산로와 수변 데크 형식의 산책로가 조성되면서 이용자가 늘어나고 좁은 도로와 돌출된 도로 주변은 주차장화 되어 안전과 불편함의 문제를 만들게 된다.

아중호수도서관은 반듯한 터널 형식의 도로로 현행도로의 불편함을 줄이면서 산자락의 자연을 이어주고, 호숫가 뷰를 이용객들에게 되돌려주는 힐링과 치유의 공간을 만드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아중호수길 131

대지면적 : 5,039m²

연면적 : 901,65m²

건축면적 : 901,65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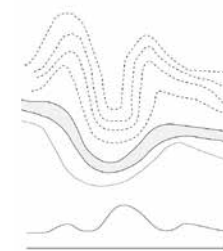
규모 : 지상 1층

주구조 : 중목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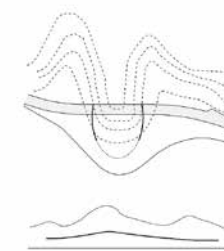
준공일 : 2025. 6. 23.

설계자 : 이엠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김은미, 길종합건축사사무소 ENG 이길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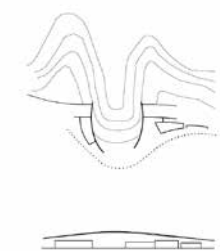
시공자 : (유)지웅건설 양희연, 동연티앤씨 이영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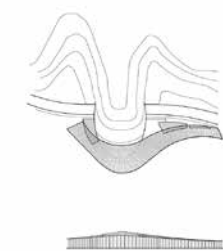
Natural Context



Architectural Intervention



Structure & Program



Regeneration of the Place



도시적 개입과 건축적 제안

산과 호수가 만나는 아름다운 경관과 독특한 지형의 자연조건 자체가 프로젝트의 지배적인 요소이다. 호수 변에 길게 면한 승암산의 한줄기가 암반으로 돌출된 부분을 감고 도는 포물선 모양의 도로는 두 대가 가까스로 통과할 수 있는 4~5m 폭으로 거의 100m 길이를 가지고 있었다.

산줄기와 암반이라는 자연이 도서관과 만나는 방법으로 우리는 도로를 직선화하고 터널화하면서 능선의 곡선을 이어주고 터널 벽과 기존 도로와의 사이 공간을 도서관의 공간으로 일체화하고자 했다. 인공구조물의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승암산의 능선을 잇는 자연스러운 곡선 지붕으로 주변 환경에 묻혀서 드러나지 않는 건축을 제안하게 되었다.



투명한 구조와 유연한 공간

목재기둥과 콘크리트 벽이 지붕과 유리만으로 연결되어 만드는 명쾌하고 투명한 구조_ 이 제안을 위해 먼저 두 가지, 호수기는 개방감을 극대화하고 유선형의 자연스러운 곡선 지붕은 하부의 구조물들과 분리되어 가볍게 떠 있는 형태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재료의 단면이 작은 목구조가 자연스럽게 채택되었다. 호수 변 유리의 제작 사이즈(폭 2.1~2.4m)를 고려한 모듈로 목재기둥이 배열되고, 후면의 암반과 도로구조물과 만나는 부분의 경우 중앙에는 암반 지형의 형태를 담은 타원형의 웅벽과 그 좌우로 도서관에 필요한 사무실 등 부속 프로그램이 담긴 세 개의 콘크리트 상자를 배치하고 그 위에 목구조 기둥을 연결하여 상부를 고창으로 열어주면서 투명한 외관과 가벼운 지붕을 만들었다. 특히 중앙부의 타원 웅벽 내측은 지층 단면을 연상시키는 서가로 활용하고 중앙부는 기존 지형을 활용해 양측 진입 레벨보다 높아지면서 승암산의 능선을 향해 계단식 좌석으로 열어주고 자연스럽게 숲과 호수를 연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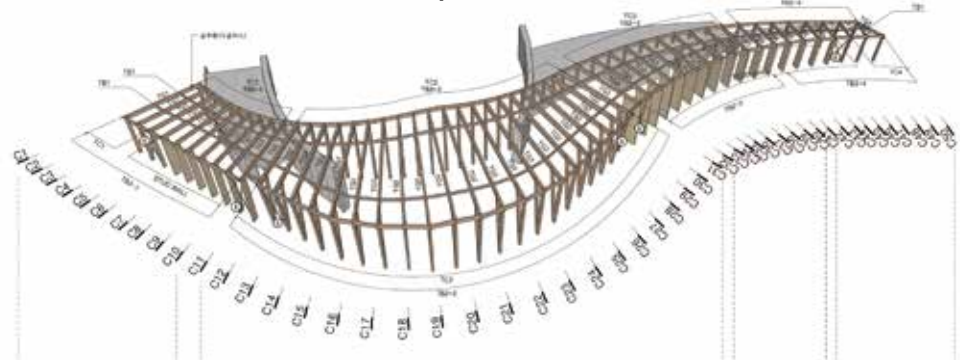
프로그램과 함께하는 장소의 재구성

도서관의 지붕은 예전 휘어진 도로를 기억하는 형태로, 기존 자연지형과 가장 잘 어울리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매끈하고 긴 유선형 공간은 다양한 깊이를 만들어 다양한 뷰의 호수와 산과 접하게 된다. 'MUSIC'이라는 주제로 Moment, Union, Sound, Inspiration, Communion 다섯 가지 공간을 담았다.





Post & Beam Structure concept



구조는 기초 및 토압을 지지하는 부분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와 중목구조 혼합으로 구성된다. 비정형 지붕을 만드는 중목구조는 호수와 숲에 각각 중심을 가진 두 개의 호로 구성되는 곡선 조형으로 50개의 축열에 100개의 기둥이 다른 높이로 모두 국내산 낙엽송 집성목을 사용했다. 중앙부 'V'자 기둥을 포함, 기둥과 주보와, 작은 보는 크기를 표준화하여 생산성을 높였으며, 공간의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었다.

긴 유선형의 도서관이 주는 다양한 깊이의 공간

길이가 긴 유선형 도서관은 한눈에 파악이 되지 않는 공간의 깊이와 다양성을 가진다. 폭 4m 정도의 안내구간을 시작으로, 북큐브 구간은 콘크리트구조의 낮은 층고이나 가장 깊이는 16m 폭을 가진 공간이다. 중앙부는 6m 천장고에 10~13m의 장스팬 목구조 구간으로 호수 쪽으로 기울어지는 'V'자 기둥과 보로 시원하고 담백한 구조에 설비를 감춘 목재 루버가 오버랩되면서 전체적인 공간의 흐름을 연결해준다. 또한, 중앙부 숲으로 연결되는 계단식 서가 상부는 지형의 레벨 차를 활용하면서 호수와 숲 모두를 경험하는 극적인 공간이다.



Structure diagram



metal roof



wood joist



wood columns & beams



concrete basement & retaining



U 101_Union_사람, 빛, 음악이 만나는 공간

도서관에서 가장 공간감이 극대화된 공간으로, 호수와 숲을 연결하는 울동적으로 놓인 목재기둥과 계단식 벤치가 만드는 담백한 구조에 6m에 가까운 높은 천장고를 통해 앞으로는 호수 뒤로는 숲으로 열린 드라마틱한 뷰를 가진다.

여유가 있는 계단식 벤치는 앉아서 책을 볼 수도 있고, 쿠션에 편안하게 기대어 쉬거나 음악 연주회가 열릴 때는 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울림이 좋은 공간이다.



C 101_Communion_음악과 자연, 교감하는 공간



S 101_Sound_소리와 울림을 느낄 수 있는 공간



M 101_Moment_책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공간

사진제공 © 노경

I 101_Inspiration_책과 함께 영감을 얻는 북큐브 독서 공간

중앙 타원 웅벽의 서가와 서비스 영역의 닫힌 콘크리트구조가 만나는 버퍼 존으로 콘크리트 지붕 구조부의 낮은 천장이나 상부로는 산으로 열린 고창이 있는 가장 깊이가 있는 구간으로, 산에서 떨어져 나온 바위들이 흩어져 있는 개념으로 난간 높이의 콘크리트구조 독서공간이 중앙부로 올라가는 여러 개의 단차를 가지고 호수 부로 열리며, 책을 읽을 수 있는 목재 벤치로 구성된다. 외곽으로는 진입부에서 중앙부로 올라가는 경사로로 자연스럽게 중앙 레벨로 연결된다.



준공 부문 | 우수상

당진 학생활동 커뮤니티 센터

Dangjin Student Activity Community Center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운학길 30

대지면적 : 1,178m²

연면적 : 485.54m²

건축면적 : 485.54m²

규모 : 지상 1층

주구조 : 철골구조, 중목구조

준공일 : 2023. 7. 10.

설계자 : (주)지역도시건축사사무소 리플래폼 윤여갑, 건축사사무소 세종 정효경

시공자 : 천지건설(주) 구재문, (주)수피아건축 이주석

계획의 전제

당진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공가 및 유휴 부지를 활용해 청소년 커뮤니티 거점시설을 계획한다.

대상지 주변으로 5개의 초·중·고등학교가 밀집해 있어 청소년 시설을 건립하기에는 최적지였다.

어른들이 좋아하는 시설이 아닌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공공건축물로 계획되어야 했다.



마을 만들기, 채운동 수다박스 2호점 :

크고 작은 건물들이 대상지 주변을 에워싸고 있다. 타원형 매스를 중심으로 다른 성격을 갖는 네 개의 모서리와 면이 배치된다. 사이의 외부 공간에 다양한 테마의 공간이 계획되고(마당), 주변과 연결되어 마을과 같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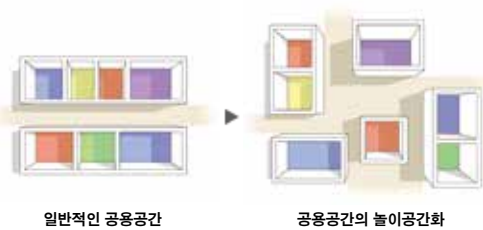
마을 만들기 개념 이미지



배치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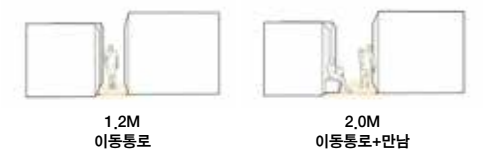
놀고 싶은 골목길, 유연한 공간의 탄생 :

도시재생사업 보고서 상의 2층 건물을 1개 층으로 계획하면서, 공용 부분의 면적을 골목길로 활용한다. 프로그램 매스 사이 공간을 서로 다른 크기의 골목으로 계획한다. 어릴 때 뛰어놀던 골목길, 쉬는 시간에 한없이 시끌벅적한 교실 옆 복도처럼.



일반적인 공용공간

공용공간의 놀이공간화



1.2M
이동통로

2.0M
이동통로+만남



3.0M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

4.0M
활동이 일어나는 중심공간



2층 계획

1층 계획



입면 계획



평면 계획



예측 불가능한 청소년, 변화하는 공간 :

하나의 큰 지붕 아래에서 프로그램 박스는 다양하게 계획될 수 있다. 가변성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운영 주체가 결정되면서 평면이 수정될 때 큰 어려움이 없었다. 예측 불가능한 청소년의 잠재력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 인구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 청소년을 위한 박스는 마감 재료가 다른 개별적인 집들이다.

어수선한 주변 건물 사이의 경계, 테마가 있는 외부 공간 :

담장을 열어낸 주변 건물과 사이는 험했다. 한정된 공사비로 주변 건물과 사이 공간을 공공의 외부 공간으로 계획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라는 경계, 식재형 담장 등 네 가지 성격의 외부 테마에 맞는 열린 담장을 계획한다.



사진제공 © jangyoungjung



열린 공간, 소통의 시작 :

주변 건물과 사이 공간은 사색마당, 놀이마당, 간식마당, 진입마당 등 담장 없이 열려 있는 개별적 테마공간으로 계획한다. 차폐가 가능한 공간은 사색의 공간으로, 아이들이 지나는 마당은 간식거리를 나눠주는 공간으로, 놀이마당은 해먹에서 핸드폰, 닌텐도를 할 수 있는 아지트가 된다.

마을, 사라진 경계 :

프로그램 박스와 골목길, 골목길과 테마가 있는 네 개의 마당, 마당과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동네(채운동) 사이에는 모두 경계가 존재한다. 계획에 의해 형성되는 경계를 자유롭게 여닫고 때로는 모호하게 만들어 공간의 확장을 꾀한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공건축의 실험이다.

나무와 금속이 만드는 따뜻한 마을 :

철골조와 목조를 혼합한 구조를 적용하여 철골 기둥과 목재 보 크기를 줄이고 넓은 내부 공간을 만들었다. 그 결과, 가벼운 지붕 구조는 마감재와 크기가 다양한 프로그램 박스를 배치하고, 박스 사이사이를 활동 공간으로 쓸 수 있게 해 주었다. 나무가 주는 따뜻한 감성은 아이들이 공간을 편안하게 느끼게 하고, 가새를 더한 나무 모양의 철골 기둥은 차가운 느낌을 줄여 주었다.



카페보다 수다박스 2호점 :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있고, 청소년의 의사결정에 따라 계획되는 시설. 어른들이 좋아하는 시설이 아닌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시설. 갈 곳 없는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학원가는 도중에 편하게 들 수 있는 공공건축물. 카페보다 더 가고 싶은 카페. 수다박스 2호점. 아이들의 아지트가 되었다.

준공 부문 | 우수상

제주 나의 집

My Little Hut

위치 : 제주 제주시 한경면 중산간서로 2328-7

대지면적 : 495m²

연면적 : 90.4m²

건축면적 : 94.9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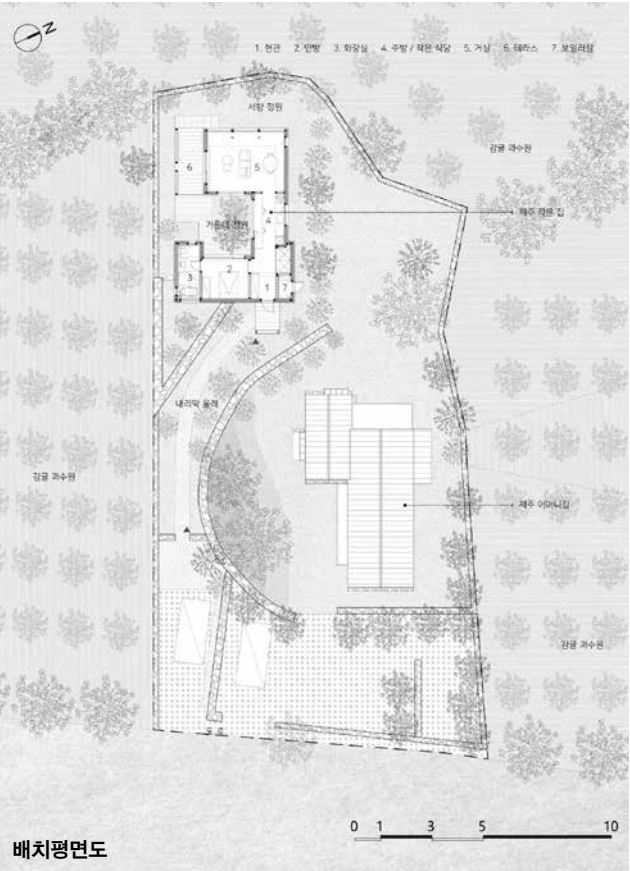
규모 : 지상 1층

주구조 : 경량목구조

준공일 : 2023. 12. 26.

설계자 : 에이루트 건축사사무소 이창규, 강정윤

시공자 : 다봄주택 최규철



제주에 안착한 나무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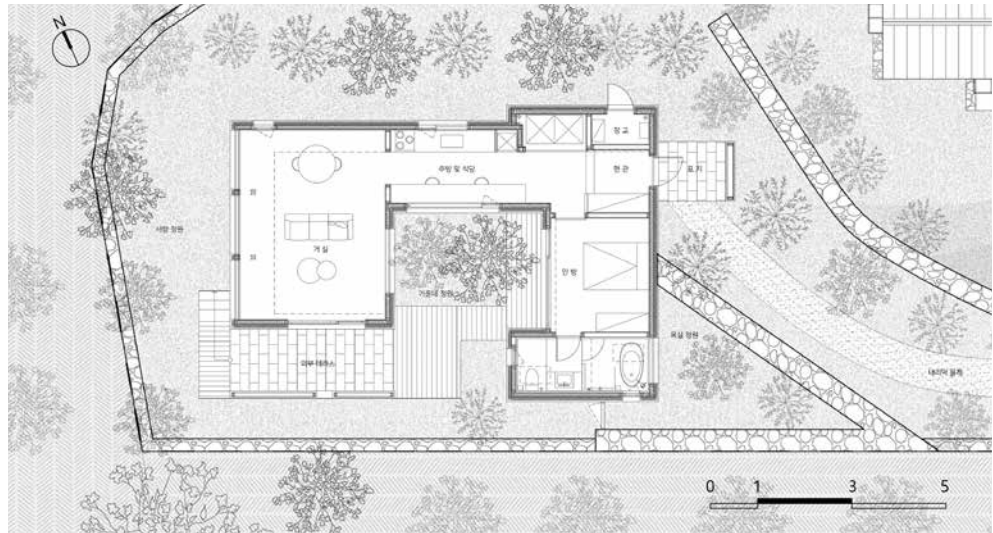
제주 나의 집은 우리가 관심 있는 현대적 재료, 서양식 목구조로 한국적 정서를 풀어 내보려는 시도 중 하나이다. 많은 건축주가 자재 수급, 시공 방식, 비용 등 여러 한계로 구조미가 드러나는 중목 구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워 경량 목구조를 택하곤 한다. 우리는 서양에서 유래한 벽식의 목구조를 가지고 우리에게 친숙한 공간을 만들어보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이 집 또한 땅의 형상과 지역의 삶을 따른 배치, 따뜻한 마당을 품은 평면, 칸으로 나누어진 공간, 모든 실에서 만나는 자연 등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진행하였다. 더불어 풍토에 어울리는 목구조 디테일을 적용하는 것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이다.

경량 목구조는 우리와는 다른 풍토에서 시작된 구조라 그 방식을 그대로 따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제주의 경관에 어울리는 낮은 지붕을 만들기 위해 변형한 디테일, 습기와 벌레를 차단하기 위한 돌출된 기초 벽 등 우리가 경험하며 깨닫게 된 것들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처음 이 땅에 배치를 시작하며 제주의 집처럼 땅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수목과 돌담을 두른 후, 그에 어울리는 ㄷ자 모양의 단정한 집을 만들고자 하였다. 집은 도로에서부터 점점 낮아지는 올래를 따라 깊게 들어오면 만나게 된다. 도로에서 바로 들어오기보다 들고 날 때, 마음을 한 김 식힐 수 있는 전이공간인 올래를 두고자 했다.

깊은 내리막 올래는 옆집의 남향 마당이 즐기던 과수원 풍경을 함께 향유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뜻한 마당을 품은 유려한 공간

풍토가 거친 제주에서 가장 고민하는 것은 머물고 싶은 외부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제주 나의 집은 제 역할에 충실한 하나하나의 공간들이 모여 경계를 짓고 그사이에 따뜻한 마당이 자리한 집이다. 더불어 복도를 두지 않는 것이 한옥의 중요한 공간감이라 생각하기에, 방과 거실을 잇는 중간 영역에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주방과 간단히 식사할 수 있는 작은 식탁을 두고 그곳에서 바라보는 마당을 두는 것으로 그 개념을 이어가고 싶었다. 그 결과 방과 화장실-주방-거실로 유려하게 연결된 집은 모든 면에서 자연과 마주하는 익숙하고 편안한 공간이 되었다.

현대적 재료와 공법으로 만들어낸 한국적 정서

우리는 사무실 초기부터 서양식 구조와 재료로 만드는 한국적 정서에 관심을 가지고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예산이 많지 않았던 초기에는 지붕의 서까래, 한식 창호 등의 요소를 통해 그 분위기를 만들거라 하였고 점점 제주의 풍경에 어우러지는 배치와 바람을 막는 따뜻한 마당, 중첩의 공간, 외부와 내부의 관계성, 지역에 어울리는 디테일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제주 나의 집에서는 일반적인 벽식 구조의 창에서 벗어나 한옥의 칸 개념을 적용하고, 기단을 활용해 땅과 집의 높이를 중화하는 것이었다. 또한 창 위치와 크기를 조절해 중첩의 공간을, 적절한 틈칸을 두어 기분 좋은 어두움을 구현하고 싶었다.



ALT1. 적절한 벽과 개구를 통해 구조를 해결하는 방식



ALT2. 한옥의 칸 개념을 적용한 구조 방식

너머의 풍경이 아름다운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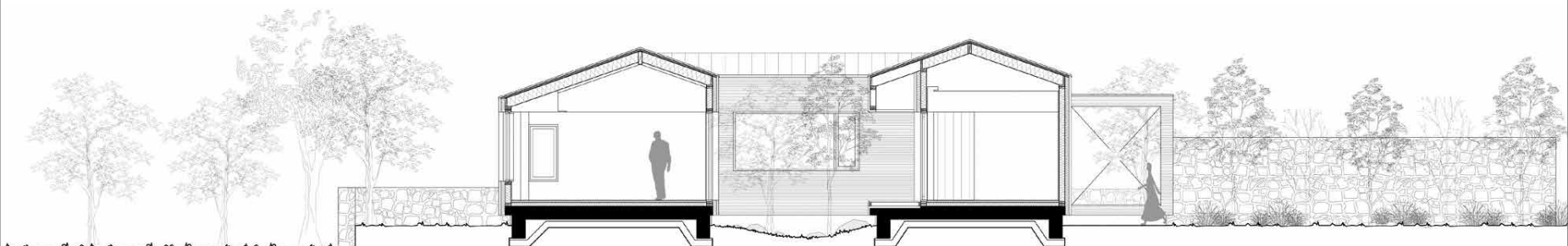
집이 자리한 청수리는 제주의 서쪽 마을로 오후의 빛이 아름답다. 우리는 그 빛을 담기 위해 따뜻한 느낌의 사비석으로 외부를 마감하였고, 과수원 풍경과 마주하는 서향으로는 세 칸의 거실을 두어 작지만, 빛과 풍경이 가득한 공간을 만들고자 하였다. 'c'자의 집이다 보니 각각의 실에서 마당을 중심에 두고 시선이 교차된다. 과수원으로 둘러싸인 이 집은 중첩된 공간 너머로까지 시선이 열려 시원하게 풍경을 즐길 수 있다. 이렇게 중첩된 풍경을 만들 때 그 개구부들의 위치와 비례를 섬세히 조절하였으며, 처마가 드리워진 틈칸과 반 외부공간들도 적절히 계획해, 열려있지만 어스름한 기분 좋은 어두운 공간을 만들어보고 싶었다.



동측면도와 북측면도

경험이 만든 디테일

제주에는 비가 올 때면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빗물이 지붕을 타고 올라간다. 일반적인 목구조 벤트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면 빗물이 안으로 타고 들어가 구조와 단열재가 젖어 문제가 심각해진다. 여기에 물매가 낮은 지붕이라면 그 취약함은 배가 된다. 제주의 경관에 어울리는 3/10 이하의 낮은 경사 지붕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바람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벤트 시스템을 두지 않고, 대신 지붕과 벽에 이중 단열을 하고 있다. 이 방식은 눈이 많은 북미 일부 지역에서 사용하던 디테일을 변형한 것으로, 원천적으로 습기와 빗물 침투를 막고 대신 내부에서 발생하는 결로를 줄여 구조를 건강히 유지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땅과 가까운 집을 지향하지만, 바닥에서 올라오는 습기와 벌레를 차단하기 위해서 높아진 기초는 기단으로 조절하고 토대목이 올라가는 기초의 디테일을 새로 만들어 제주에 어울리는 나무의 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경험이 만든 디테일은 지금도 여전히 진화하는 중이다.



사진제공 © 박영체



준공 부문 | 우수상

상형서사

Narrative in Pictograms

위치 : 경기도 안성면 서운면 인리 107-4

대지면적 : 3,042m²

연면적 : 2,106.29m²

건축면적 : 1,081.12m²

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주구조 : 중목구조,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준공일 : 2025. 4. 17.

설계자 : (주)소슬건축사사무소 왕성한, 김두원

시공자 : (주)미도종합건설 이재우



사진제공 © 노경



도시의 서사를 읽고, 그 기호를 이어 쓴 공공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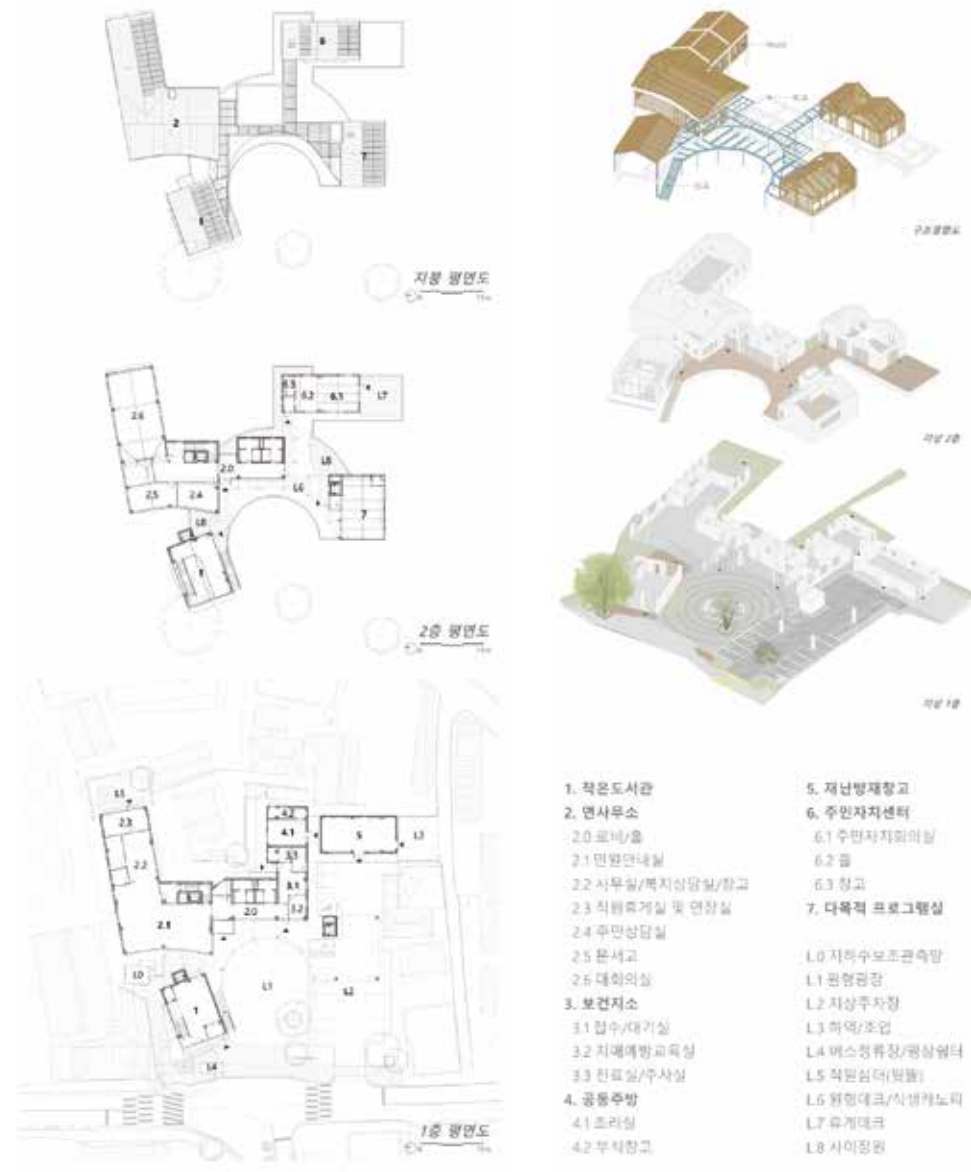
우리나라 최초(1901년)의 포도 경작지로 유명한 서운면은 정갈한 포도밭 사이에 몇몇 집들이 모여들며 오래된 촌락을 형성해 왔다. 최근 마을 외곽에 산업단지가 조성되며, 새로운 이주민을 맞이할 ‘행정복지센터’를 짓기로 한다. 촌락의 정취와 생활은 여전히, 이 마을 한가운데 들어설 공공건축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우리는 논리로 구축된 추상적 언어 대신, 땅과 삶이 빚어낸 상형문자와도 같은 기호와 비율을 읽고 그 문장을 건축으로 옮겨 적었다.

대지는 부정형 경계와 주변 생활 요소가 복합적으로 얹혀 있다. 신작로에는 마을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정류장과 세대를 거쳐 자라온 장성한 나무와 평상이 있다.

이 나무 그들은 주민들의 비공식적 커뮤니티 장소로 기능해 왔다.

매년 9월 포도가 한창일 무렵, 서운면은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인파로 북적인다. 포도 축제는 단순한 지역 행사가 아니라, 1년 내내 준비와 조율을 거듭한 마을의 공동 프로젝트다.

이를 이끄는 주민들의 단합력은 어느 곳과 비교해도 돋보이며, 주민자치센터의 위상 또한 그만큼 특별하다.



원형 데크와 사이 정원

목구조, 그 양가성

마을 공동체에게 목구조는 익숙한 옛 기술이자 동시에 낮은 현대적 공법이었다. 우리는 여섯 번의 주민 협의와 절충에 절충을 거듭하며, 생활과 풍경, 관계를 존중하고, 목구조의 장점을 고루 담아 지방 소도시에 어울리는 공공건축을 구현하려 했다.

반복되는 주민 협의는 여러 차례 원안을 흔들었지만, 우리는 RC, SC, Wood를 용도와 성격에 맞게 유연하게 조합하며 대응했다. 특히 온전히 중목구조로 세운 구간에는 다양한 트러스를 구상하여, 하중을 건디는 구조적 힘과 함께 공간에 숨결과 표정을 더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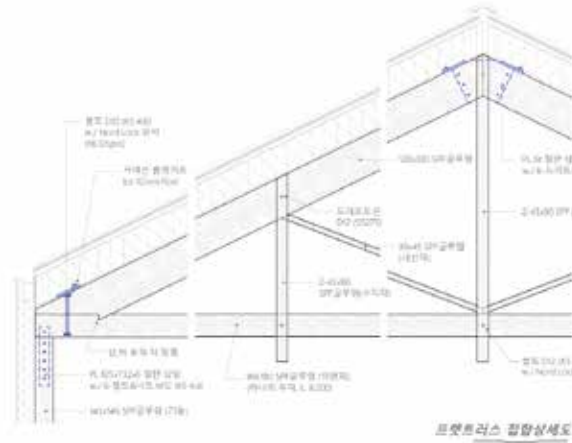
도서관

도서관은 접근성이 높은 정면에서 방문자와 주민을 환영하는 상징적 입면을 형성한다. 1층은 개방형 독서·휴게 공간, 2층은 조용한 학습 공간으로 계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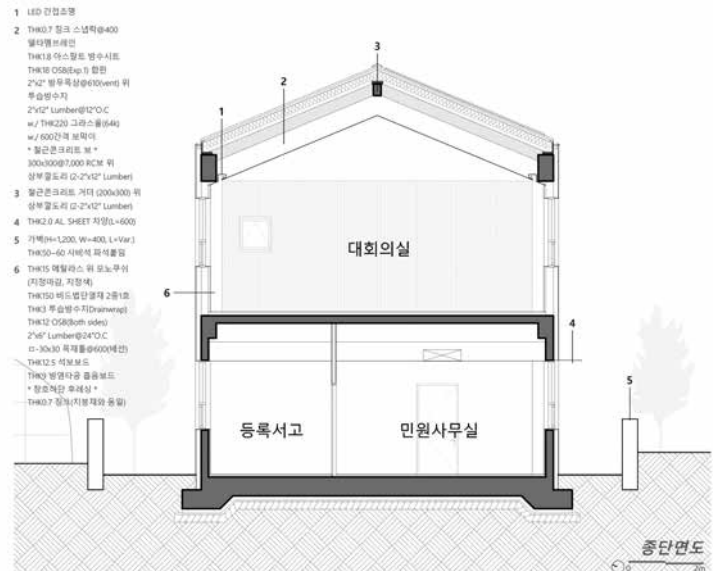
주민자치센터

자치센터는 별과 풍경이 가장 좋은 자리에 배치, 외부 데크를 두어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 마을 주방 또한 별도로 마련했다. 두 개의 박공지붕을 나란히 두어 공간을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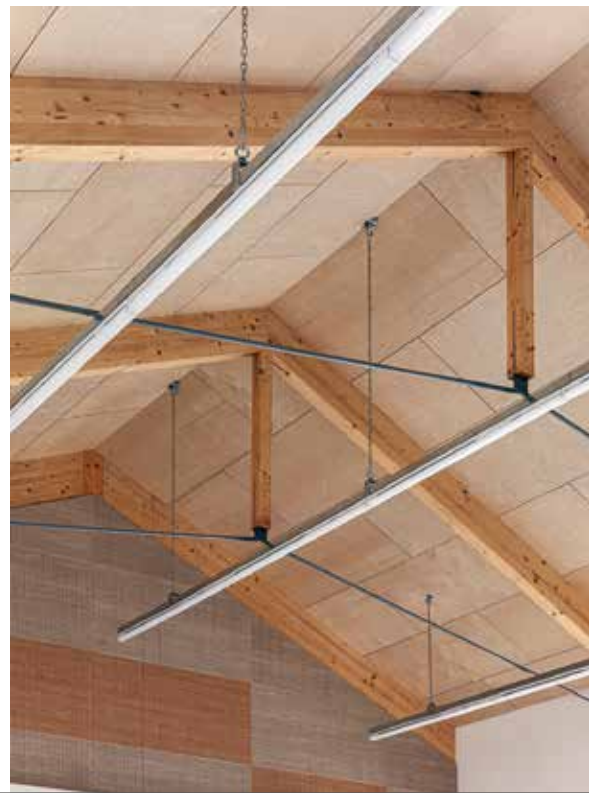
면사무소와 보건지소

면사무소는 RC 뼈대 위에 목구조를 채워 넣는 Skeleton & Infill 방식을 통해 구조적 안정성을 만족시켰다.



다목적 프로그램실

마을 구성원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도 열려있어, 함께 배우고 교류하는 장이 된다.



사진제공 © 텍스처인텍스처



마을과 건축, 함께 만든 시간

서운면 행정복지센터 프로젝트는 단순한 공공건물을 짓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여섯 번이 넘는 주민 협의와 수십 차례의 조율 속에서 우리는 마을과 건축이 함께 변해가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익숙함과 낯섦이 부딪히고 조율과 양보가 커져가 쌓이며, 마을 사람들의 손길과 목소리가 스며든 건축은 이제 '마을의 집'이자, 자연스러운 마을 풍경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형의 대지 경계와 주변 요소에 섬세하게 반응하며 자리한 개별 동은 어느 하나 앞서지 않습니다. 가우뚱하게 병치된 볼륨들은 서로의 위치와 방향을 조율하며 마을의 시간과 균형을 나눕니다. 어느 한 면도 뒷모습으로 남지 않는 건축은 마을의 풍경 속으로 부드럽게 스며들며 이제 함께 늙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준공 부문 | 구조디자인상

유지 커피 워크스

YUJI Coffee Works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이동 48-5

대지면적 : 3,306m²

연면적 : 512.61m²

건축면적 : 478.54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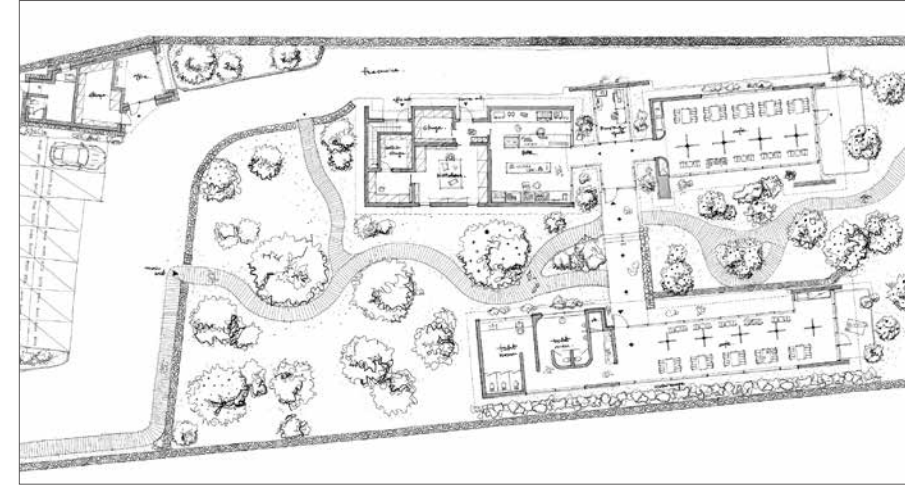
규모 : 지상 2층

주구조 : 중목구조, 철골구조

준공일 : 2025. 2. 13.

설계자 : (주)이성범건축사사무소 이성범, 환•구조기술사사무소 민환석

시공자 : (주)티피에이종합건설 한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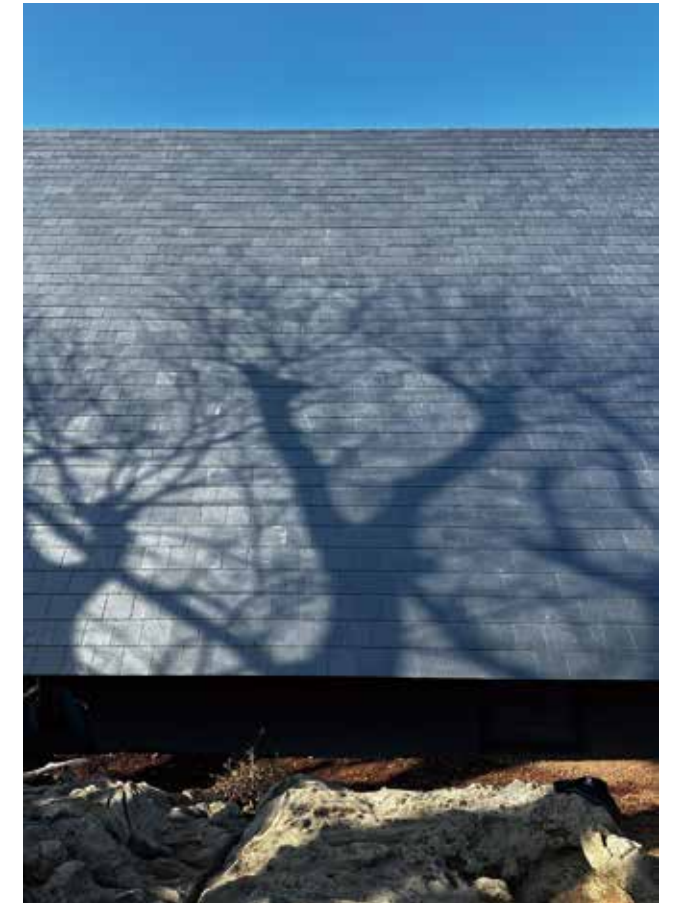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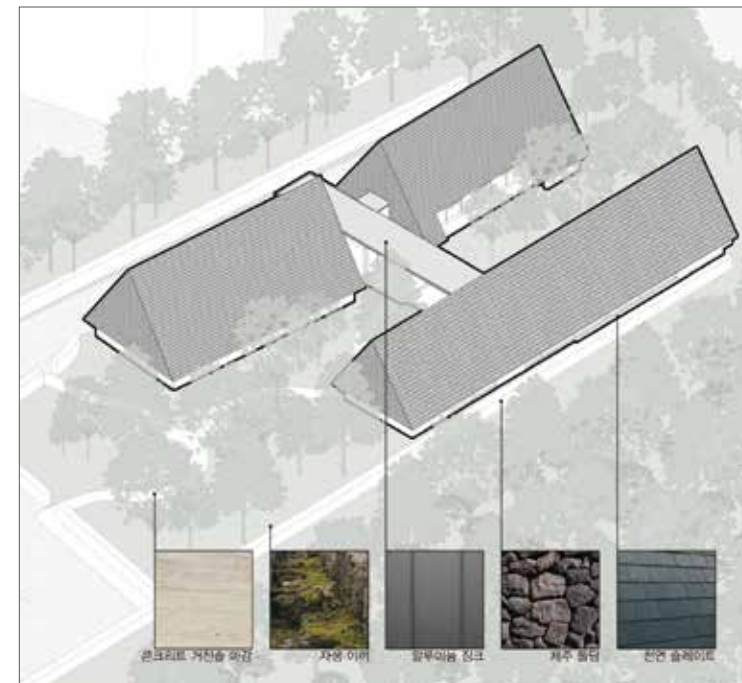


“지형의 언어, 자연된 건축”

제주 북부 내륙에 자리한 오라이동은 바다처럼 극적인 장면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완만한 경사와 낮게 흐르는 바람, 습한 공기, 땅의 결이 겹쳐지는 독특한 밀도로 건축적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장소이다.

대지는 가로 100미터, 세로 30미터의 선형 구조를 갖고 있다. 북측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예정되어 있고, 남측은 비닐하우스, 동측은 오남로라는 4차선 도로, 서측에는 제주에서 가장 긴 건천인 한천이 인접해 있다. 물리적으로는 열려 있으나, 시각적으로는 분절된 이 대지는 건축이 어디에, 어떤 태도로 놓여야 할지를 끊임없이 묻게 했다. 수령이 오래된 팽나무들과 자생 굴나무는 이곳의

자연적 축을 형성하고 있었고, 나는 그 축을 따라 건축의 방향과 자리를 조율해 갔다. 이 과정은 공기의 밀도, 사람의 걸음과 속도, 빛의 방향과 그림자의 리듬처럼 비가시적인 흐름들을 설계의 태도 안에 담아내는 일이었다. 그 결과, 두 개의 삼각형 단면 건축물이 서로를 비껴 두고 배치되었다. 형태는 서로 독립되어 있지만, 위도와 틈의 구조를 통해 시선을 머물게 하고, 하늘로 확장되는 틀을 구성한다. 두 동은 자연과 건축 사이에 느슨하지만 분명한 연결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놓였다. 형태를 선행하기보다, 땅의 언어를 천천히 감각으로 읽고, 그에 응답하는 건축의 시간이 필요했다.



저채도의 건축

이 땅에서는 건축은 무엇을 말하기보다, 무엇을 덜어내고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는지를 질문했다. 건물은 하나의 완결된 대상이 아니라, 지형과 환경의 흐름에 맞춰 조심스럽게 놓인 틀이다. 지붕은 자연을 덮기보다 그 흐름을 따라 기울어졌고, 땅과 맞닿을 듯 드리워지며 입면이 되었다. 처마는 햇빛과 습기를 조율하고, 사람과 자연 사이의 간극을 완충하는 깊이로 설계되었다. 외피는 시선을 끌지 않고, 입면은 보행자의 위치와 시간에 따라 빛과 그림자의 흐름 속에서 변화하며, 건축은 앞에 나서기보다 배경으로 물러서는 태도를 택한다. 외장에는 제주의 색에 가까운 천연 슬레이트를 사용했다. 자연과의 조율을 돕는 물성과 색채, 그리고 낮은 채도의 표면은 도드라지지 않지만, 그 자체로 주변을 포용하며 풍경 안에 자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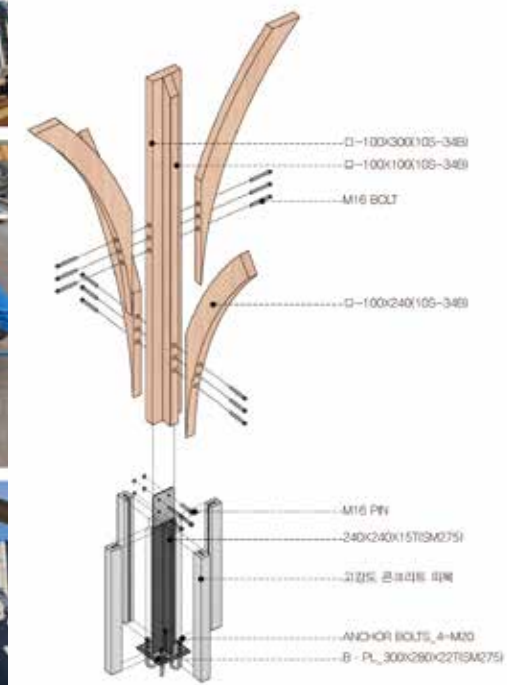


기후적, 구조적 해석

제주의 기후는 예민하고 강렬하다. 해풍이 몰아치는 강한 바람, 여름철의 높은 습도와 강한 일사는 건축의 형상과 공간 구성뿐 아니라, 구조와 재료, 단면의 작동 방식에까지 깊게 관여한다. 유지 커피 워크스의 지붕은 중목구조로 짜인 장대한 서까래를 중심으로 두고, 이를 200각 철골 보가 수평으로 지지한다. 하중은 기초로 연결된 콘크리트 옹벽과 외곽에 배치된 세장한 커튼월 기둥으로 분산되며, 이 구조는 물리적 안정성과 공간적 리듬을 동시에 생성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특히, 지붕은 의도적으로 낮게 드리워져 있는데 인접한 돌담의 높이에 맞춰 대지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면서도 대지 주변의 아파트와 빌딩하우스로의 시선을 차폐하는 동시에 제주의 극단적인 바람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해석이었다.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목구조 기둥은 숲의 이미지를 차용하고 있고 수직성과 그 간격의 리듬을 갖추고 있다.

외곽의 커튼월은 외피와 구조의 경계를 흐리며, 풍경과 공간 사이를 조율하는 투명한 틀로 기능한다. 지붕의 하중을 흡수하는 기둥의 역할이면서 내부에서 외부로 열린 시선을 부드럽게 이어주고, 세장한 커튼월과 통유리를 통해 안과 밖의 경계와 개방 사이의 균형을 섬세하게 유지한다. 남측의 강한 일사는 깊게 드리운 처마에 의해 걸러지고, 북측에서는 부드럽고 안정된 확산광이 실내에 고르게 퍼지도록 구성되었다. 이 모든 요소 즉 지붕, 구조, 개구부, 커튼월은 단면과 마감 디테일, 환기, 열 환경까지 고려하여 기후와 구조, 감각이 교차하는 건축적 질서를 만들어가고자 했다.



사진제공 © 이정현



직조된 태도

나는 건축을 기능의 집합으로 보지 않는다. 그것은 감각의 흐름과 밀도가 조직되는 하나의 구조, 그리고 시간 속에서 직조된 태도라고 생각한다. 공간은 사람의 걸음과 머뭇거림, 머무름과 시선, 그리고 시간의 리듬에 따라 구성된 감각의 시퀀스다. 이러한 흐름은 진입로의 수백 년 된 제주 팽나무 숲을 통과해 두 동 사이의 틈으로 유도되며, 낮은 높이의 회랑을 따라 내부로의 시선을 천천히 이동시킨다.

이 여정 속에서 바닥의 질감, 벽면의 재료, 조도의 편차, 기둥의 간격과 높낮이는 사용자의 감각을 세밀하게 조율하는 도구로 작동한다. 중앙의 마당은 이 건축공간의 시각적 중심이자 건축 전체의 감각적 여운이 확장되는 틀이다. 남측의 빌딩하우스와 북측의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서 마당은 시선을 조절하며, 바깥 풍경과 내부 경험 사이의 균형을 중재한다.

중정으로 유입되는 빛은 시간에 따라 각도를 달리하고, 지붕 위의 천연 슬레이트에는 나무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이 건축의 시간성과 감각을 시각화한다. 유지 커피 워크스는 건축은 어디에 놓여야 하는가,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지연된 구축이다.

木苑

Mokwon, Wooden Atrium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선유동 227-4

대지면적 : 999m²

연면적 : 499.84m²

건축면적 : 499.84m²

규모 : 지상 1층 3동

주구조 : 일반목구조

준공일 : 2025. 4. 29.

설계자 : (주)24건축 김개천, (주)하우스스타일 건축사사무소 김주원

시공자 : (주)케이에스피앤씨 장길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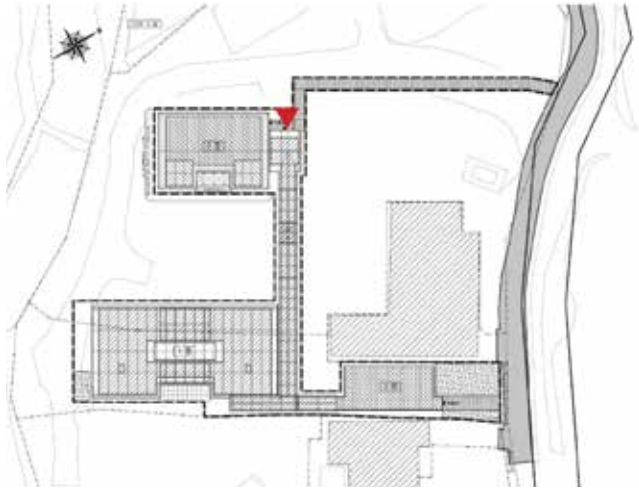
月遊洞天

어디선가 날아온 풀씨가 작은 씨앗 하나처럼, 이곳에 우연히 돌아나 어울린 모양이기를 바랐다. 집터를 잡고 형태를 생각할 때, 무리하거나 지나치게 의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경계했다. 각각 필요한 세 개의 영역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나무집을 지어 올리는 것이 계획의 대부분이다. 집을 지을 부재를 결정하고, 그 부재가 응당한 힘을 받아내도록 적당한 간격과 크기로 배치하고, 결구의 방식을 통일되게 펼치는 것 만으로도 디자인이 완성되는 것은 목구조의 매력이라 할 수 있겠다.

대지에는 높낮이가 있어 각 영역의 쓰임에 알맞도록 주동들을 배치하고, 회랑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건물군이 되도록 했다. 회랑은 건물과 건물 사이의 빈 공간을 위요하여 외부 공간을 만드는 중요한 건축적 장치로 다루었다. 동시에 쉽게 외부로 드러내기 힘든 목구조 날것의 형태를 의식적으로 드러내는 장치이기도 하다.

지붕만 허공에 떠 있어 장소의 존재만을 암시하는 형태를 의도했는데, 지붕을 떠받치는 중목구조의 바깥 커를 투명한 커튼월 형식의 창호로 감싼 것은 공간의 존재감이 허공에 흩어지도록 한, 시각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식물들과 흙바닥 위에 배치한 디딤석과 돌담들이 사람과 자연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했다.

회랑의 선형구조를 따라 한 번 더 낮은 돌담을 배치했는데, 자연 속에 존재하는 무수한 커들과 같이 보이지 않는 질서의 한 축이 되고, 실내의 돌담과 외부의 돌담이 연결되는 것 또한 같은 이치다. 의도한 바가 보이지 않고 바람에 실리듯 느껴지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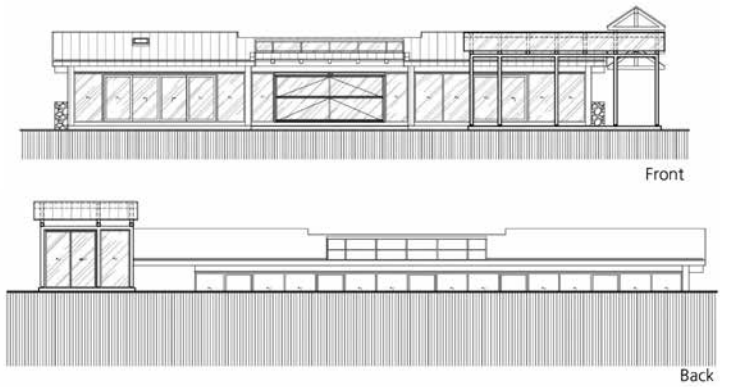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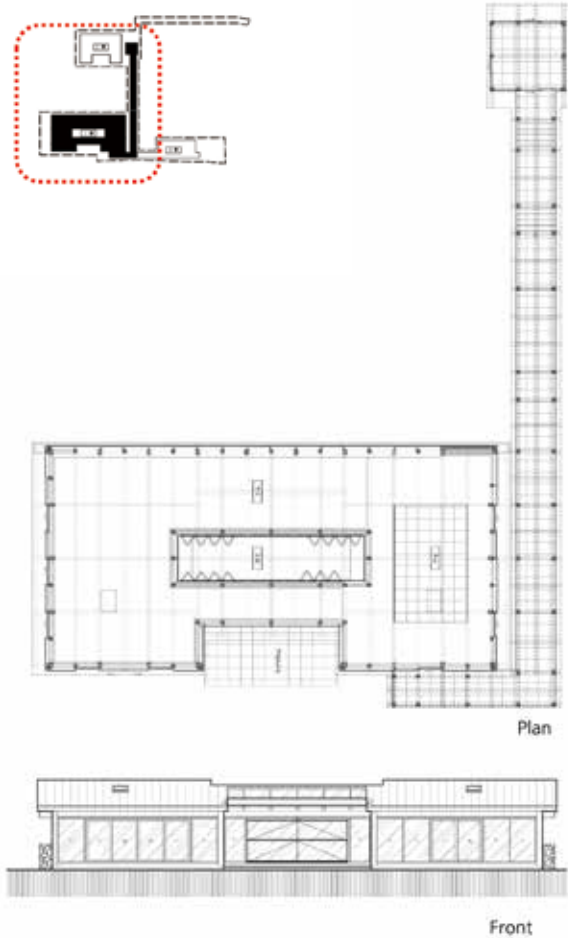


SITE PLAN

기존의 건물군 사이에 3개의 주동을 배치하고, 회랑으로 연결하는 배치. 주진입이 뒤쪽에서 이루어지므로, 회랑의 시작점에 작은 정자 같은 홀을 배치해, 단지 전체의 전실 같은 역할을 하도록 했다.



돌담과 회랑 동일한 모듈이 반복되며 이루는 선형요소는 나란히 배치된 낮은 돌담을 통해 풍부해진다. 실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돌담은 내외부를 관통하며 구축적 요소로 질서를 구현한다.



제1주동 가장 큰 규모의 1동. 안마당을 위요하는 회랑과 함께 투명한 경계의 역할이 주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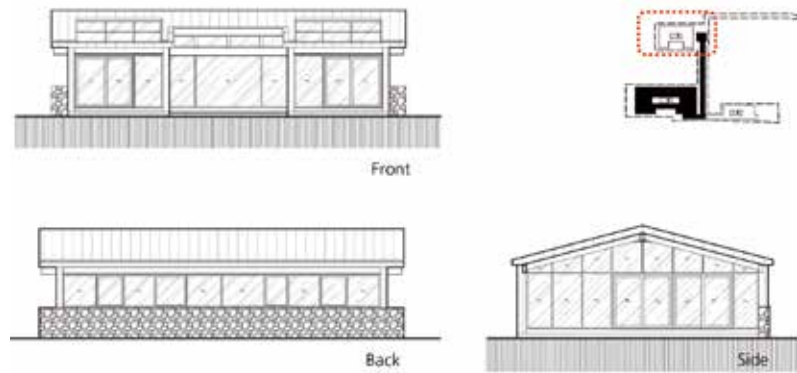
연결 테라스를 중심으로 양쪽 날개가 디딤석으로 연결된 모습. 테라스로는 아래위로 움직이는 폴딩도어를 설치하여, 내외부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시도했다.





나무, 돌, 풀, 바람, 햇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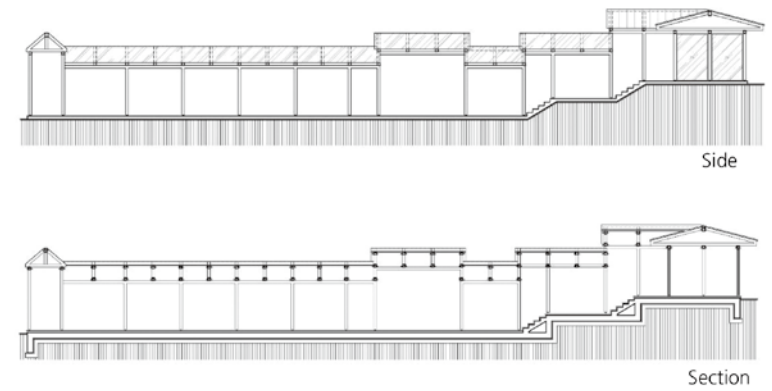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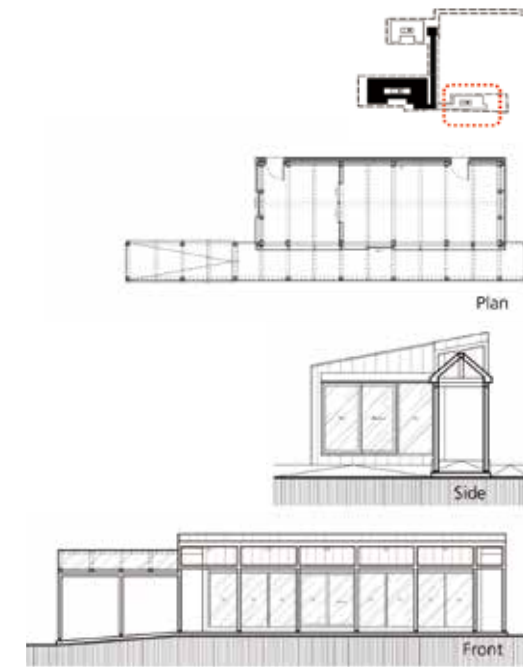
1동의 후면은 낮은 돌담으로 구성하였다. 안마당에서의 프라이버시를 생각한 것이기도 하고, 선형구조를 강조하고 내외부를 연결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이 공간의 주 용도는 온실이고, 용도에 따라 흙바닥에 식물들이 가득 배치되고 그 사이를 거닐며 즐길 수 있도록 한, 새로운 공간 장르다. 1동은 작은 중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중정을 중심으로 양쪽 wings 두 개의 영역으로 분화했고, 선형의 통로로 연결된다. 공간은 좁은 통로와 넓은 광장이 교차하는 역동성을 갖게 되었다.



풍경 2동은 대지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1동의 지붕 너머로 멀리 북한산의 산세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다. 1동의 기다란 몸체를, 차경을 위한 담장 삼아 높다랗게 올라 앉혔고, 중앙에는 테라스를 배치했다.



길 3동의 회랑은 건물의 지붕 경사에 맞추어 외쪽 경사지붕으로 구성했다. 기존 건축물의 사이에 높은 관리사이며, 그만큼 존재감을 낮추면서도 전체 공간의 분위기를 이어가야 하는 숙제가 주어졌다.



목구조 디테일

1. 부재의 차별적용

140 × 140 기본 부재 외 목구조의 묵직한 느낌을 위해 지붕 장선과 연결되는 기둥부재는 140 × 240을 적용. 변화를 통해 풍부한 느낌의 목구조 공간을 의도했다.

2. 전단벽 역할의 브레이스

전체를 투명한 유리 벽으로 감싼다는 의도와 전단벽이 꼭 필요하다는 구조해석이 충돌. 브레이스는 전단벽을 대신할 수 있으므로, 전단벽 구간에 140 × 140의 브레이스를 설치했다.

3. 회랑 기둥의 바닥 접합

회랑의 기둥마다 주춧돌을 설치하는 대신, 기초 철물을 프리컷으로 삽입하여 설치. 이를 위해 매트 기초 수평 레벨을 잡고 철물을 심은 후, 기둥을 세워 회랑을 완성했다.

4. 선홍통 처리

창호 모서리 부분의 여유 공간을 이용, 선홍통을 감추어 처리했다.



숲속의 사진관 제라

Studio ZERA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29-1
 대지면적 : 2,331m²
 연면적 : 299.34m²
 건축면적 : 299.34m²
 규모 : 지상 1층
 주구조 : 경량목구조
 준공일 : 2024. 8. 22.
 설계자 : 투닷건축사사무소(주) 조병규, 모승민
 시공자 : (주)브라운트리 종합건설 김제욱, 오권만



숲이 주인공이 되는 사진관

바람이 많은 제주에는 유독 삼나무가 많다. 그 까닭은 아프다. 일제 강점기에 무분별한 벌목이 있었고 그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심어진 일본 삼나무가 지금까지 이어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삼나무 덕에 벌거숭이 제주의 산과 들을 푸르게 할 수 있었고 노랗게 익은 감귤을 바람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었다. 서귀포 남원읍 신흥리와 수망리 일대에 자리 잡은

‘OO농원’은 남원에서 처음 감귤 농사를 시작했을 만큼 역사가 깊은 농장이다. 농장을 조성하며 감귤밭 주변과 길에도 삼나무가 심어졌고, 50년이 넘는 삼나무 숲은 OO농원에 없어서는 안 될 터줏대감 같은 존재가 되었다. 스튜디오 제라가 들어설 땅도 삼나무가 울타리가 된 키위밭이었다. 7~90년대 농장은 마을 사람들의 주 수입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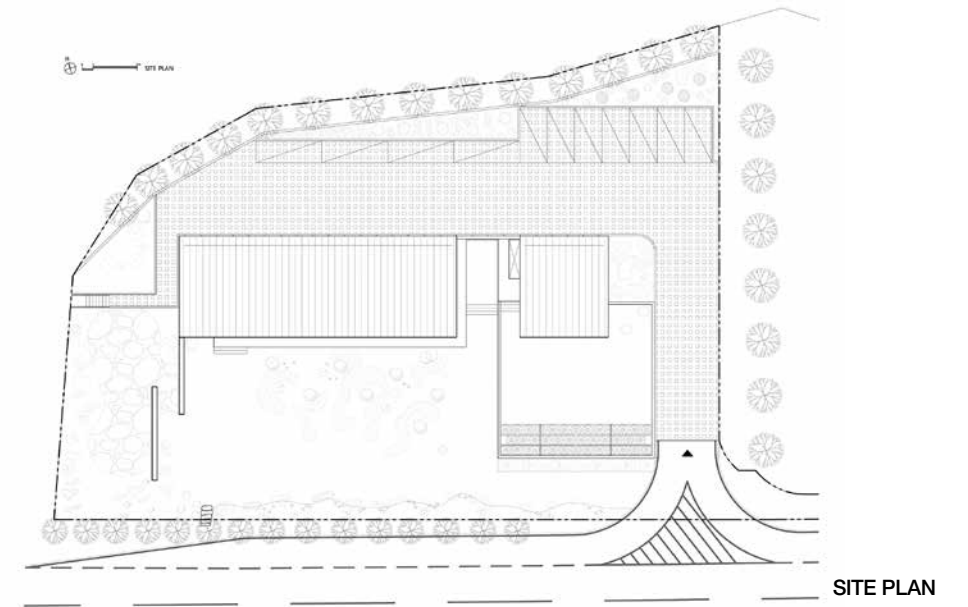
마을 사람들의 인력으로 농장을 꾸려갔으며, 농장의 수익은 다시 농장에 쓰여 동백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었다. 돌아가신 아버님으로부터 농장을 물려받은 의뢰인에게 있어 삼나무와 동백나무는 아버지와 다를 바 없는 존재였다. 지키고 보존하고 더 잘 가꾸어 나가는 것이 아버지를 기억하고 사랑하는 방법이기예, 이 장소의 주인공은 숲이어야 했다.

제라의 프로그램

OO농원의 아름다운 숲을 보존하면서, 즐기고 기억하는 것으로 사진만큼 좋은 방법이 또 있을까. 이미 신혼부부에게 야외촬영의 명소로 자리 잡은 농원의 동백 숲을 활용하여 사진 스튜디오를 계획한 의뢰인은 그래서 현명했다. 700평 남짓의 땅에 들어설 프로그램은 이렇다. 호리존이 구비된 실내스튜디오와 남, 여가 분리된 파우더룸, 피팅룸이 본동에 위치하고 별동은 운영사무실과 응접공간이 위치하게 된다. 외부에는 14m × 14m의 정방형 중정이 별동에 인접하여 위치하는데, 스몰웨딩이나 촬영, 행사를 대비한 공간이다. 건물의 후면은 방문객을 위한 주차공간이며, 전면의 정원은 사진 촬영을 위한 자연의 스튜디오 역할을 한다.

목재를 활용한 디자인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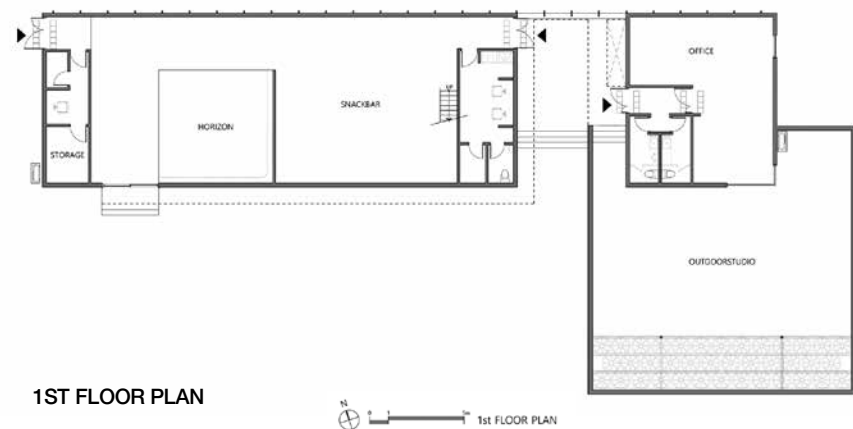
숲이 주인공이기 위해서 건축은 조연이기로 한다. 형태와 크기로 드러내는 존재감은 최소화하고 수평의 단순한 매스에 재료의 순수한 물성과 질감을 통해 장소의 성격을 드러내고자 했다. 외피에 수직으로 사용된 목재 사이딩은 숲에 대한 추상이자 은유이다. 목재를 제외한 외피에 적용된 미러스테인리스는 숲을 건축 안으로 끌어들여, 목재 사이딩은 현실의 숲과 가상의 숲을 잇는 존재로 부각된다.





시간을 잇는 숲

숲은 사계절의 모습을 달리하며 시간을 잇는다. 계속 그대로인 것 같은 숲도 조금씩 성장하고 변화해 간다. 스튜디오의 목재 외피도 시간을 잇는 흔적을 드러내도록 의도되었는데 도포된 규화제는 목재의 내구성은 높이고 표면의 색을 시간에 따라 변화시켜 갈 것이다. 현재 준공 이후 1년이 경과했고 목재의 색은 은회색으로 변화하였음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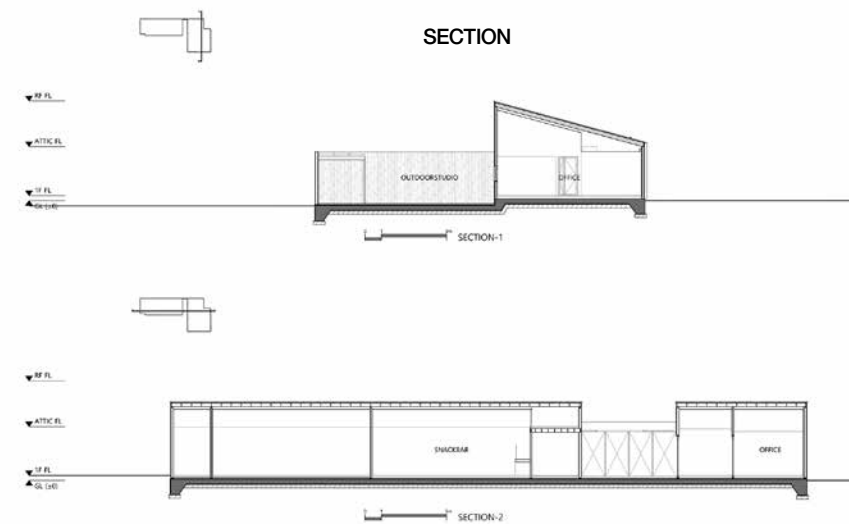


농장의 시작과 함께했던 마차의 바퀴는 행사나 스물웨딩의 단상으로 쓰일 데크 상부에 설치되는데, 빛이 좋은 날은 마차 바퀴의 그림자가 바닥을 구르고 벽을 타고 오르는 것을 볼 수 있다.



계절을 잇는 사진관

숲이 주인이 되는 스튜디오에서 새로 조성될 조경은 원래의 주인(삼나무, 동백나무 등)과 조화를 이루고 사계절에 모두 대응하도록 계획하였다. 스튜디오 전면의 메인 정원에는 여름 동백이라 불리는 노각나무가 중심을 잡고 있으며, 이른 봄을 위해 목련과 가막살나무, 여름을 감당할 파니콤, 원추리 등의 초화류를 배치하였다. 대지의 경계를 둘러싼 발담과 같은 현무암 돌담을 내부 마당의 영역을 구분하고 장소화 하는 데에 사용했으며, 이 돌담은 미러스테인리스에 반사되어 금속 표면에 시각적 질감을 만들고 확장된 공간감을 경험하게 한다.



사진제공 © 만민건축



기둥이 없는 9M 깊이를 확보하기 위해 공학목재 중 하나인 '글루램'을 적용했다.

KOREA WOOD DESIGN AWARDS

2025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계획 부문 수상작

대상 | 서문시장, 나무가 숨은 시장

대상 | 나무의 틈으로 채운 도시의 균형

특별상 | 전통건축 사선부재를 재해석한 템플스테이 계획안

최우수상 | 지역과 결구하는 청년 문화 기숙사

최우수상 | 시장길을 수놓다

우수상 | 플로팅 웰컴

우수상 | 수림재

우수상 | 산불, 그 이후의 이야기

우수상 | 자연 환기와 미기후를 고려한 하이브리드 목조온실 계획안

장려상 | 오송역 선하장터

장려상 | 어반 팀버 프레임

장려상 | 추억의 남천 유수폴장

장려상 | 서울역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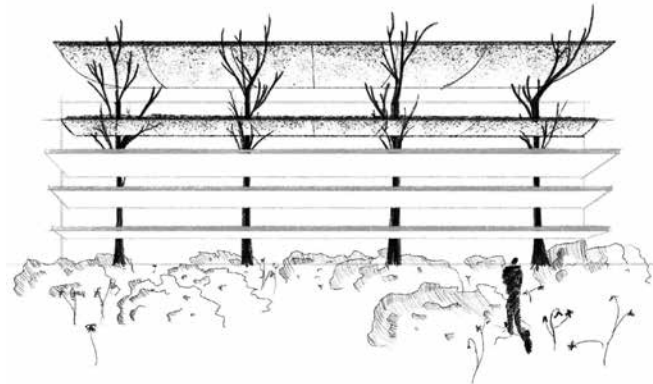
장려상 | 되살린 집, 덧입힌 삶

장려상 | 재·결구: 목조건축이 일상화된 도시로 돌아가기

서문시장, 나무가 숨은 시장

글루램 집성재의 RC구조 관입을 통한 개방된 보행가로 계획안

임원섭, 오도윤(홍익대학교 건축학과, 실내건축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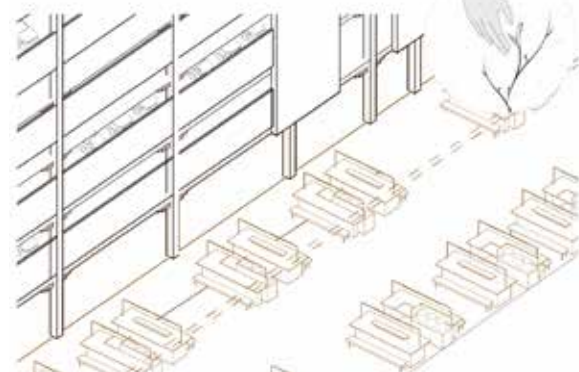
Phase 0. 4지구 화재로 단절된 서문시장

서문시장은 대구의 섬유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최대 전통시장으로, 도심 상권과 물류의 핵심축이다. 다섯 지구가 2층 공중보행로로 이어져 고층·고밀의 시장 구조를 이루며, 도시 일상과 관광을 동시에 견인한다. 상인·방문객·관광객이 교차하는 복합적 생활 무대를 형성해 왔지만, 중앙에 위치한 4지구가 화재로 소실되며 바리케이드가 세워졌다. 동시에 노후화된 아케이드와 좁은 통행로 때문에 기존 방식의 재건축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 본 프로젝트는 도시적·구조적·사회적 결구를 통해 단절된 서문시장을 되살리고자 한다. 동시에 새로운 건물을 짓기보다 기존 건물의 RC구조를 활용한 목구조 시스템을 통해, 서문시장의 새로운 보행 가로를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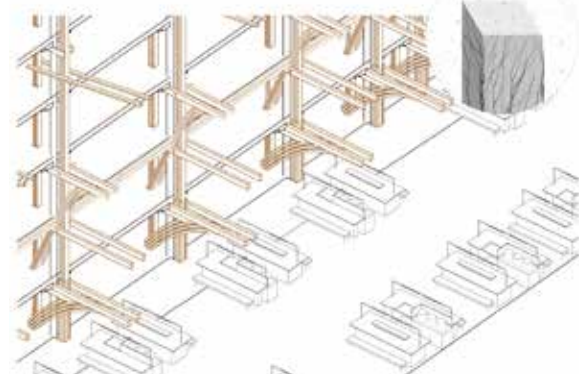
Phase 1. 자연과 시장의 결구

바리케이드 해체와 저층 개방을 통한 도시적 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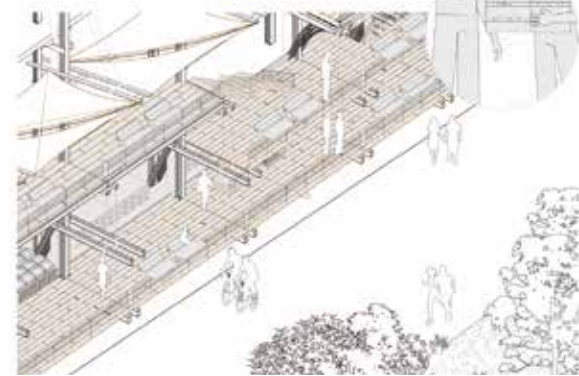
Phase 2. 철근 콘크리트와 목재의 결구

플랫슬래브 콘크리트 부재와 목구조 보강을 통한 구조적 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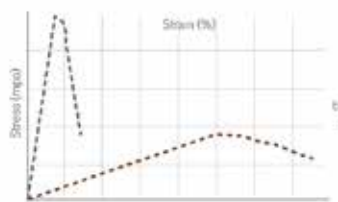


Phase 3. 노점상과 주민의 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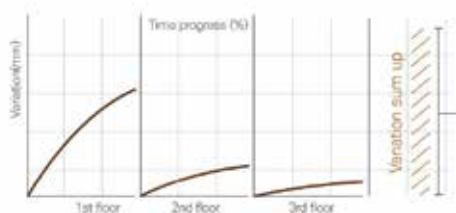
공중보행로와 수직 시장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결구



RC구조와 목구조의 독립적 거동 - 콘크리트 대비 목재 기둥의 시간 의존적 크리프 현상



재료 특성에 따른 응력-변형 거동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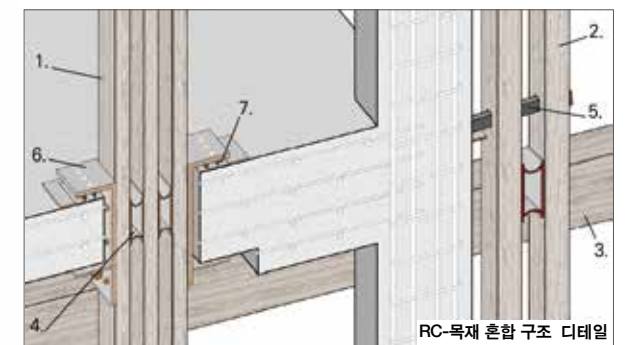


상대적 총변 변형량 누적 산출도

철근콘크리트는 높은 초기 강도와 낮은 변형률을 보이지만, 글루램 복합체는 비교적 낮은 강도에서 시작해 변형률이 크게 허용되며, 장기 하중시 점진적으로 변형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RC와 목구조가 독립적으로 거동할 경우, 목재 기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총변 변형이 누적되어 전체 높이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발생한다. 초기 시공 시 동일 레벨로 맞춰진 접합부도 장기 압축 크리프가 진행되면 단차가 발생하며, 하중 전달 방식과 마감 부위에 영향을 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W+RC구조 접합부에 점성 댐퍼를 설치하여 장기적인 압축 크리프를 흡수하도록 하였으며, 동시에 주차장 내 차량 이동으로 발생하는 반복 진동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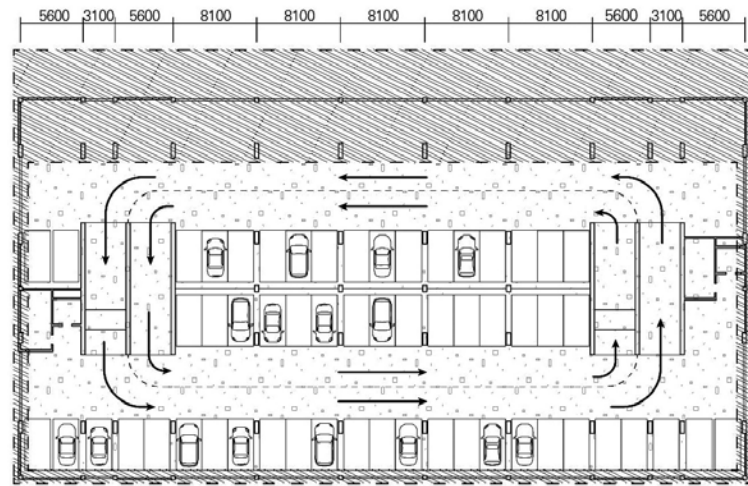
관입되는 글루램 복합체 시공 시점 장기적 압축 변형



RC-목재 혼합 구조 디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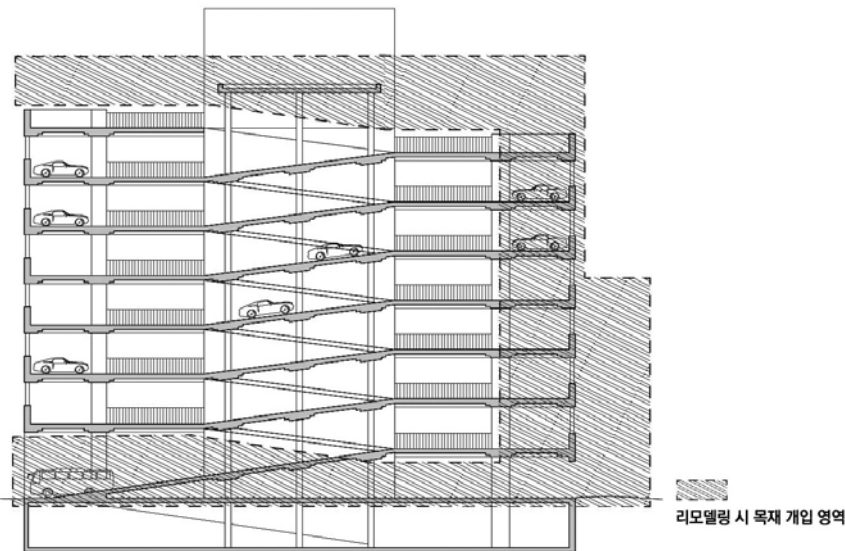
1. 300 x 600mm 글루램 집성목 기둥
2. 300 x 120mm 글루램 집성목 기둥
3. PSL 스트랜드 집성재 구조보
4. 철물브래킷(1번 집성목 기둥 접합용)
5. 외측기둥 고정 및 크리프 수평재
6. 점성 댐퍼 케이싱
7. 점성 댐퍼

주차타워의 순환형 동선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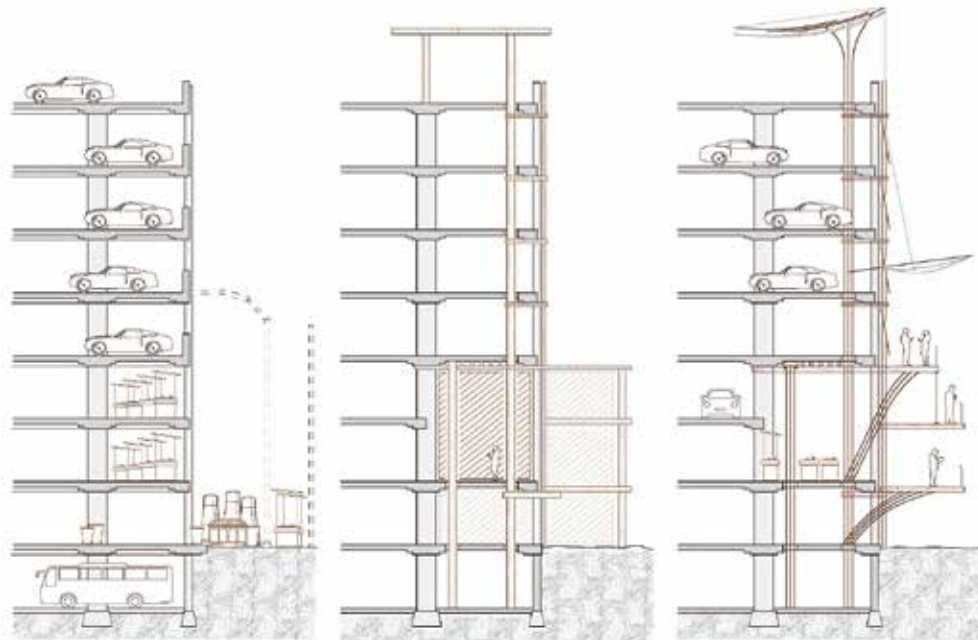
기존 주차장은 효율적이고 안전한 차량 흐름을 위해 일방통행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양측 램프를 통해 진출입이 구분된다. 차량은 동일한 방향으로 꼭대기 층까지 순환 이동이 가능하다. 이번 개입은 기존 동선을 유지하면서, 주차장 일부를 목구조 공용공간과 입면 파사드로 전환하고, 이를 수직적 시장과 공중보행로로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목구조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1970년도 저층고 RC 주차타워의 구조적 특징



해당 건물은 1976년에 완공된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2900mm의 낮은 천장고를 고려해 플랫슬래브 시스템이 적용되었으며, 기둥과 슬래브 접합부마다 지판이 배치되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차량은 스킵플로어 구조를 따라 일방통행으로 순환하며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본 설계는 건물 전면부에 독립 거동이 가능한 목구조를 시공하고, 이를 인접한 공지 공간으로 확장하여 자연과 시장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목조 캔틸레버 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RC구조 검토 및 결구 전략



Phase 1. 시장과 단절된 저층부 프로그램의 개선

해당 건물의 저층부는 노후화된 창고와 1층 상가로 사용되며, 상층부는 창고 및 차량의 순환동선으로 정면부 시장과 연계성이 약화된 상태다. 이로 인해 상당 부분이 활용되지 않는 잉여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다.

Phase 2. 관입되는 목구조 시스템의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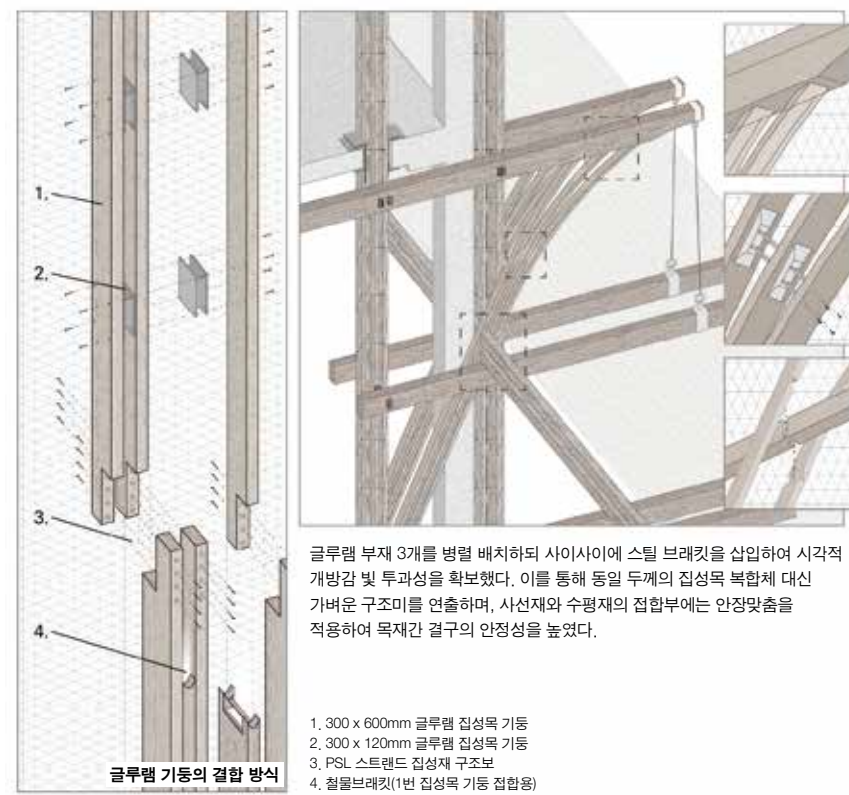
본 목재 구조물은 단일 기둥 열을 중심으로 천공 · 관입되어 RC구조와 독립적으로 하중을 전달받아 거동한다. 전면부에는 목조 보와 모듈형 데크를 결구해 공중보행로를 형성하였다. 기존 1층 전면부에 밀집된 노점상과 매대를 개방된 2층으로 재배치하여, 더 넓고 개방된 구역에서 상인과 소비자가 만나는 새로운 장터 환경을 구현하였다.

Phase 3. 입면에 빛을 들이는 목재 결구 디테일

앞쪽에 배치된 바리케이드를 열어 조성된 넓은 자연환경을 파노라마로 조망하고, 개방적인 보행 동선을 확보하기 위해 전면부에 보행로 측 기둥 대신 목재 캔틸레버 구조를 적용하였다. 또한, 두꺼운 GLM 복합체 대신 커넥터 플레이트들이 목재를 결구하는 슬림한 목재 구조를 도입하여, 수직적으로 구성된 시장 내부에 빛이 스며들도록 디자인하였다.



빛을 끌어들이기 위한 내측 목재 기둥 결구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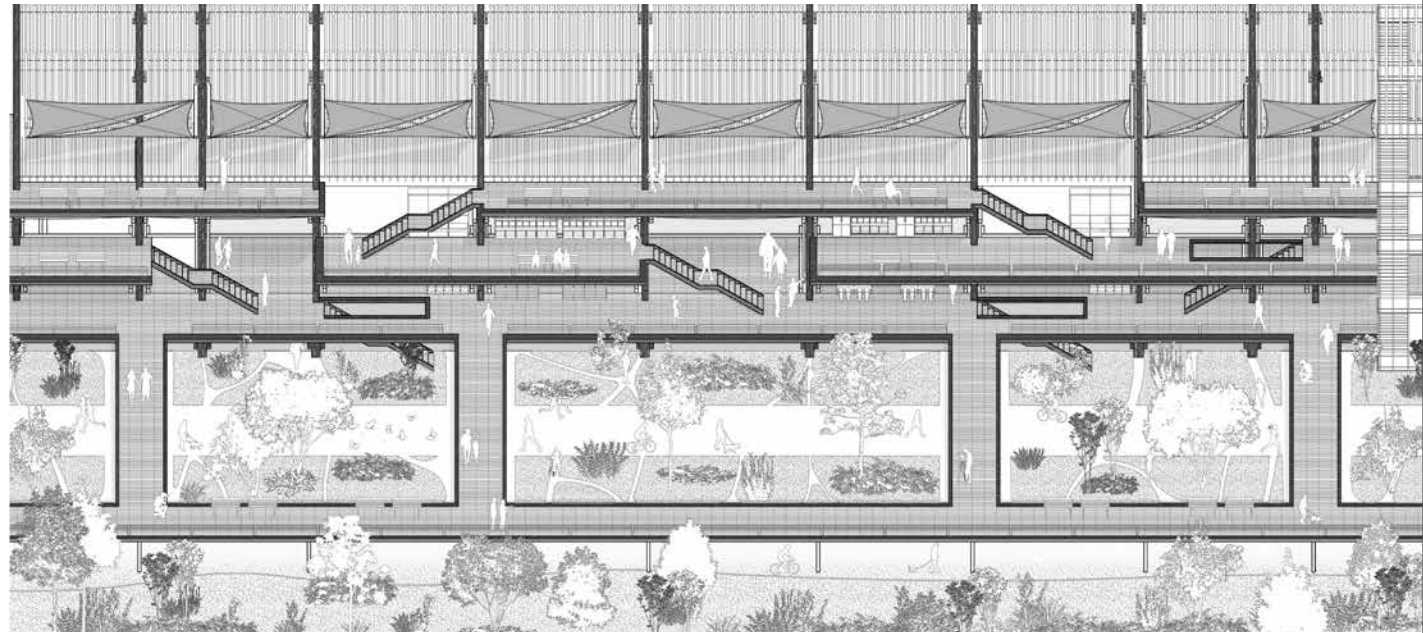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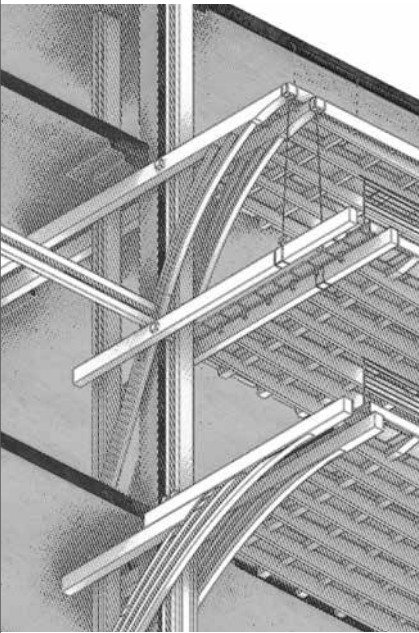


글루램 부재 3개를 병렬 배치하되 사이사이에 스틸 브래킷을 삽입하여 시각적 개방감 및 투과성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동일 두께의 집성목 복합체 대신 가벼운 구조미를 연출하며, 사선재와 수평재의 접합부에는 안장맞춤을 적용하여 목재간 결구의 안정성을 높였다.

계층적 모듈 슬라브 시스템



외부 데크 슬래브는 길이 8.1m 단위 길이를 가지는 모듈식으로 제작되어 공중 보행로를 형성한다. RC 구조에 스틸 브래킷으로 연결된 PSL 기둥 보를 구조체로 글루램 보 위에 적용하여 결구된다. 하부는 곡면 글루램이 배치되어 입면의 곡선을 만들고, 스테인리스 와이어 로프가 PSL 보 상 · 하부를 연결해 하중을 전달하며 구조 안정성과 개방감을 확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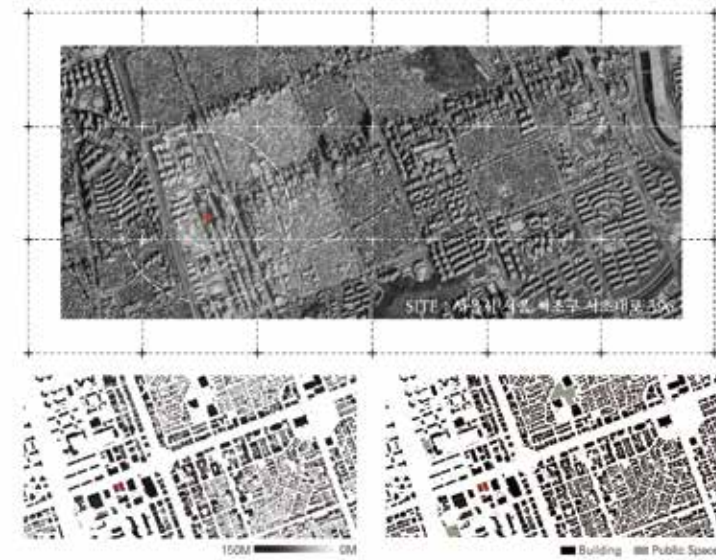


나무의 틈으로 채운 도시의 균형

고밀도 도심을 위한 목조 오피스 계획안

공예진(명지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고밀한 수직 도시를 향한 무분별한 팽창은 공공성을 지면에만 머물게 했고, 효율성에 밀린 저층부의 공공 공간은 축소되고 파편화되어 특정 구역에만 집중되었다. 그러나 도시는 여전히 사람과 사람을 잇는 결구의 장이다. 이제는 효율과 공공성이 공존하는 새로운 공간 구조가 필요하다. 결구를 단순한 연결이 아닌, 수직적 도시 구조 속에서 공공성과 일상을 직조하는 건축적 전략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에 수평적 공공성을 수직으로 확장한 새로운 오피스 유형을 제안한다.



Site Analysis _ 도시적 맥락

대상지는 강남역 인근, 고밀도의 상업지역과 상대적으로 안정된 일반주거지역이 맞닿는 경계에 위치한다. 이질적인 도시 성격이 충돌하는 접점에서, 본 프로젝트는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연결된 구조적 매개로서 결구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종단면

고밀 저층의 상업지역과 낮은 밀도의 주거지역 간 경계로 공간적 연속성이 부족하고, 단절을 일으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횡단면

Big Scale을 가진 빌딩들로 인해 이면에 위치한 Small Scale의 근생, 주거시설과 단절을 일으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Level 4. 효율적 회색성

효율성을 증시킨 전용 오피스로, 상층부의 접점에서 기능적 완결성을 실현한다.

Level 3. 혼합적 회색성

기능적 오피스에 보이드를 더해 녹색성과 회색성이 연결되는 공간을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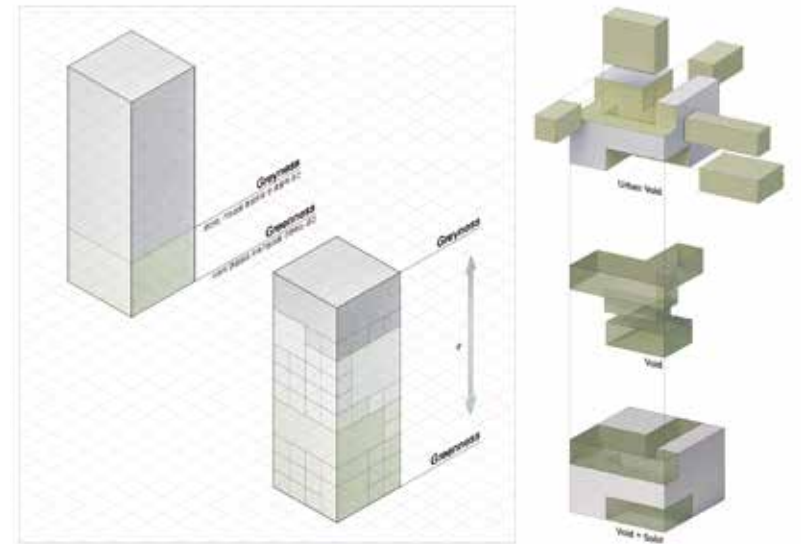
Level 2. 상호적 녹색성

시민과 오피스 이용자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보이드를 통해 공간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Level 1. 공공적 녹색성

도시와 직접 연결된 열린 공공 공간으로, 시민의 접근성과 참여를 강화한다.

Program _ 프로그램과 구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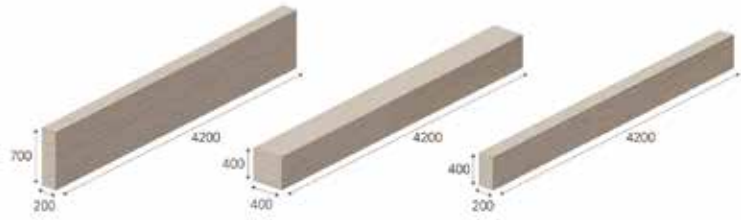


Urban Void _ 회색성과 녹색성

상업 중심의 회색성은 공공성을 담지 못한 채 기능적 효율성만을 강조하며 도시의 단절을 초래한다. 이에 저층부에 한정된 녹색성을 수직으로 확장해 고밀도의 도시 맥락을 공간의 다층적 결구로 전환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보이드는 수직적 녹색성과 공공성을 연결하는 구조적 매개체로 작동한다.



Material _ 나무, 오래된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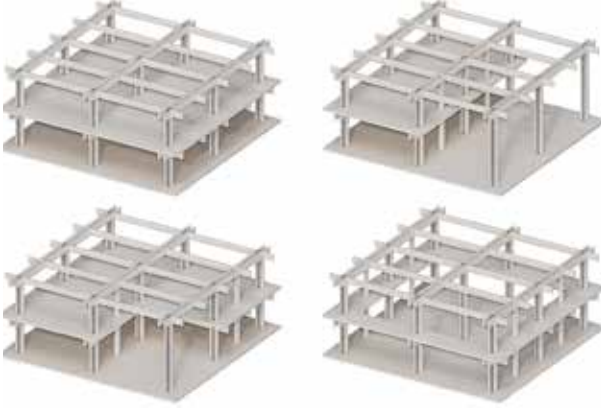
나무는 단순히 구조를 지탱하는 재료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다양한 규격의 목재들이 비워지고, 겹쳐지고, 쌓이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구조의 다양성은 단순한 구조적 역할을 넘어, 무한한 공간적 가능성과 해석의 여지를 품고 있다. 이러한 비움의 여백 위에 펼쳐지는 나무의 조합은 사람들의 다양한 행태와 움직임에 따라 채워지고 완성되는 '채움'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Component _ 비우고, 쌓고, 채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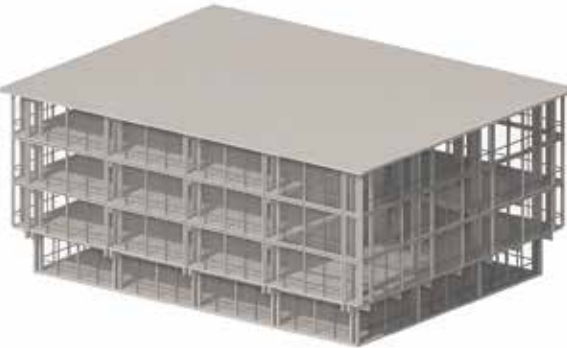


목재들은 거리를 두고 조합되며, 비워진 공간에 철골 구조가 추가되어 부재는 끊이지 않고 연속된다. 이는 플레이트와 앵커를 통해 결합되어 목재의 유연성과 철재의 강도를 동시에 활용한다.

Combination _ 기둥 배열의 패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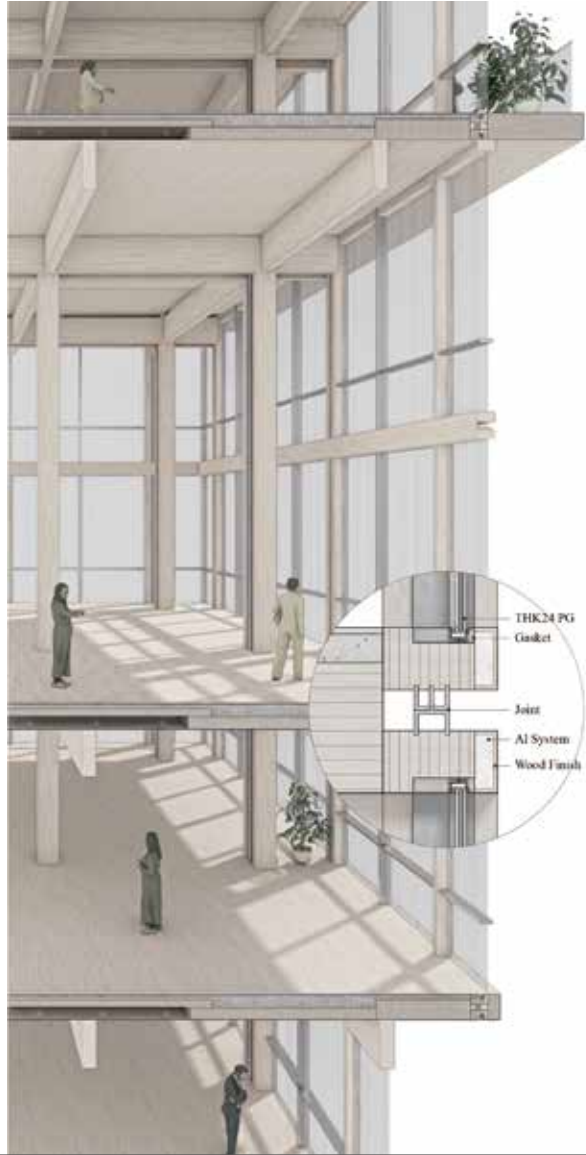


System _ 구조에서 표현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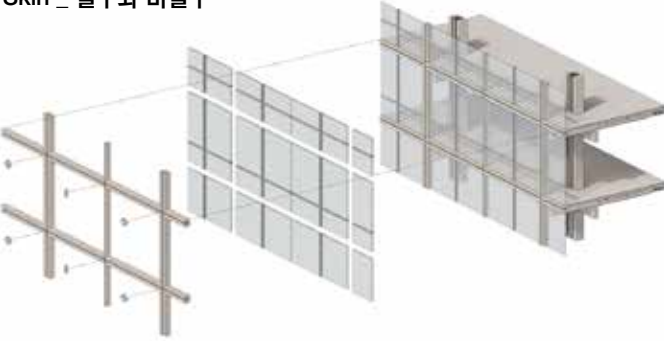


일반 목재 기둥을 추가하는 배치의 변주에 따라 보이드 공간이 형성되어 공간의 다양성과 녹색성을 상층부까지 확장하고,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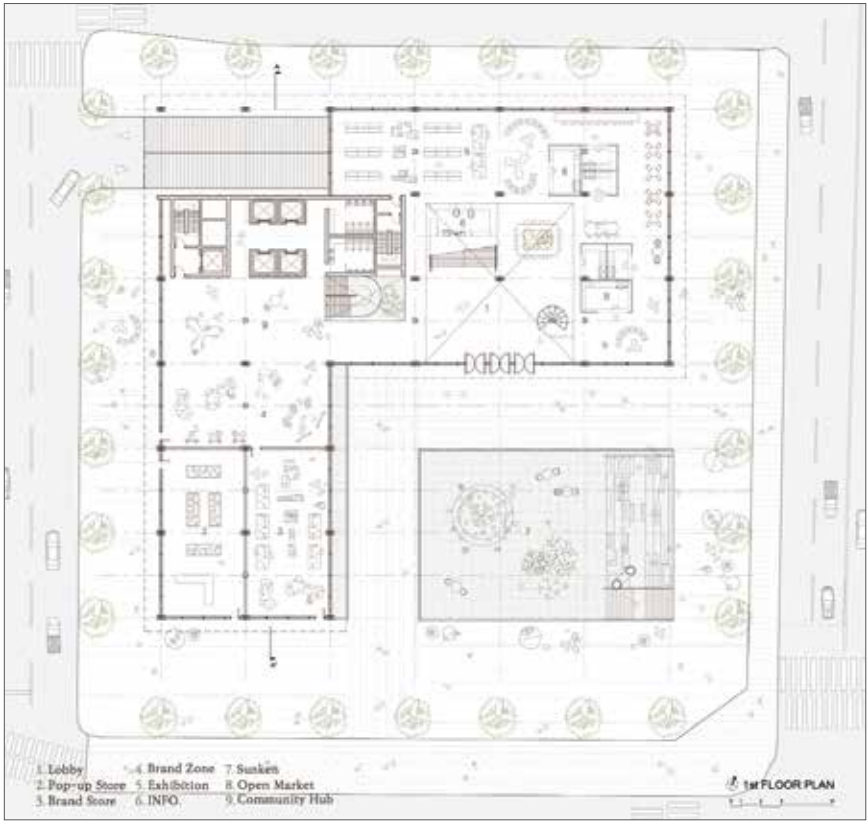
Section Detail _ 구축성의 구체화



Skin _ 결구와 비결구



외피는 창호와 구조 사이의 중간 장치로써, 구조적 안정성과 장식적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창호 유닛은 투명한 조인트를 통해 결구되어 비결구의 인상으로 분리된 외피를 결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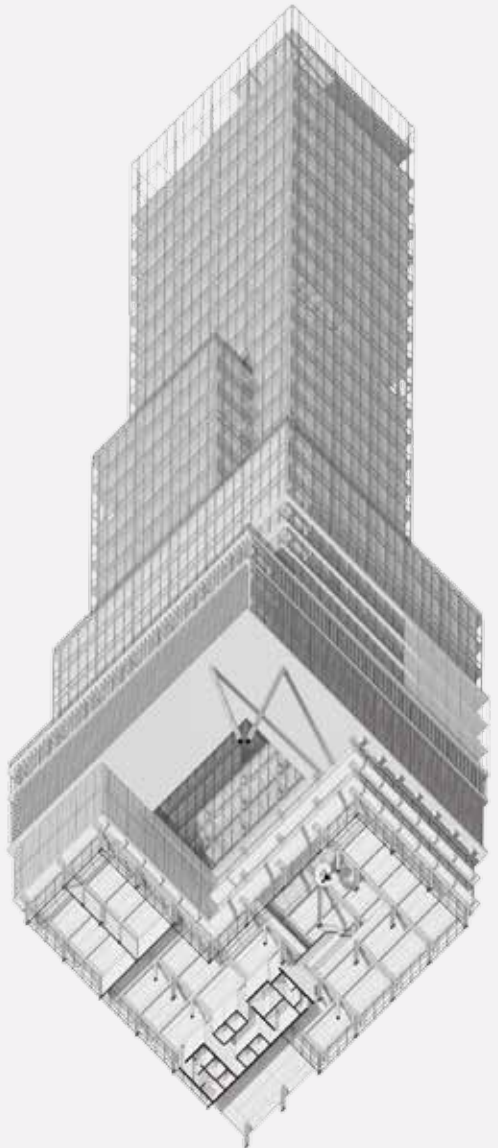
Low-rise Section _ 저층부 계획



1. Small Conf. 4. Storage 7. TPS/EPS
2. Lounge 5. Toilet
3. Vertical Garden 6. PS

Level 3 PLAN

Axonometric _ 부분과 전체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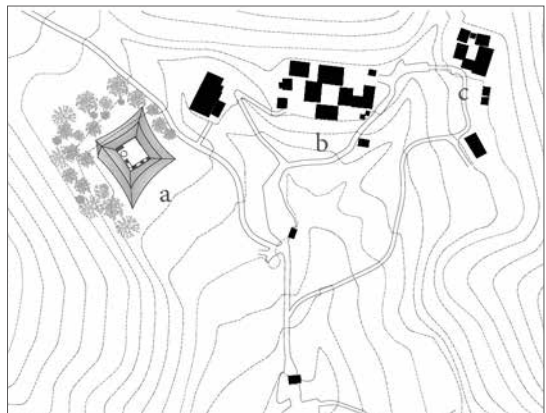
전통건축 사선 부재를 재해석한 템플스테이 계획안

: 지렛대 원리를 중심으로

이승범(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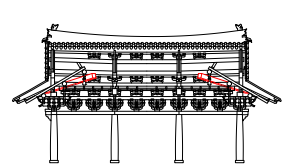
동아시아 전통 목조건축의 지붕구조 중, 추녀와 서까래는 구조와 의장의 측면에서 동아시아 건축을 대표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아 왔다. 그중에서도 추녀는 지렛대의 원리를 활용하여 처마를 돌출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추녀로 들어 올려진 선은 양곡과 안허리곡으로 형성되는 3차원의 곡선 형태로 전통 지붕의 형태를 구성하는 동시에 구조적 안정성과 조형적 아름다움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목조건축에서 가장 상징적인 부분이다. 전통 목조건축은 오랜 기간 계승됐으나, 20세기 이후 산업화와 경제 성장 속에서 체계화되지 못한 채 그 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원리를 분석하고

관계를 이론적으로 정리하거나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려는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에 본 계획안은 전통 목조건축의 추녀에 담긴 구조적 원리를 분석하고 이를 체계화하여, 현대 건축에 적용할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 목조건축 사례를 통해 지붕의 구조적 요소와 원리를 분석하고, 도출된 수치값과 형상 데이터를 파라메트릭 디자인 기법에 적용한다. 이를 기반으로 실행 가능한 형태의 프로토타입을 제안하고, 구조부재의 현대적 해석 가능성을 모색한다. 궁극적으로 전통 목조건축의 현대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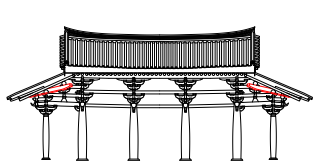


봉정사 부지와 영산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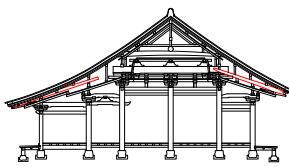
대상지는 지렛대 원리가 적용된 추녀가 잘 보존된 봉정사 대웅전이 위치한 곳으로, 지붕의 지렛대 형상을 구조적으로 구현해 볼 수 있는 지형적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경사 부지를 활용한 지붕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계획 대상으로 적합하다. 또한, 인접한 영산암의 중정(中庭) 공간과 배치 형식은 본 계획안의 템플스테이 공간 구성과 유사한 맥락을 지니고 있어, 전통건축의 공간 체계를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연계 가능성이 높다.



762
Bongjeongs Daeungjeon, Korea



681
Buseoksa Muryangsujeon, Korea



1164
Sanjusangendo, Japan

지렛대 구조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국의 봉정사 대웅전과 부석사 무량수전을 들 수 있다. 이들 건축물에서는 추녀가 지렛대 원리로 작용하여 처마를 외부로 길게 돌출시키는 구조적 역할을 수행한다. 일본의 산주산겐도에서도 이러한 원리가 서까래와 처마 구조에까지 적용되어 발전하였다.

Site Analysis



Site Ax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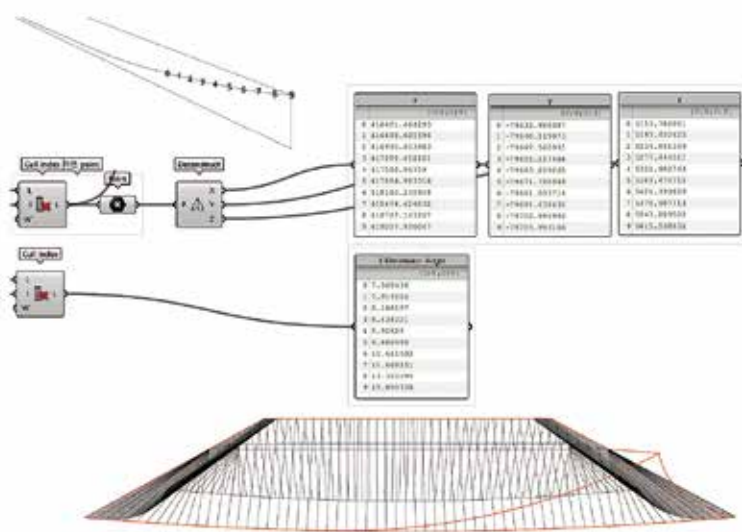


Courtyard of Yeongsanam

영산암은 봉정사 동쪽에 위치한 부속 암자로, 지형의 고저 차를 활용해 마당을 구성하였으며, 중정 공간의 개방성과 입체적인 공간 구성을 통해 전통건축 수법과 지형 활용의 조화를 잘 보여준다.



Quantification in Grasshop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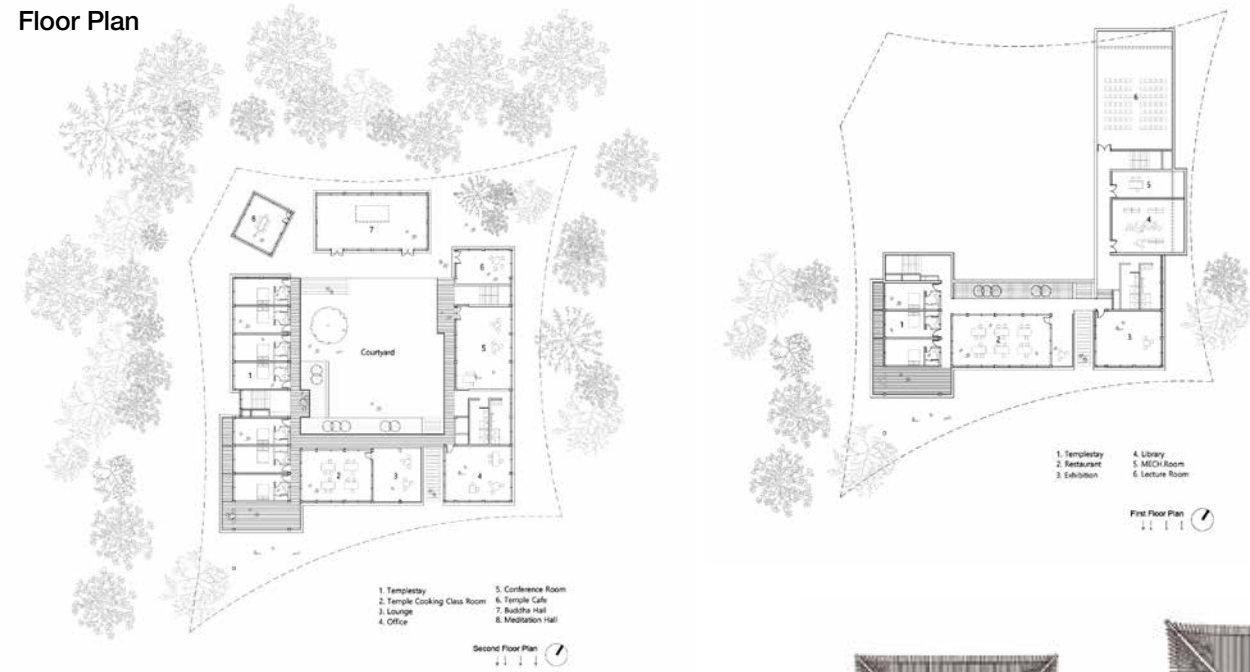
Grasshopper를 활용하여 곡률에 변형을 가하면서도, 양곡과 안허리곡의 전통적인 형태가 유지되도록 파라메트릭 모델을 구성하였다.

Transformation of Eave Curv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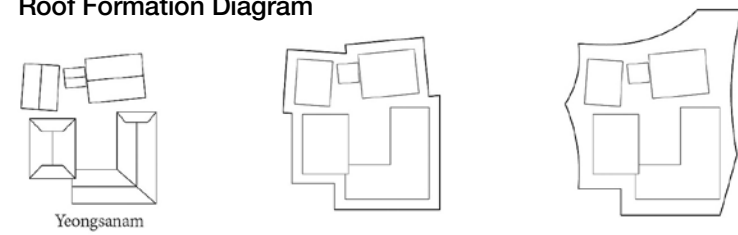
파라메트릭 곡선을 기반으로, 해당 곡률을 전통 목조건축의 구조 형식에 실제로 적용해 보는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Floo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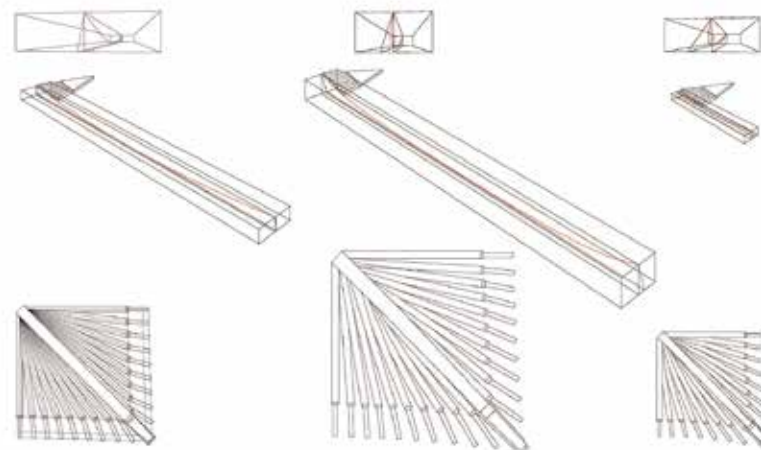


템플스테이는 도심에서 벗어나 심신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중정을 중심으로 한 배치계획을 적용하였다. 남서 측에는 수목과 조화를 이루는 객실을 배치하였으며, 남동 측에는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한 공간과 사무실을 두었다. 북측에는 법당과 명상 공간을 배치하여 중정과외의 시각적 공간적 연계를 강화하였다.

Roof Formation Dia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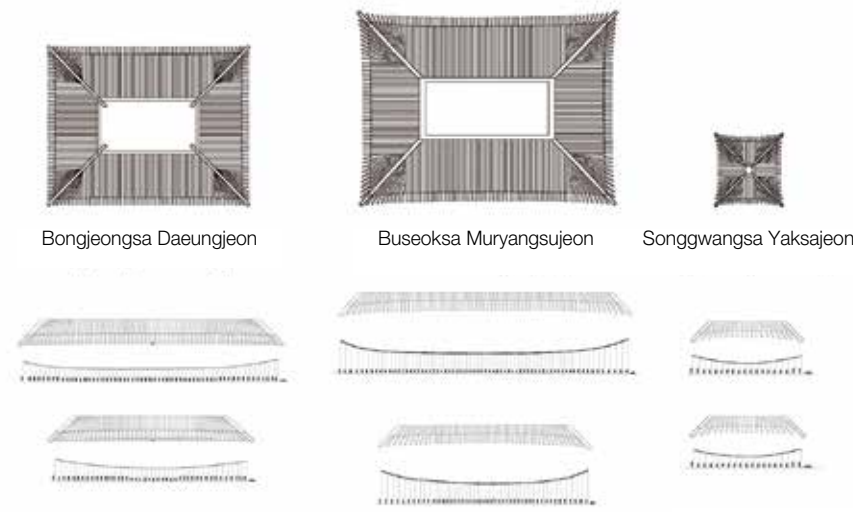
다섯 채의 건축물이 분리되어 있음에도 하나의 공간적 질서를 형성하고 있는 영산암의 배치를 참고하여, 각 건축물의 지붕을 하나의 지붕구조로 연결하는 방식을 고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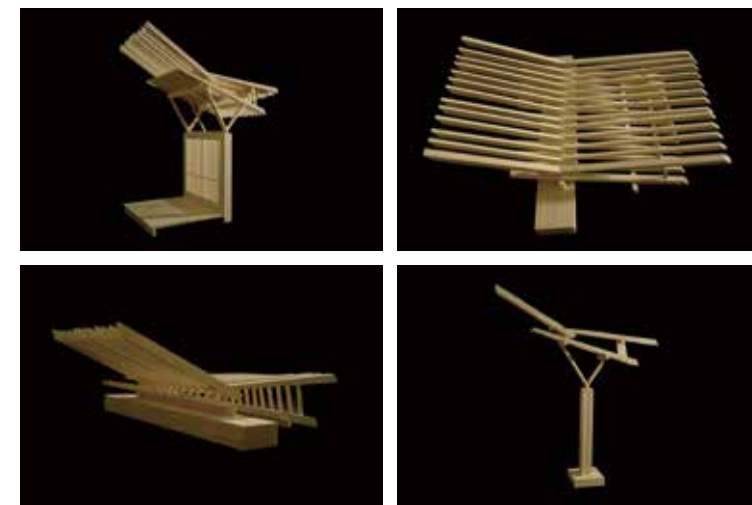
Bongjeongsae Daeungjeon Buseoksa Muryangsujeon Songgwangsa Yaksajeon

서까래 위치와 추녀 각도에 해당하는 좌푯값을 입력하여 곡선을 생성한 결과, 선자연의 서까래 수는 건물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 형성되는 지붕 곡선의 전체적인 형상은 유사한 곡률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치로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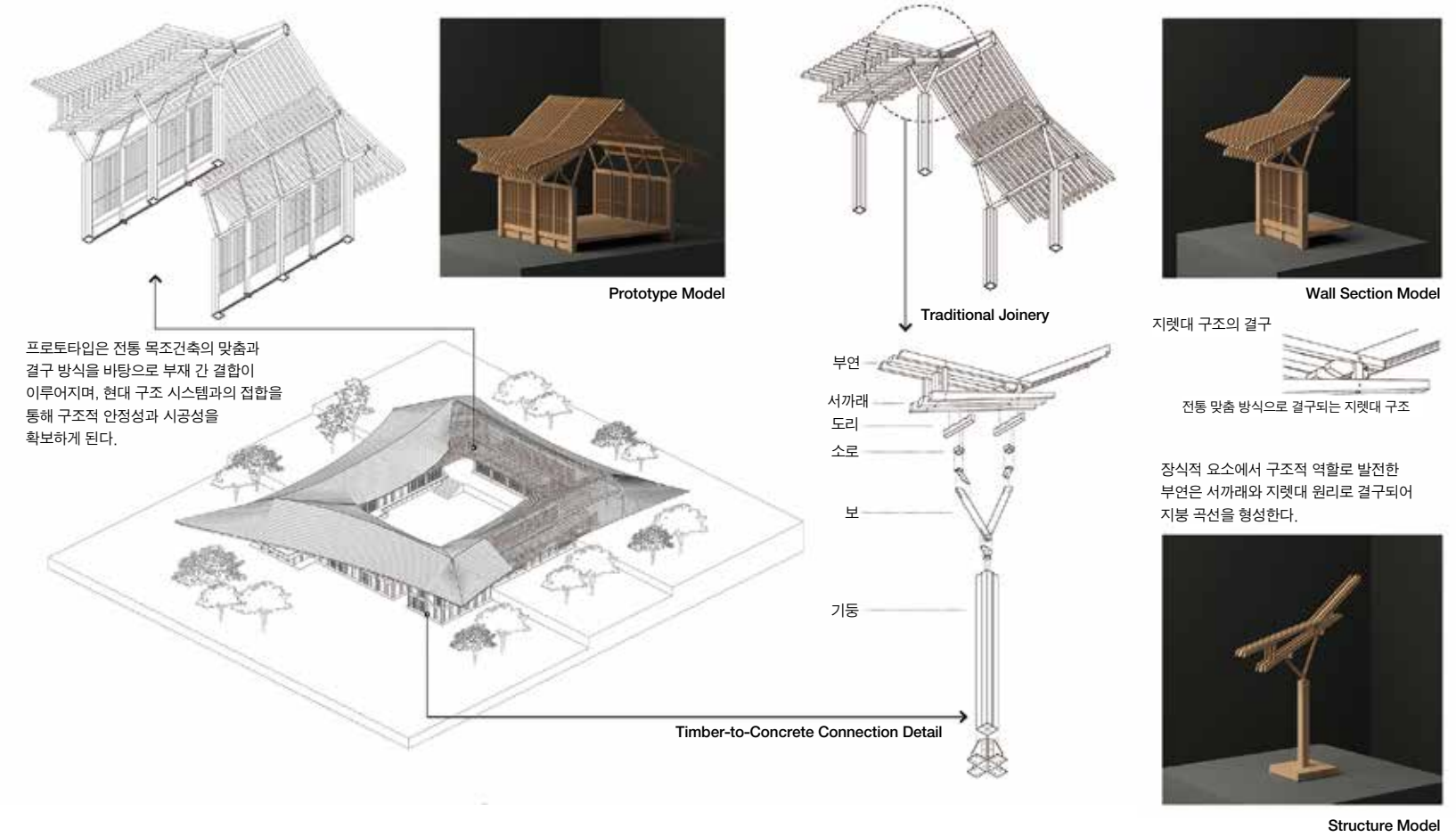
지형의 레벨 차를 고려해 계획된 진입로는, 진입 과정에서 시각적으로 입체적인 공간감을 느끼게 하며 중정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좌측에는 식당이 위치하며 우측에는 전시실과 강의실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공간적 연속성을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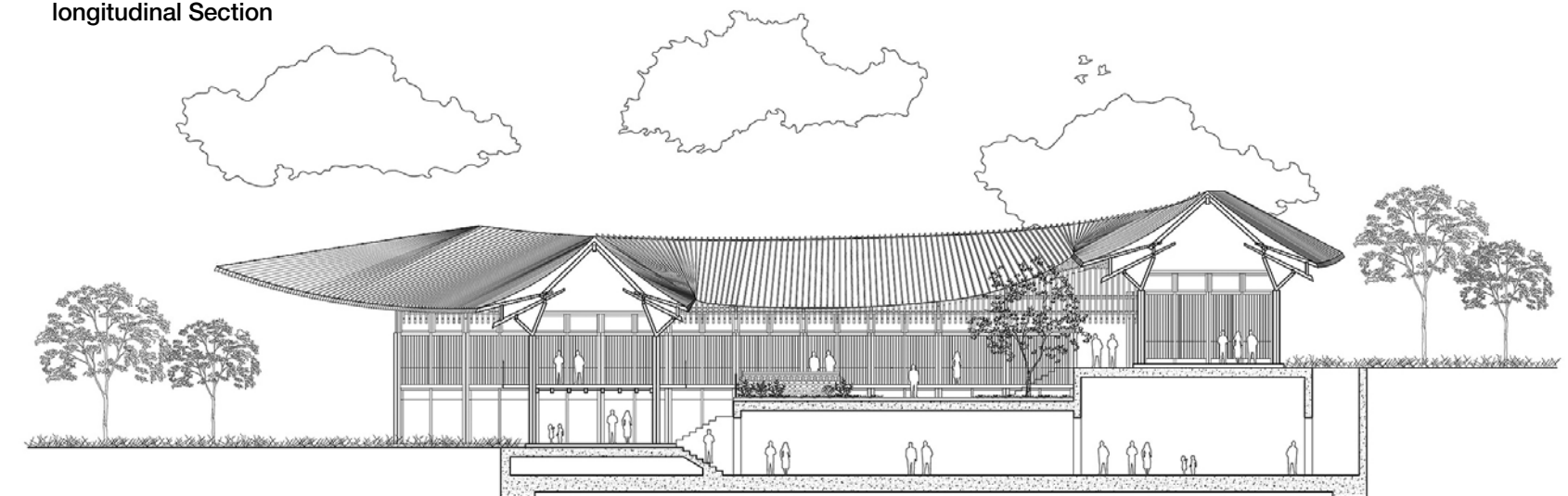
1칸, 3칸, 5칸 규모의 송광사 약사전, 봉정사 대웅전, 부석사 무량수전을 사례로 선정하여, 건축물의 규모에 따른 선자연 곡률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Prototype



longitudinal Section



지역과 결구하는 청년 문화 기숙사

:구 화양초등학교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권민수(송실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1983년 개교한 광진구의 화양초등학교는 1990년 이후 꾸준한 학생 수 감소로 2023년 초 폐교되었다. 저출생의 원인도 있지만, 인근 대학교의 학생들로 인한 상권 변화와 그에 따른 주거지역 재편이 원인이었다. 이에 따라 변화한 화양동의 여러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Site Analysis



대지의 특징

현재 폐교된 화양초등학교 부지는 도심 속 유휴부지로서 일대 주민들의 주차 공간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기존 초등학교 건물은 폐쇄된 상태이다. 또한, 주변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공간의 면적에서 나오는 공공성에 비해 다소 고립된 모습이다. 주변엔 세중대, 건국대가 위치하여 청년 인구의 거주 비율이 높아 인근에는 주거 환경에 비해 다소 높은 월세가 책정되어 있다.



길 - 대지 - 공원



청년 - 인근 주민



기존 구조 - 새로운 구조

이런 대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심 속의 골목과 공원을 이어주는 **‘도시적 결구’**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과 임대업을 하는 인근 주민을 이어주는 **‘사회적 결구’**

기존 콘크리트 건축물을 보존하고 새로운 구조가 결합하는 **‘구조적 결구’**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한 청년 문화 기숙사를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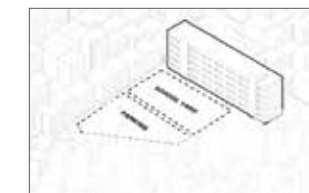
도시적 결구

폐교된 화양초등학교는 과거의 초등학교로서 작동하기 위한 대지 주변의 담장, 직사각형 편복도 시스템의 매스와 그 앞의 운동장이 그대로 남아 있다. 저출생 문제와 주변에 밀집된 대학교들의 영향으로 상권이 바뀐 현재 화양동의 상황에 맞게 변화가 필요하였고, 작은 건물들이 모여 골목을 형성하는 주변 콘텍스트에 순응하여 기존 초등학교 건물의 하부를 비워내고, 학교의 정문이었던 사거리와 부지 서쪽의 한아름 공원, 북쪽의 끊긴 도로를 연결하였다. 부지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담장을 허물어 주민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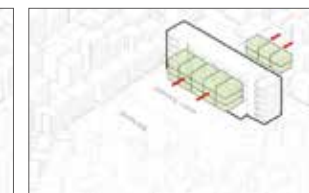


1F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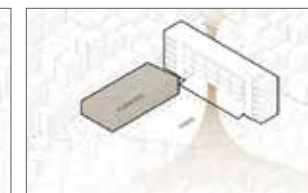
Design Pro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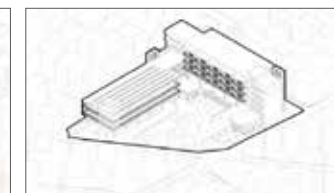
크게 주차장, 운동장, 학교 건물로 나누어져 있는 대지 컨디션



학교 건물에는 스펀에 맞는 주거 모듈을 증축, 청년 기숙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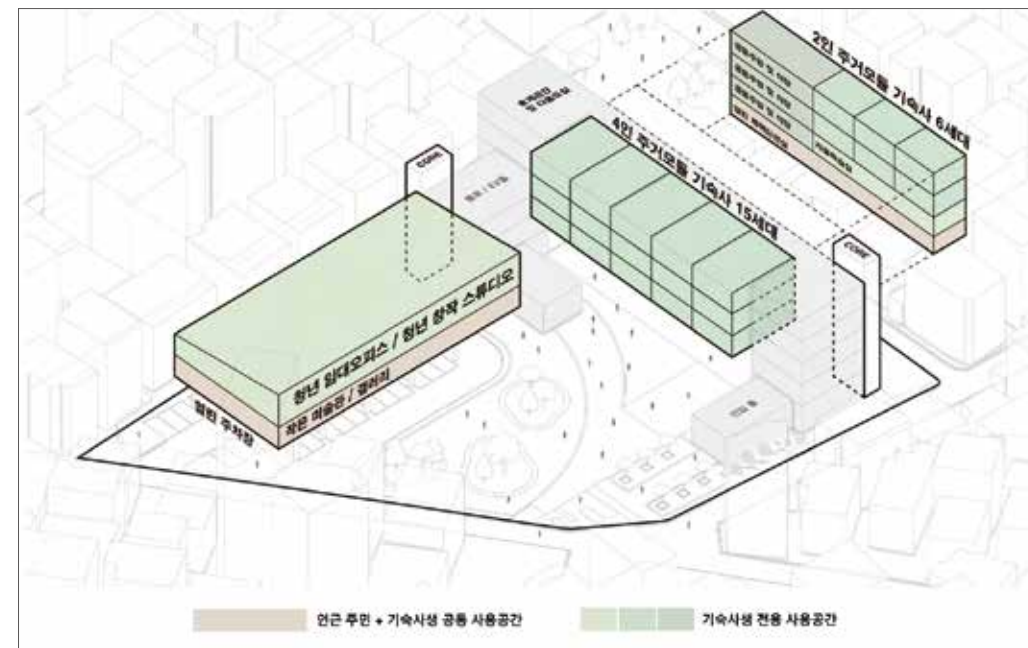
사거리가 가까운 쪽을 공원으로 주택가와 가까운 부분을 주민 공공시설로 학교 건물의 하부는 공공통로로



전체적인 구조 디테일과 공원을 조성하여 다채로운 도시공간 형성



Program Diagram



사회적 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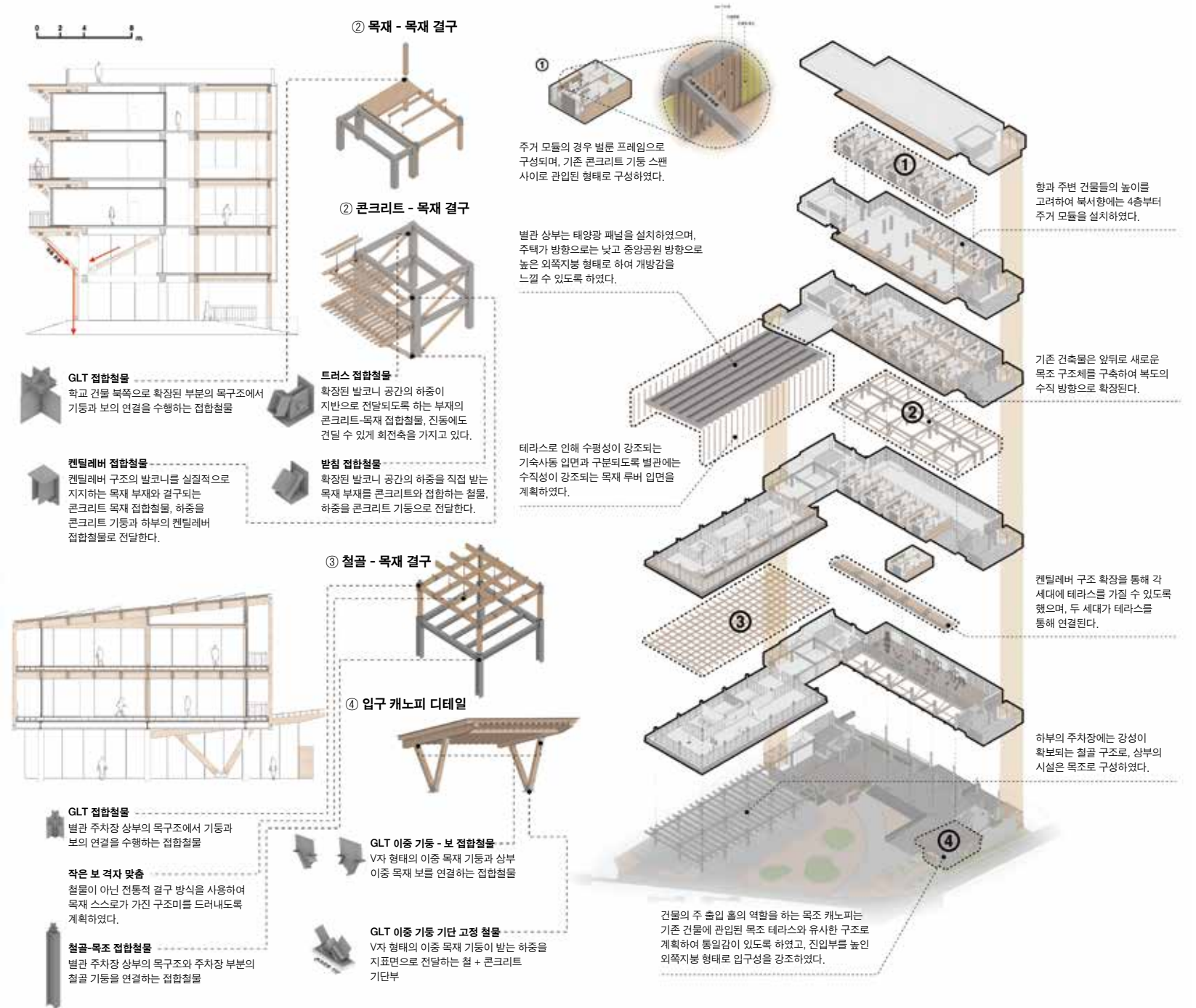
현재 화양동은 초등학교 인구의 감소, 청년 인구와 상권의 증가로 청년과 대학생 기숙사의 필요성이 증가했지만, 기숙사 건립에 대해 기존 주민들의 주차난 문제와 임대업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존재한다.

이를 절충하기 위하여 기존 운동장을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였으며, 한 곳으로 주차장을 마련하였다. 또한, 주차장은 필로티 구조로 처리 후 상부에 갤러리 등의 주민 문화시설과 상주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청년 임대 오피스와 창작 스튜디오를 계획하여 청년과 기존 주민들의 상생을 도모하였다.

초등학생들의 배움터였던 기존 화양초등학교 건물은 목조와 융합하여 청년들의 배움터이자 사회 진출을 위한 초석의 역할을 하게 된다.

Structure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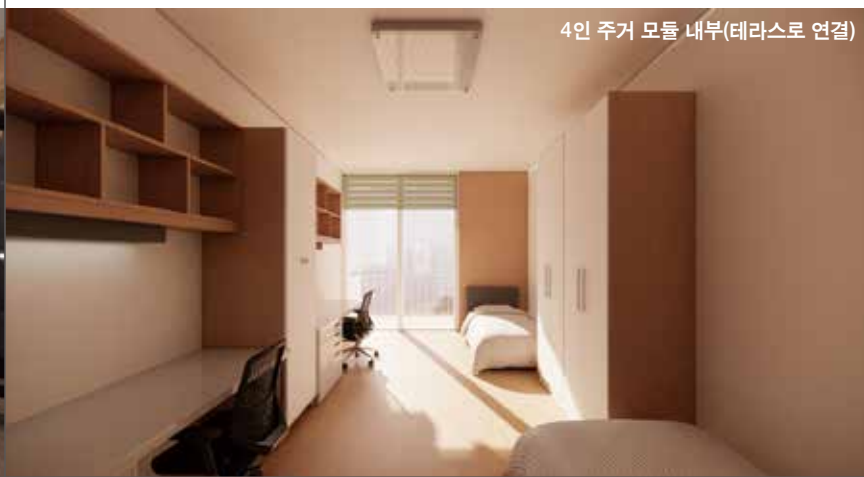
구조적 결구



기존 건물 하부 통로



주민과 기숙사생이 함께 사용하는 제력단련실



4인 주거 모듈 내부(테라스로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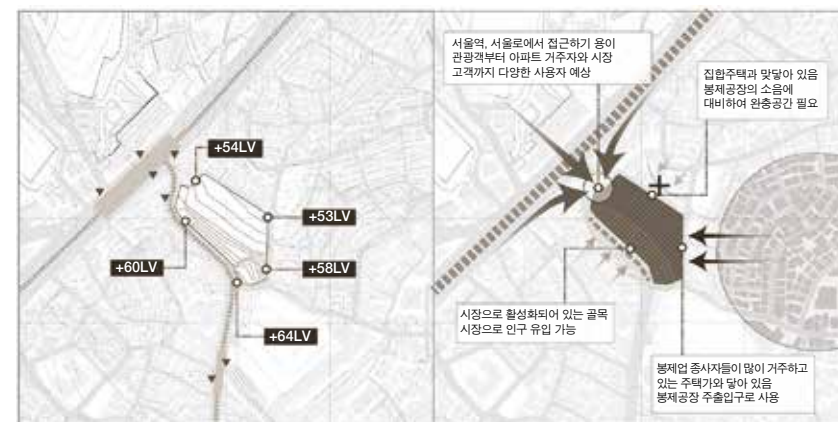


신축 별관 내부 갤러리 / 작은 미술관

시장길을 수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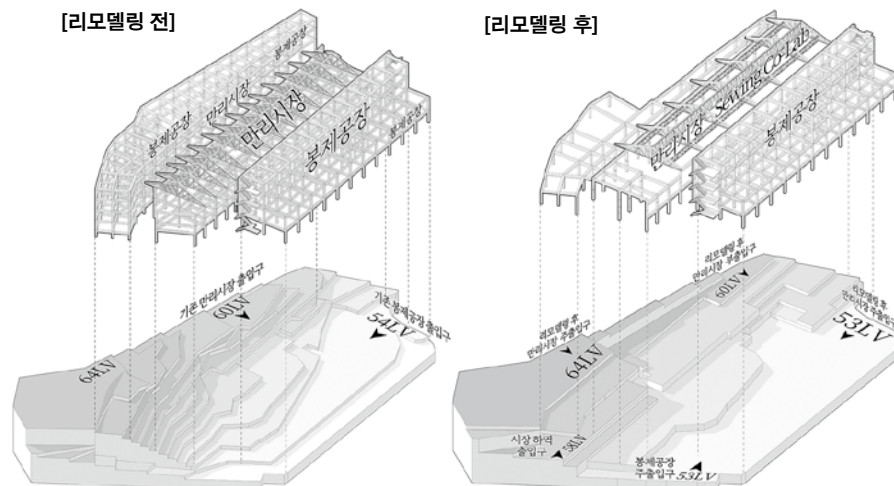
윤기민, 김효은, 김근혜(경북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Site Analysis



Remodeling

[리모델링 전]



[리모델링 후]

Concept [접목] 接木

1. 나무를 접붙임, 또는 그 나무.
2. 둘 이상의 다른 현상 따위를 알맞게 조화롭게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서로 다른 종의 식물 조직을 하나로 이어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접목'의 원리를 설계 개념으로 확장하였다. 봉제공장과 시장이라는 서로 다른 기능과 문화를 유기적으로 융합하여, 제작 · 전시 · 소비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다채로운 열린 문화공간을 구현하였다.



Program Diagram

봉제공장과 시장이 혼재되어 폐쇄적이었던 만리시장은 외부와의 접점이 부족하다. 시장과 봉제산업을 연결하며 함께 재생시키려는 방법으로 '런웨이'를 집속했다. 이 런웨이는 봉제 입문자들이 쇼를 개최하고, 시장 이용자들이 자연스럽게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조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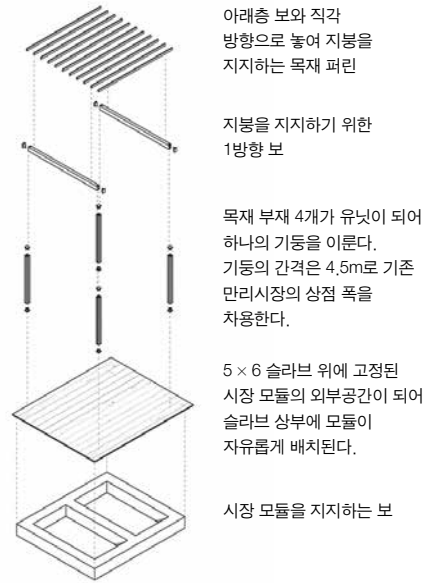
'Sewing Co-Lab'은 봉제 입문자를 양성하며
봉제 종사자와의 협업 및 교육, 작업 공간을 제공하는
패션메이커 스페이스다. 시장을 가늠하며 Sewing Co -Lab을
볼 수 있어 시장을 방문한 사람에게
봉제산업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높은 등고차를 극복하는 런웨이는
봉제공장과 시장, Sewing Co-Lab을
자연스럽게 잇는다. 시장과 봉제공장을 잇는
Thread Atrium'은 buffer 보이드 역할을
하며 이들의 연결을 강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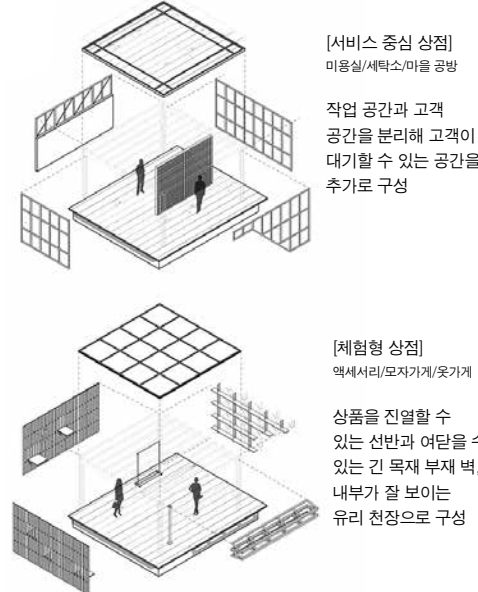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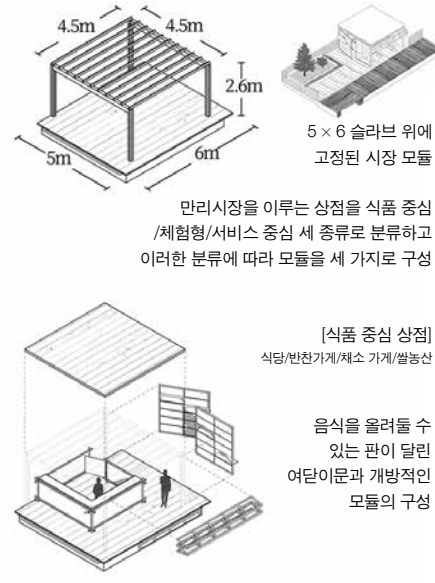


Module Dia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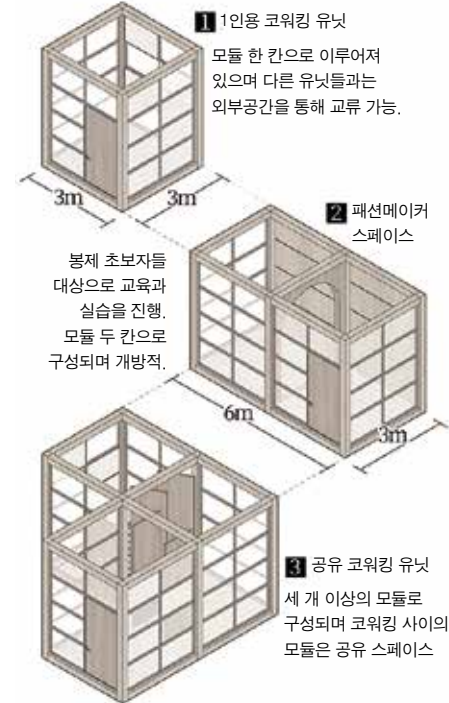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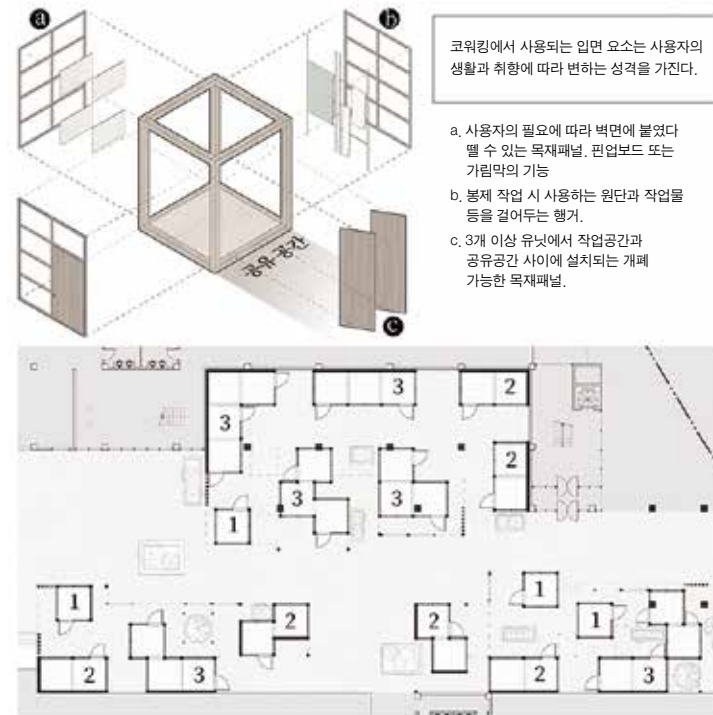
[시장 모듈 구조]



[시장 모듈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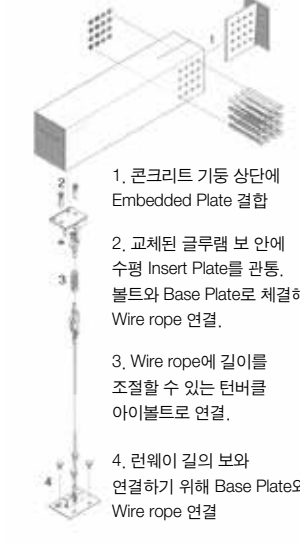


[코워킹 모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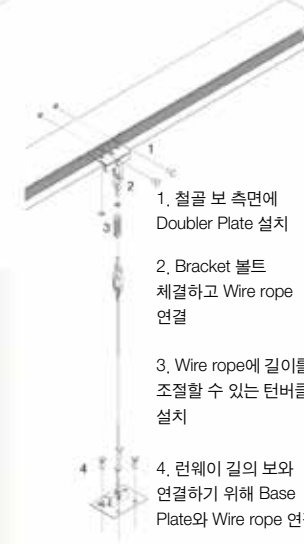
Structure System

[글루램 보에 런웨이 길 매달기]



런웨이 설치 방법

[철골 보에 런웨이 길 매달기]



봉제 공장과 시장을 잇는 지붕

[RC기둥과 지붕구조 연결]

1. RC 기둥 상부에 경사 브래킷을 앵커볼트로 체결
2. 경사 브래킷과 목재 지붕 관통볼트 적합
3. 두 지붕구조 사이에 목재 트러스를 L자 브래킷으로 연결해 하중 분산
4. Channel Plate로 목재 지붕간의 연결

[지붕구조 구성요소]

1. 목재 부재에 Embedded Plate를 볼트로 체결
2. T형 브래킷을 기로 부재 안에 넣고 세로 부재에 부착
3. 4개 유닛을 한 모듈로 구성하여 X형 Wire rope 브레이싱을 적용해 인장 보강

[지면과 지붕구조 연결하기]

1. 콘크리트 기초에 경사형 U 브래킷과 앵커볼트 설치
2. U 브래킷을 지붕구조 볼트로 결합

봉제 공장의 흡음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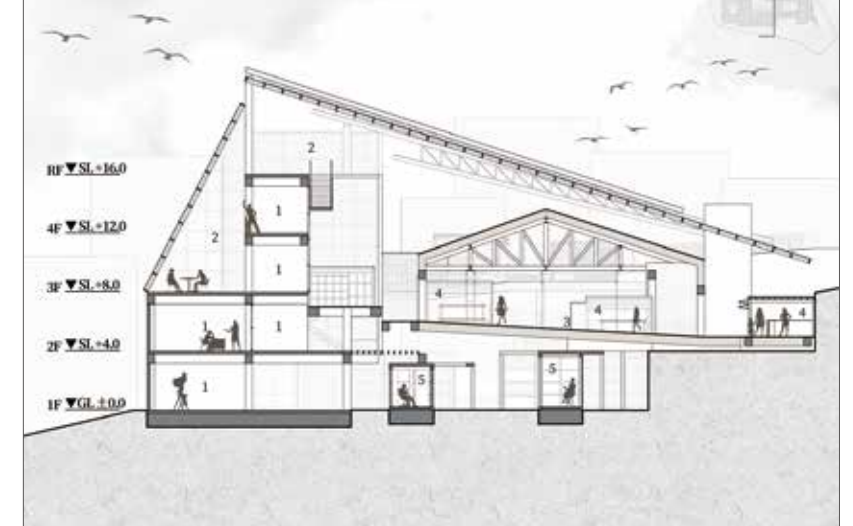
THK12 목재 합판 흡음재를 지지하는 역할

THK50 글라스울 난연 처리한 흡음재로 실질적으로 소음을 흡수하는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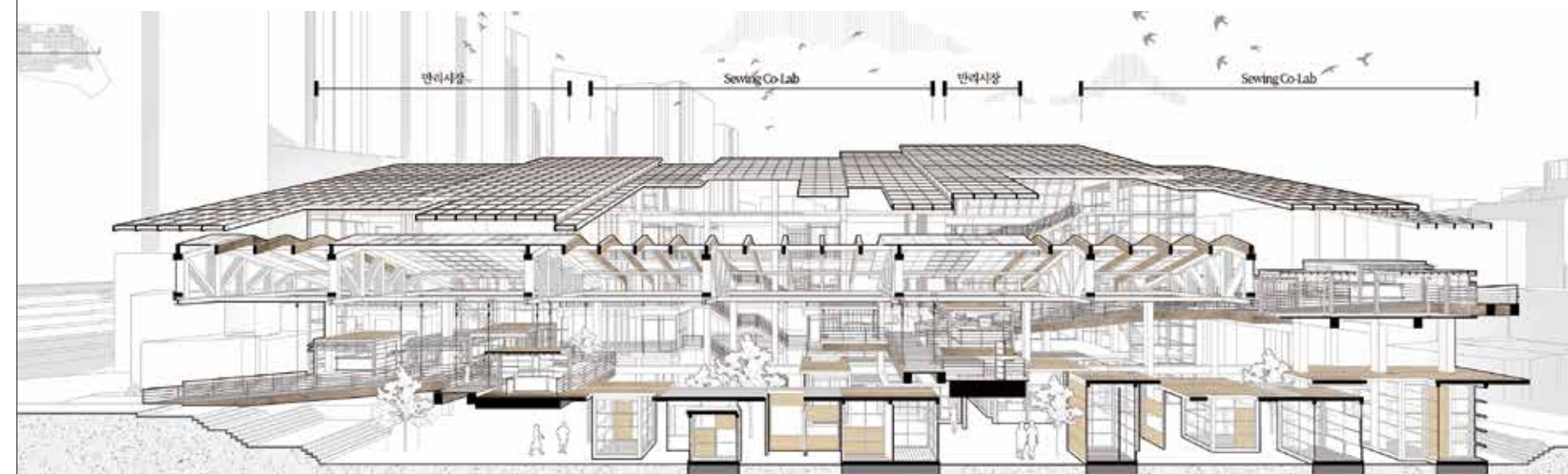
75mm 공기층 목재 브래킷으로 띄워 흡음, 성능을 위한 공명 길이 확보

THK10 타공합판 흡음 입구로 난연 MDF에 타공이 되어 있다. 봉제공장의 소음을 벽체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Section Plan



Perspective Section



플로팅 웰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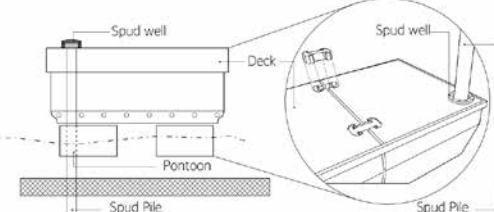
한강 위, 한국 목조건축으로 만든 올림픽 웰컴센터

임유진, 장범웅, 육은찬(청주대학교 건축학과)

203X년 우리의 건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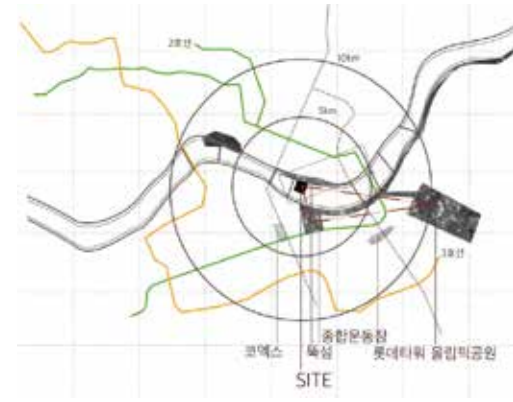
203X년, 대한민국은 올림픽 유치를 향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이 열린다면, 대회 기간 다양한 규모와 용도의 가설 건축물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방문객을 맞이하는 공간은 올림픽 웰컴센터이다. 이곳은 단순한 안내 기능을 넘어, 한국의 문화와 미를 세계에 각인시키는 상징적인 무대가 된다. 우리는 이 웰컴센터를 한국 건축의 아름다움과 현대의 정신을 담아낸 공간으로 제안한다. 가설 건축물이라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목재는 가장 합리적인 재료이다. 또한, 한국 전통건축에서 오랜 세월 사용되어 온 재료로, 한국적인 정서를 담아내기에도 적합하다. 우리 프로젝트는 한국의 미, 세계의 화합, 지속가능한 건축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동시에 담아내고자 한다.

목구조와 플로팅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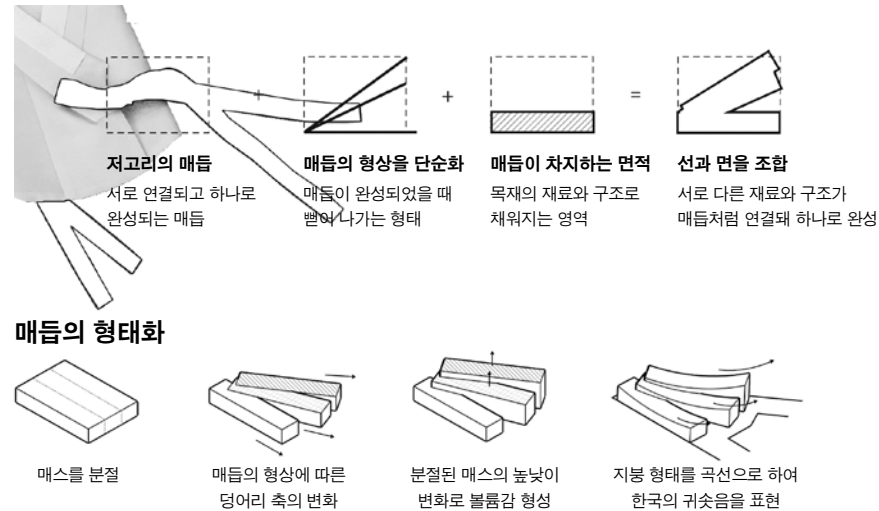
임시 건축물에 있어 '조립성과 해체 용이성, 경량성, 운반성'은 매우 중요한 조건이다. 이런 측면에서 목조건축은 가설 건축물에 가장 적합한 구조 시스템이다. 그중 목조의 경량성은 플로팅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목구조를 띄울 부유체는 경량성과 조립·해체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형 박스형 부력체를 모듈화 한 폰툰(pontoon) 방식을 적용하였다. 또한, 구조 하부에는 스퍼드 파일(spud pile)을 설치해 수직 지지와 위치 고정을 동시에 확보하였다.

도시의 여백, 한강



도시가 과밀할수록, 웰컴센터는 '한강 위'에 떠야 한다. 서울의 도심은 이미 과밀화되어 있고 새로운 시설을 위한 여유 부지를 찾기 어렵다. 하지만 서울의 대표적 수변인 한강은 아직 '도시의 여백'이다. 한강은 관광객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도시의 중심선이자 수상교통과 지하철이 만나는 접근 허브다. 또한, 수면 위라는 입지는 도심의 소음을 벗어나 시야를 열고 서울의 풍경을 가장 인상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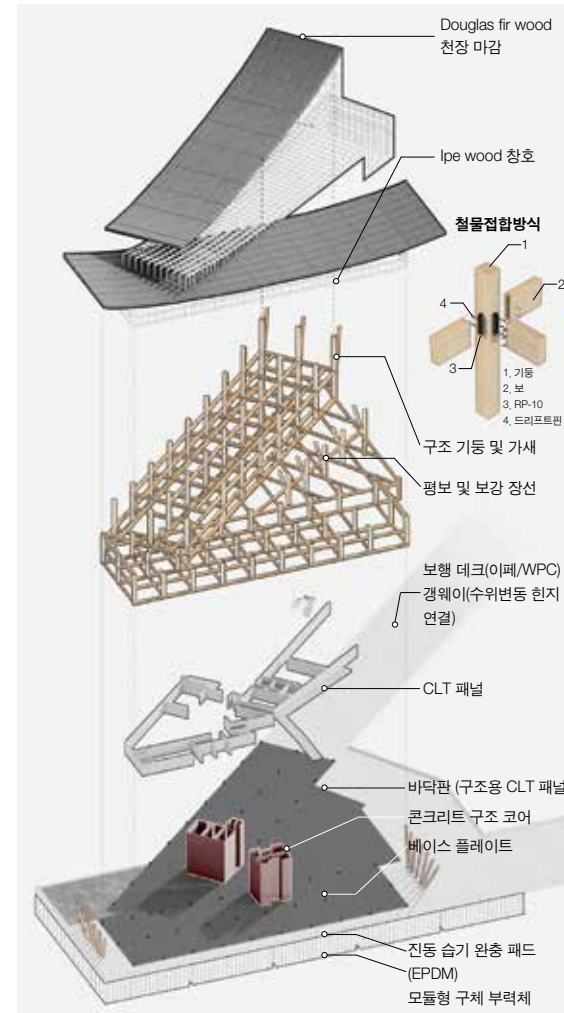
한국의 매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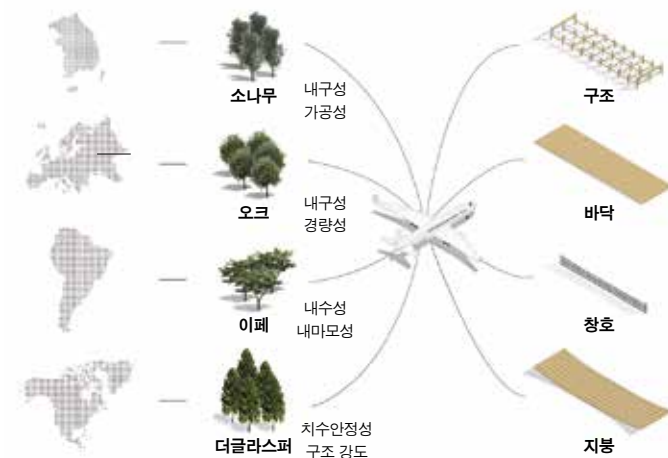
여백의 점은 시작이다



아이소메트릭 - 구조분해도



목재의 매듭화



다양한 국가와 인종이 모이는 화합의 장



우리는 이를 건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각 대륙을 대표하는 목재들을 사용하고, 서로 다른 목재들이 한 건축물 안에서 결구되어 하나의 완전체를 이루도록 계획하였다. 이는 곧 올림픽 정신인 "화합"을 상징한다.

1F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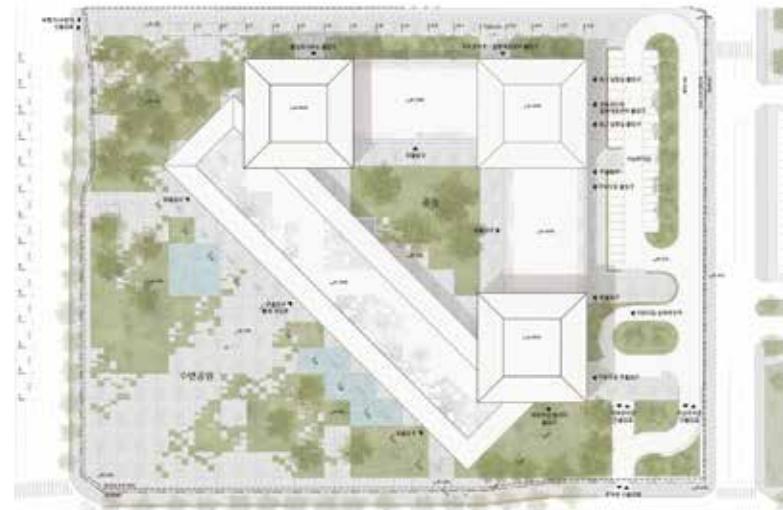
1. lobby
2. Public relations officer
3. Pop-up Store
4. Office
5. Warehouse
6. Broadcasting room
7. Briefing room
8. Office 2
9. 1F Grandstand
10. Reception



수림재

물과 숲의 만남의 공간

장수현, 박병순((주)아멜리에장, (주)터구조)



수림재 水林齋 수변공간과 함께하는 숲 캐노피 수림재는 RC와 목조를 조합한 정부청사의 주 출입구다.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공간으로 입구를 구성하여, 3개의 청사 건물을 찾아오는 이들을 반갑게 맞아주는 100미터 길이의 캐노피이다. 입구의 개념을 넘어, 다목적홀과 계단식 라운지 등 대형규모의 공용시설이 캐노피 하부에 있다. 3만 제곱미터의 청사 시설 중 주요 공용시설을 이곳에 집중해서 배치하여, 내외부를 드나드는 공용공간을 제공한다.

입구 공원의 나무 숲을 지나 캐노피로 들어오면, 50개의 원형 목재 기둥이 5~9미터의 높이의 실내외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외부 기둥 사이로는 얇은 수변 공간을 조성하여, 물과 나무의 조화를 이룬다. 높은 캐노피 하부의 수변공간은 시각적 효과뿐만 아니라, 기둥 사이로 통풍되는 기류의 온도를 낮추어 쾌적함을 유지한다. 수림재를 통해, 사무적인 일로 청사를 찾은 이들에게 쉼과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 자연과 연결된 만남의 공간을 선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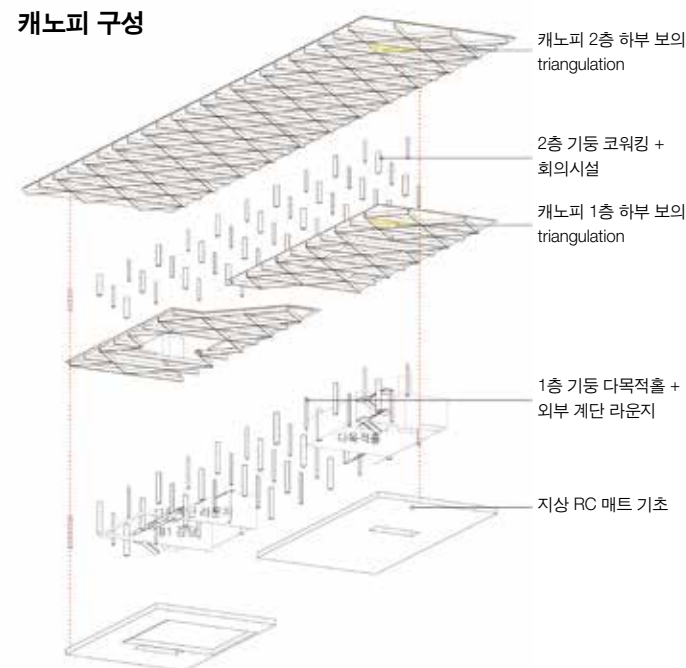


중정 단면도

기본 배치계획

1. 대지 안에 공원의 축과 정부청사 건물의 축으로 나눈다.
2. 수변공원과 중정으로 나뉘는 경계선에 입구 캐노피를 거대한 문과 같이 배치한다.
3. 세 개의 봉우리를 세 개의 업무시설 타워로 지정하고 그사이를 2층의 플랫폼으로 연결한다.
4. 수변공원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숲 캐노피는 청사를 방문하는 이들의 긴장감을 해소하고, 쉼터를 제공한다.

캐노피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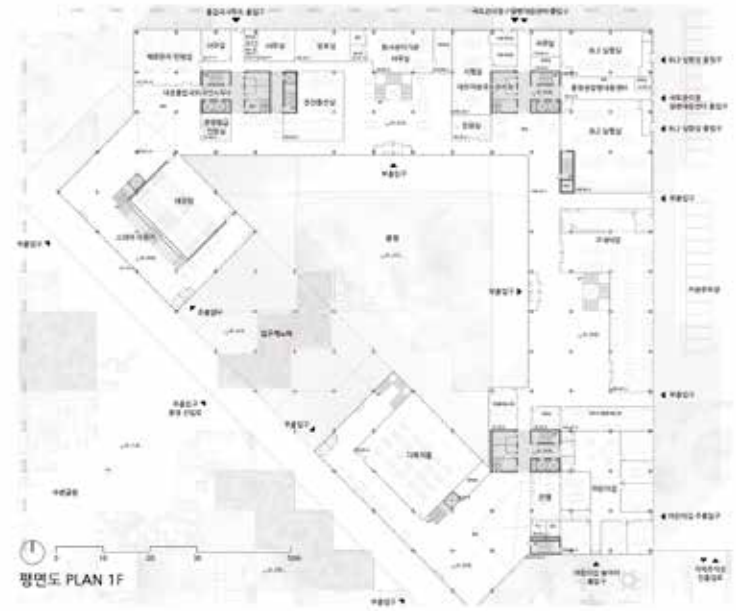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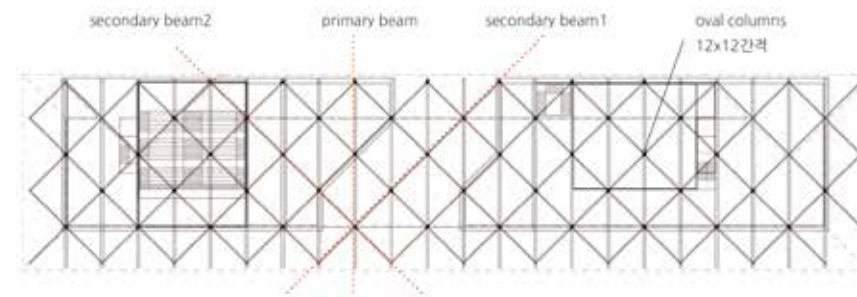


남측 입면도



캐노피 구조 (Plan)

CLT로 된 바닥 슬래브와 기둥/ 보는 자연과 어울리는 아늑한 색감을 제공하고, 나이가 96,000kg CO²를 줄여준다. 세 개의 축으로 형성된 보는, 일반 외플 구조와는 달리, 삼각형을 기반으로 한 트러스와 같은 효율성을 갖고 있어, 기둥 간의 거리를 더 넓게 배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목조 구조의 triangulation에 힘입어 지진이나 외부적인 임팩트에 더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산불, 그 이후의 이야기

군사체를 활용한 산불 복원 프로젝트

박정빈, 오선민, 오태양(충북대학교 건축학과)

대지 위치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야촌리 산 1
 용도 : 연구시설 및 상업시설
 구조 : 하이브리드 구조, 목구조
 건축면적 : 1,149.75m²
 연면적 : 1,894.21m²
 규모 : 지상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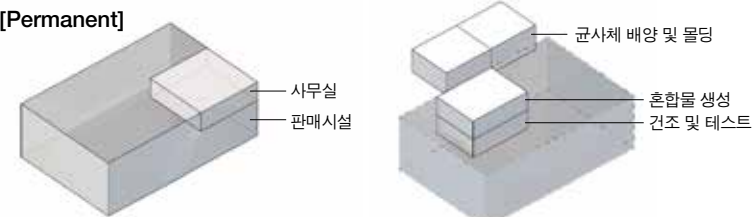
프로로그 : 산불, 그 이후의 이야기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불 피해지에서
 산불 이후, 생태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 강원 고성
 죽왕면에 시험지를 조성했다. 2000년 대형 산불
 이후 점점 복구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숲 사이
 작은 길을 경계로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난다.

현재, 대조적인 외관만큼 생태 여건과 경제적
 가치를 두고 자연 복원과 인공조림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회복하고자 연구시설과 판매 시설을 통해
 생태계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Program Zo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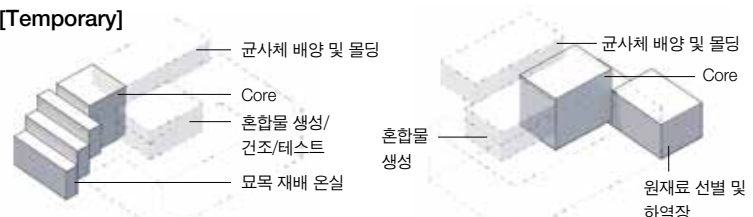
[Permanent]



1층에는 바이오 제품과 송이버섯을 판매하는
 로비, 3층에는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직원들의
 사무실이 위치한다.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개방적인 판매공간에
 일부 바이오 제조실이 삽입되고 군사체의
 배양공간은 환경조건에 따라 음지에 배치된다.

[Temporary]



군사체 배양실에서 일부 군사체를 어린 소나무
 묘목에 옮겨 심어 감염요를 제한다.

농업 폐기물 하역장에서 공정과정에 쓸 부산물을
 선별 후, 혼합물 생성과 군사체 배양까지 공정과정을
 거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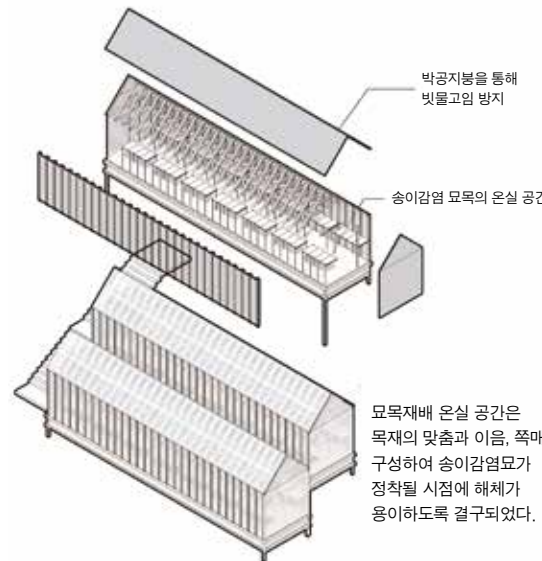
Structure Isometric



온실 공간과 송이감염도 화분이 놓일 선반을 일체화하여 해체가 용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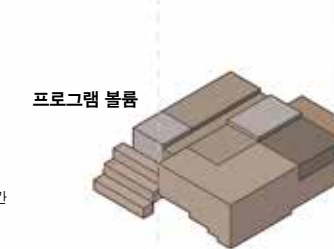
기밀성과 내부 묘목 환경의 쾌적성을 위해 바닥 공조시스템으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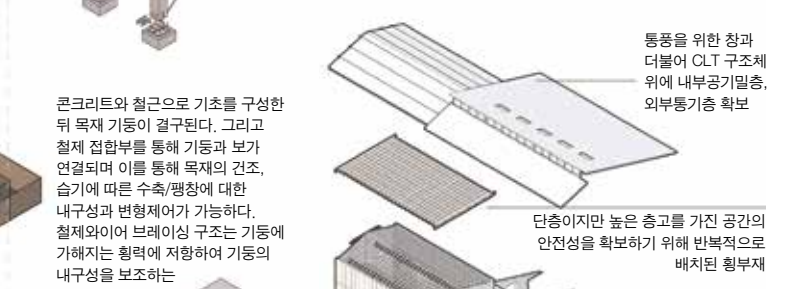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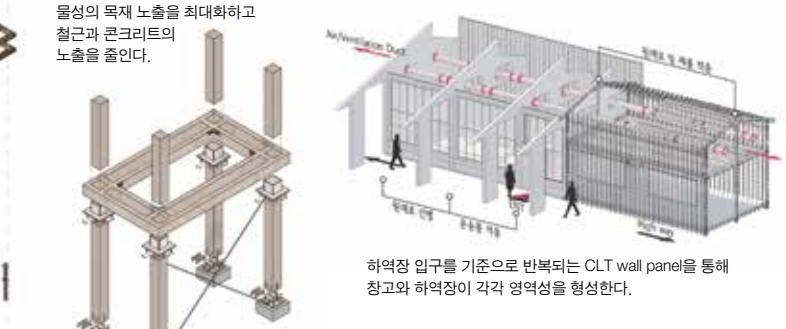
지붕의 하중을 분산시키는 부재가 기존 이중보에 그리드 형식을 띠게 철재판과 볼트 접합으로 결구된다.



복원된 자연 속에 위치한 건물의 태도는 인공물적인 대립보다는 주변환경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변환경과 유사한 물성의 목재 노출을 최대화하고 철근과 콘크리트의 노출을 줄인다.



인공조림지대는 소나무 단일수종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른 지반보다 연약하여 파일 기초를 활용하여 하중을 안정적으로 지지하게 된다.



단면 투시도



자연 환기와 미기후를 고려한 하이브리드 목조 온실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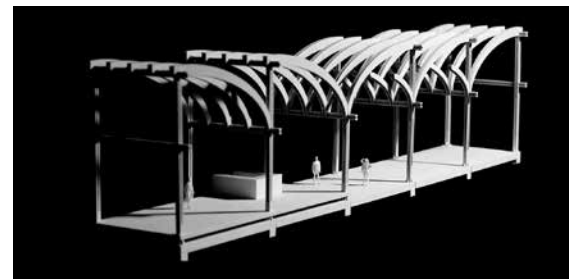
A Hybrid Timber Greenhouse Design Considering Natural Ventilation and Microclimate

조병준, 김형준(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학과 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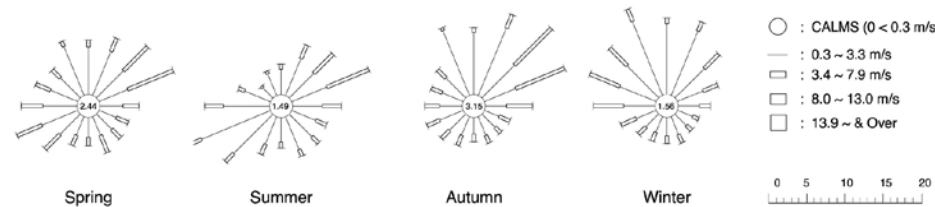
제주특별자치도 월평 / 강정 화훼단지 일원

제주 서귀포의 월평 · 강정 화훼단지는 온난한 해양성 기후와 화산지형에 기반한 핵심 원에 생산 거점이다. 이곳은 겨울 채소부터 아열대 작물까지 다양한 재배가 가능하며, 연동 온실과 돌담 같은 지역적 풍토가 독특한 경관을 형성한다. 단순한 생산지를 넘어, 기후변화 시대에 적응하는 제주 농업의 실험장이며, 지속가능한 원에 산업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거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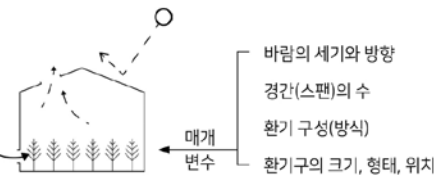
강정리 일대 바람 분석

북동풍 계열은 연중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반면에 남서풍 계열은 주로 봄과 여름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계절별로 다른 방향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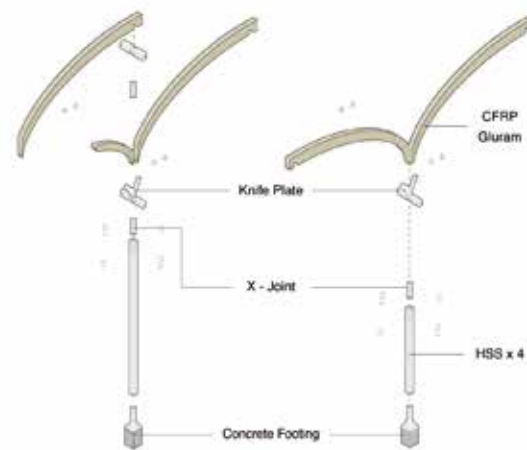


다연동 온실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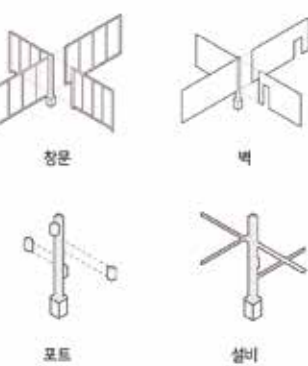
연구를 통해 온실 내 공기 흐름은 지붕 형태, 경간(스팬) 수, 환기창 위치, 작물 배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붕 형태나 경간 수의 변화는 일사량, 온도, 습도에 영향을 주어 작물의 성장과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환기창의 위치는 반드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결구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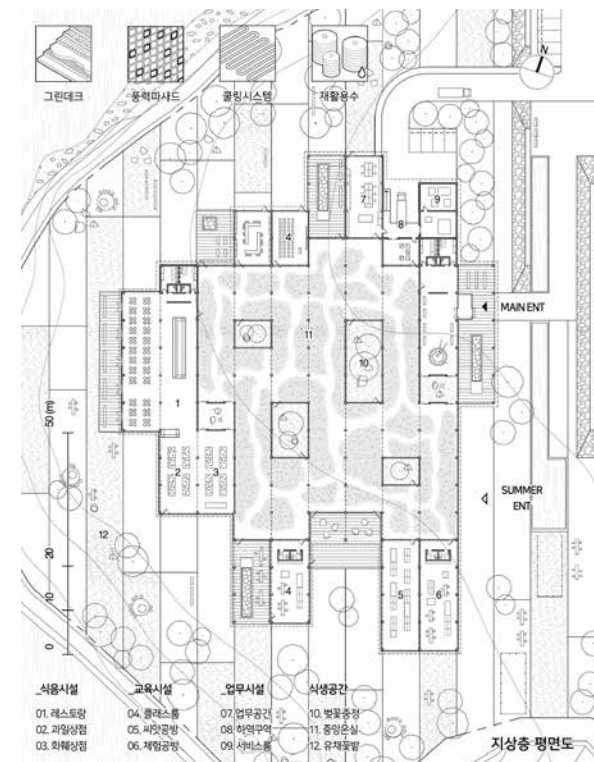
모듈러



온실의 확장성과 유연성을 위해 모듈러 형식을 채택하였다. 필요에 따라 공간을 분동하거나 연결할 수 있고, 프로그램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본 결구 방식은 독립기초와 구조강관X4, 조인트, 탄소섬유시트, 글루램을 결합하여 안정성과 강도를 확보한 경량·고강도 결구방식을 적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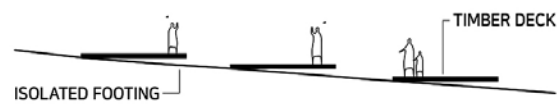
01. '사회'와의 결

온실이 위치하는 제주 화훼단지의 맥락을 고려하여 대규모의 돔 식물원이 아니라, 주변 마을 공동체가 일상적으로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다연동 온실을 휴먼스케일로 계획하였다. 또한, 온실 특성상 휴관일이 잦은 식물원 운영의 단점성을 보완하기 위해, 식물원 외곽에 분동형으로 F&B, 공방, 연구실, 교육실, 쉼터 등의 기능을 함께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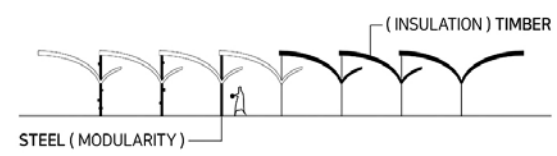
02. '자연'과의 결

본 온실은 자연 지형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가능한 한 독립기초와 이격 된 데크 구조를 적용하여 지반에의 간섭을 줄였다. 더불어 기존 식생을 살리고, 더 나아가 완만한 지형 흐름을 따르는 매스 배치를 통해 땅의 결을 존중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자연을 소모하는 건축이 아니라, 자연과 공존을 추구하는 건축적 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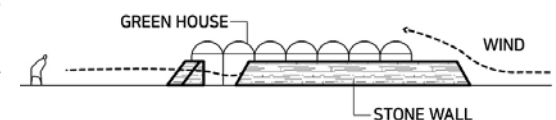
03. '재료'와의 결

목재는 탄소를 저장하는 재생 가능 자원으로, 에너지 효율과 환경 지속성 모두에서 장점을 지닌다. 다만 습기에 취약한 단점은 통기형 지붕, 방습 마감, 처마와 외피 설계를 통해 보완하였다. 구조적 강도와 시공 효율을 확보하기 위해 철골과 결합한 하이브리드 구조를 적용했으며, 각 재료의 특성을 살린 결구 방식으로 상호 보완적 관계를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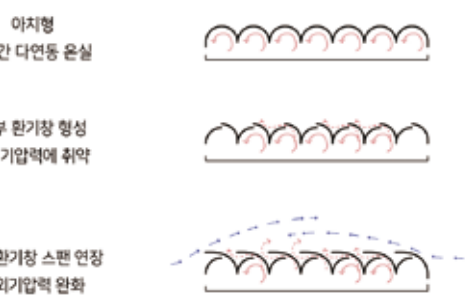


04. '풍토'와의 결

온실은 제주의 강풍, 다습한 기후, 화산지형이 만들어낸 풍토를 거스르지 않고 받아들이는 구조로 계획되었다. 바람은 환기의 동력이 되고, 습기는 식생의 자원이 되며, 현무암 지형은 건축의 토대가 된다. 돌담과 비닐하우스 같은 지역적 건축 풍토를 현대적으로 계승함으로써, 온실은 기후변화 시대에도 지속가능한 거주와 생산을 이어가는 장치가 된다.



상부 환기창의 풍압 제어로 중앙온실 자연대류 향상



오송역 선하장터

무기력한 콘크리트 도시 속 활기를 불어넣는 목조의 따뜻한 개입

유하영, 김소영, 안길웅(청주대학교 건축학과)

오송역 이용객 수



공간의 형성



2층_복도를 중심으로 길게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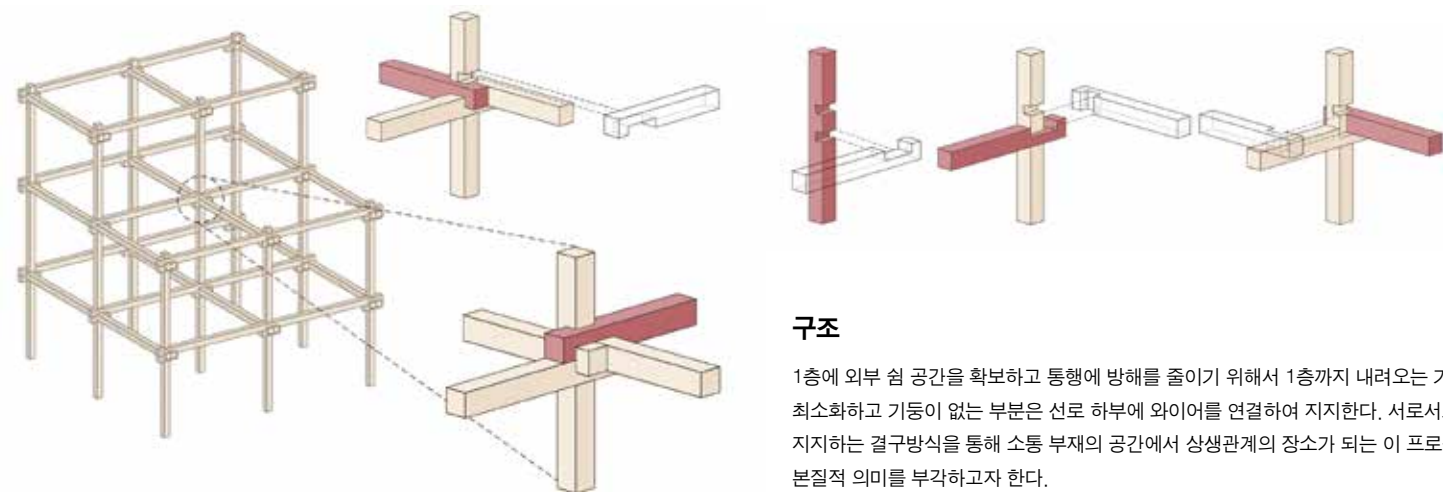
3층_2층과는 다른 방향의 길을 통해
이동하고 편안한 공간을 형성한다.

1층_외부공간을 크게 형성하고
공간을 나누는 구성

오송역은 개통 이후 청주의 크나큰 교통 중심으로 자리 잡았으며, 꾸준히 이용객 증가세를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중심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그러나 오송역 주변으로 이용객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과

주민 소통공간의 부재로 활발히 이용되는 오송역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는 비어 있는 오송역 선하 공간을 개인주의가 만연한 사회에 소통과 문화와 삶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공간, '어서오송'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어서오송'은 오송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과 더불어 청주의 상징으로 도시 간의 교류에도 활기를 주는 변화를 끌어내며, 교통과 함께 문화중심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조

1층에 외부 쉼 공간을 확보하고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1층까지 내려오는 기둥을 최소화하고 기둥이 없는 부분은 선로 하부에 와이어를 연결하여 지지한다. 서로서로 지지하는 결구방식을 통해 소통 부재의 공간에서 상생관계의 장소가 되는 이 프로젝트의 본질적 의미를 부각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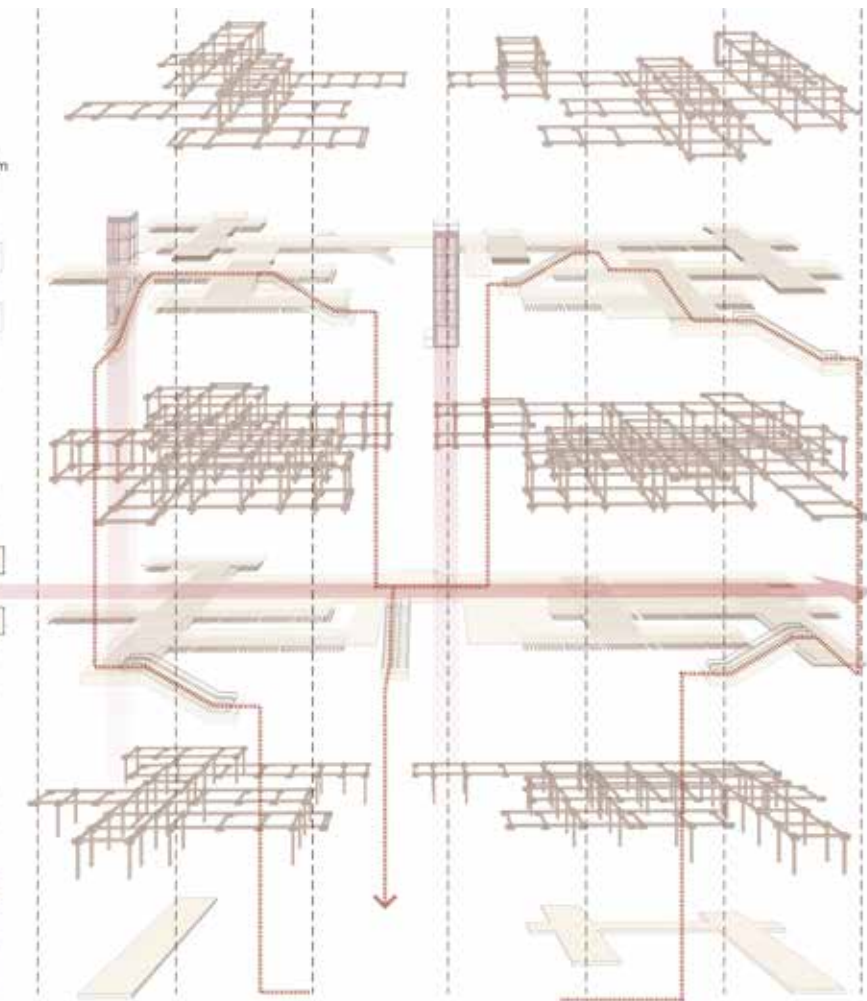
3층 평면



2층 평면



1층 평면



어반 팀버 프레임

하이브리드 목구조로 구현한 도심형 고층 캡슐호텔

이서영, 전현준, 노민재(명지대학교 공간디자인학과,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전통건축학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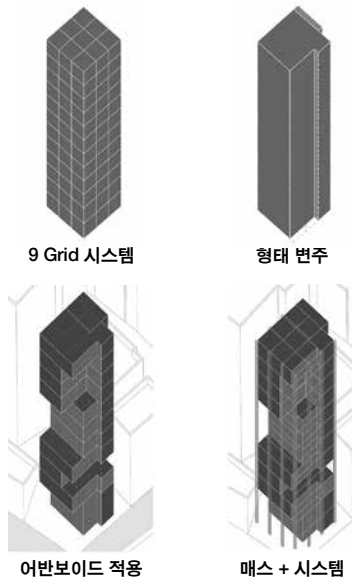
Site

종로 3가는 트리플 환승역으로 서울 중심부의 높은 접근성을 갖추며, 비즈니스 수요가 많은 종각과 MZ 세대 유입이 활발한 을지로, 역사·문화 거점인 안국동과 인접한다. 본 부지는 탑골공원 맞은편에 위치해 관광과 지역 생활 흐름이 교차하는 핵심 지점이다. 이곳에 들어서는 목조 고층 캡슐호텔은 도심 속 새로운 스카이라인을 만들며, 환경성과 구조적 혁신을 결합한 숙박 공간으로서, 프라이버시와 몰입형 경험을 제공하는 단기 체류형 대안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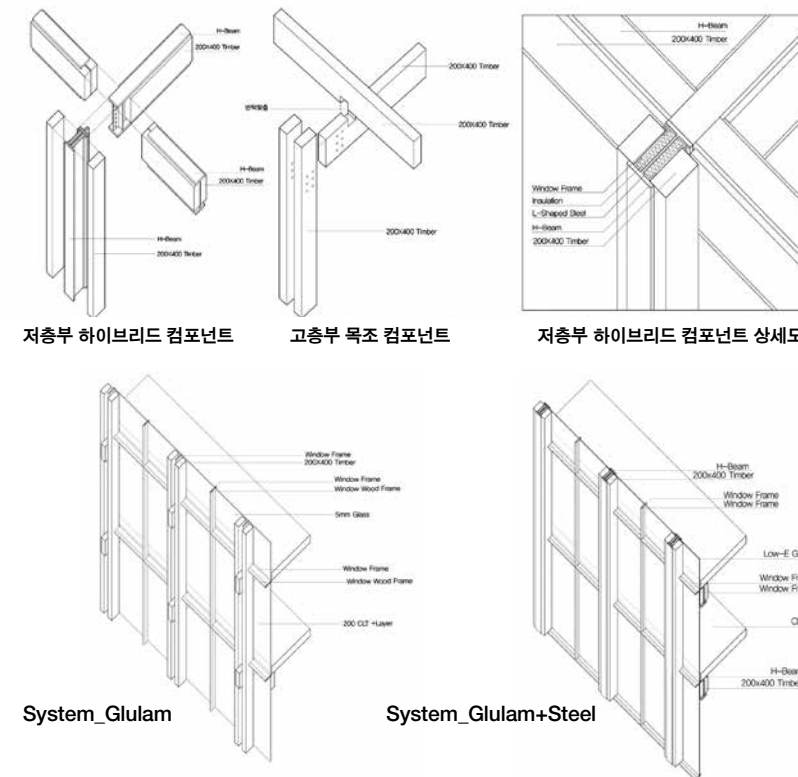
Background

현대 건축은 철골·철근콘크리트 기술의 발달로 넓은 스패와 자유로운 평면을 가능하게 했지만, 기둥이 형성하던 공간의 질서와 구조적 가시성이 약화되었다. 구조는 마감재 뒤에 숨고, 사용자는 건축의 뼈대를 직관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워졌다. 본 설계는 목구조를 활용하여 이러한 사라져가는 구성 원리를 다시 드러내고, 이를 공간 경험 속에서 체감하도록 한다. 본 설계는 프로그램, 사이트, 구조 시스템을 각각 독립적으로 분석하고 정의한 뒤, 세 요소가 결합해 전체를 이루는 방식으로 전개한다.

Design Process



Component



Isometric

12층: 옥상 정원

캡슐 내부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조식공간, 정원이 배치되어 있다.

9~11층: 남자 숙소 (28개×3)

6~8층: 여자 숙소 (24개×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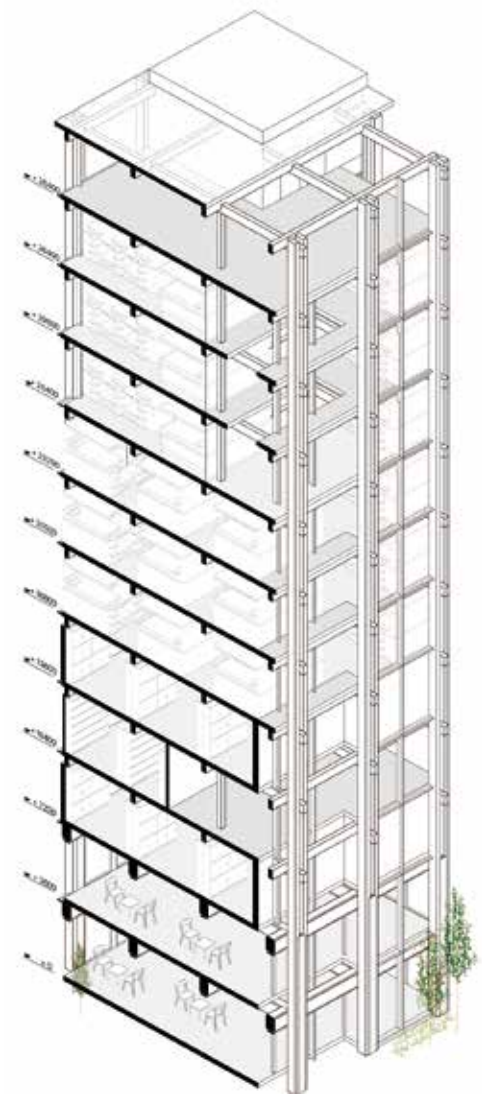
내부 보이드를 통해 목구조의 리듬을 경험하고, 서쪽 테라스에서 탑골공원을 조망한다. 나무 그리드 속 불투명 캡슐은 유기적으로 배열되어 공간을 구성한다.

3~5층: 샤워·직원·세탁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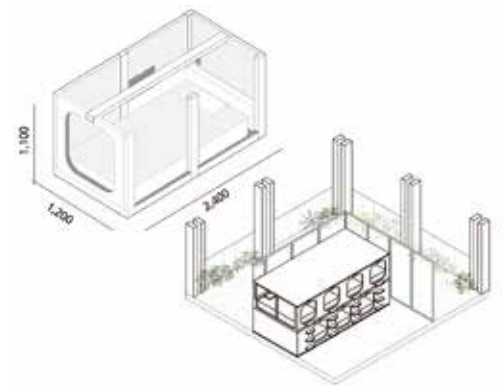
샤워공간을 숙면공간과 완전히 분리해 소음을 최소화했다. 각 샤워공간 사이에 직원공간과 세탁실을 배치하고, 외부 테라스로 활용해 이용 편의를 높였다.

1~2층: 상업공간 & 인포메이션

저층부는 유동 인구를 고려해 상업공간으로 계획하고, 높이를 맞춰 주변 맥락과 연결했다. 또한 슬라브 변주로 목구조의 구조를 드러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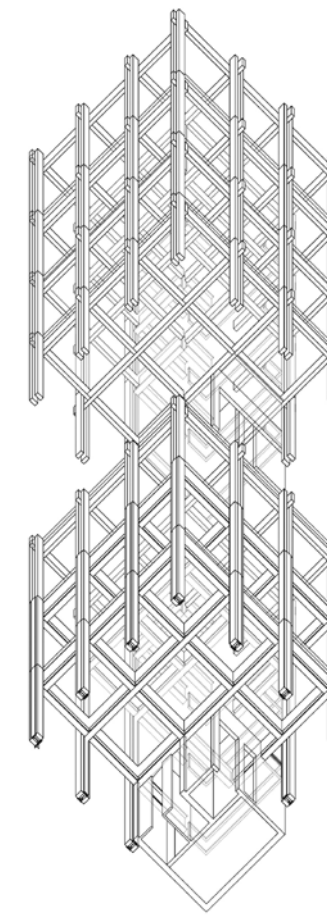
Capsule Detail



캡슐을 '하나의 박스 모듈'로 보고, 이를 구조 사이에 적응하여 외부에서도 그 모습이 드러나도록 계획했다. 일반 캡슐호텔이 적층 구조를 은폐하는 것과 달리, 유리 외벽을 통해 모듈의 적층 상태를 표현한다. 캡슐은 자연스럽게 벽의 역할을 하여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고, 관통하며 이동하는 듯한 경험과 구조와 프로그램이 직관적으로 드러나는 독특한 숙박 경험을 제공한다.



Bottom up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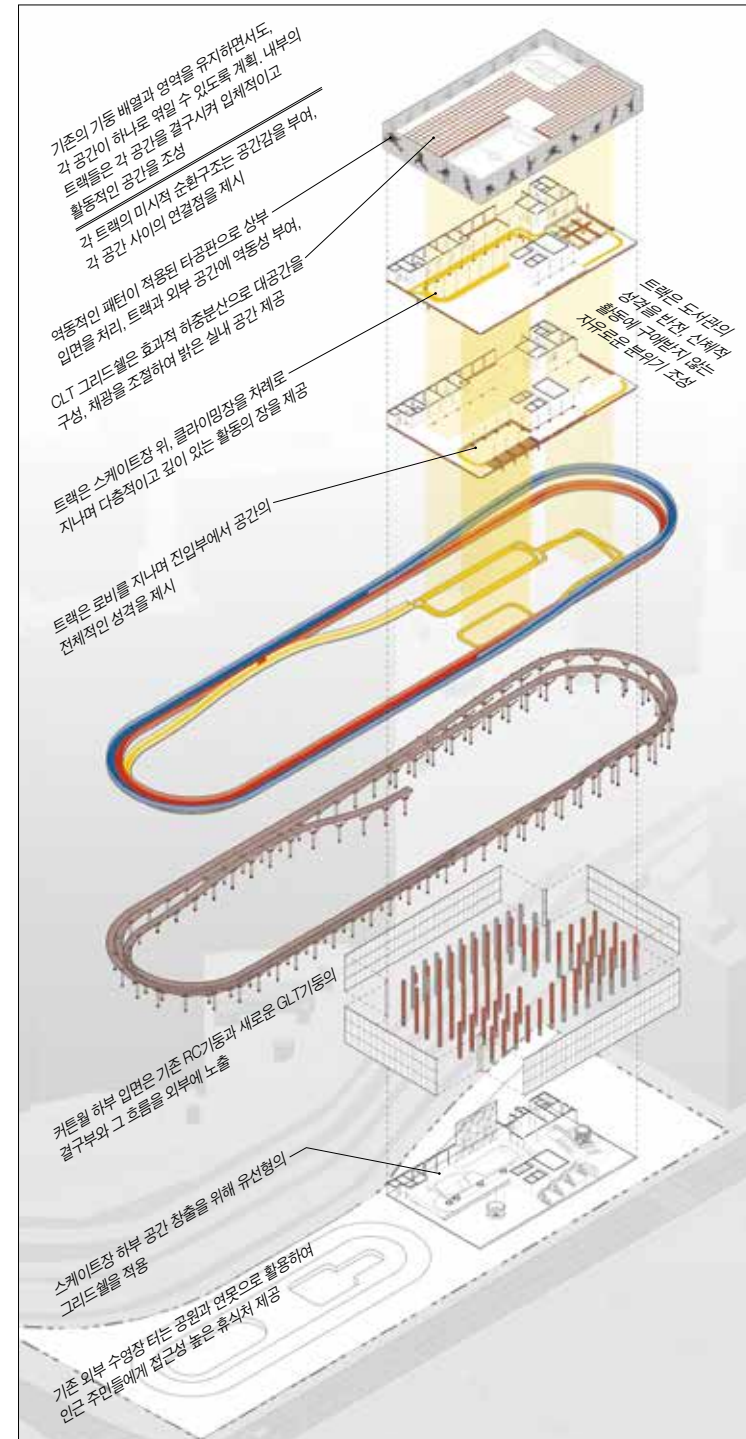
협소한 도심 대지의 제약 속에서 안정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9그리드 모듈을 기본 구조로 설정했다. 저층부는 주변 프로그램 수용과 높은 하중에 대응하기 위해 철근콘크리트·철골·목구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 구조적 강성과 내구성을 확보하며 상부 목구조 하중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상층부는 매스팀버를 중심으로 경량화와 친환경성을 확보하고, 코어를 중앙이 아닌 사이트에 배치해 하중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며 중앙부 개방감을 유지한다. 이런 구조 계획은 기둥 중심의 모듈화와 반복 논리를 실현해 프로그램 전환과 확장에 대응하는 공간적 유연성을 제공한다.

추억의 남천 우수폴장

액티비티 센터 리모델링 계획안

양재혁, 황지원, 정성택(경북대학교 건축학과)

Isometr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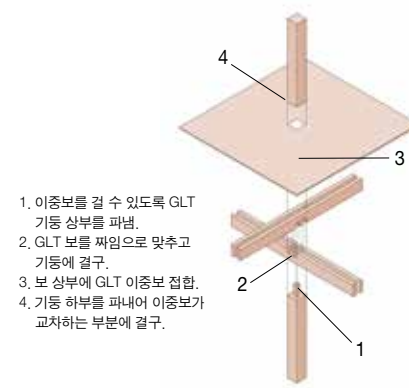


Prolog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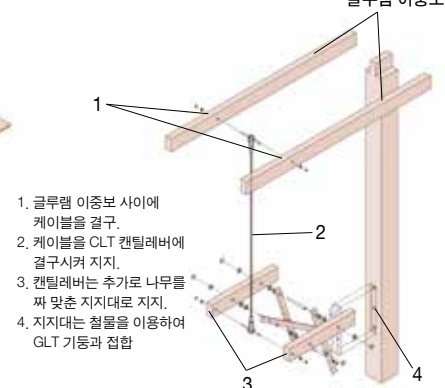
과거 남천 우수폴장은 휴일마다 주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였다. 그러나 주거 수요에 대응한 남천동의 부분별한 재개발로 아파트가 급격히 늘어나는 반면, 우수폴장과 같은 커뮤니티 공간들은 점차 유향부지로 전락하고 있다. 동네의 활기는 사라지고, 주민 간의 유대감과 결구 또한 약화되었다. 본 잃어버린 동네의 생기를 되찾고, 과거의 활기찬 추억을 다시 불러오고자 한다.

Wood Stru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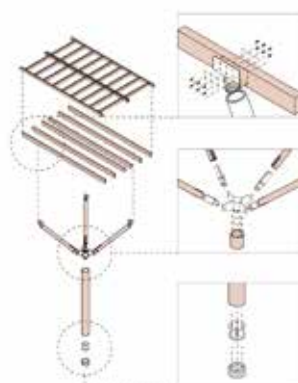
글루램 이중보-글루램 기둥 결구



2*6 CLT 작은 보-글루램 이중보 결구



모듈형 글루램 기둥 결구



RC 기둥-글루램 기둥 결구



부식이 진행된 RC 기둥 선정
RC 기둥 일부 철거
스틸 커넥터로 기존 RC 기둥과 GLT 기둥을 결구



Space Program

배면부-서비스 공간의 배치

건물의 배면부에 서비스 공간, 직원 구역, 실내 클라이밍장을 배치



정면부-커뮤니티 시설 배치

건물 정면부에 로비와 카페, 도서관 등의 커뮤니티 프로그램 배치



중앙부-역동적인 경험 공간 배치

스케이트 보드장, 펌프 트랙, 스핀 플로어 도서관 등 중앙으로 갈수록 역동적 분위기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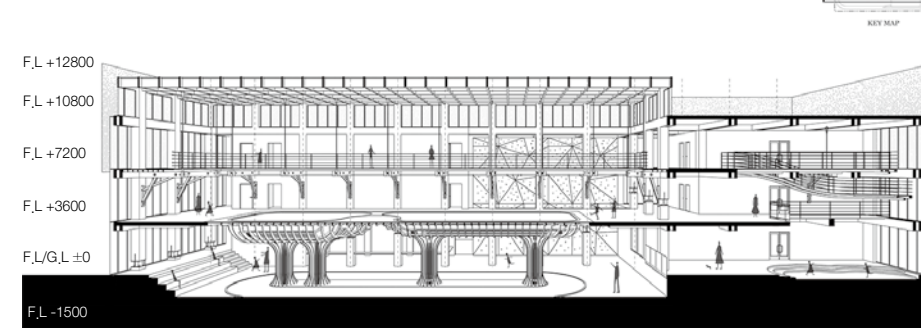
보이드 공간 배치

러닝 트랙이 지나가는 곳에 보이드 공간을 형성, 러닝 트랙과 건물의 경계를 흐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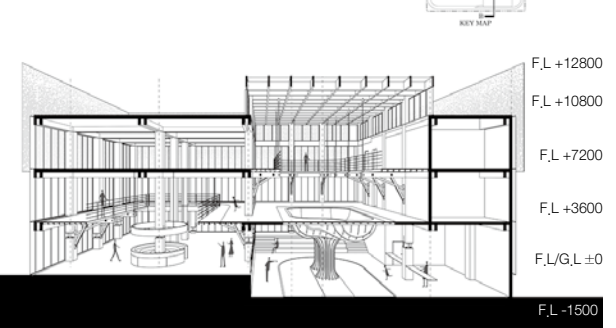


Section Plan

A-A' Section



B-B' Section



Lobby



Skateboarding park



Forest of stories

서울역 2.0

서울역은 어떠해야 하는가

강효민(동국대학교 건축공학부 건축학전공)

서울역이 갖춰야 할 서울 그리고 한국의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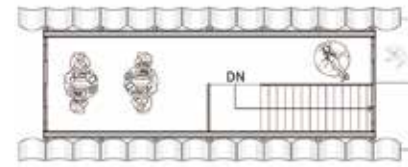
서울역은 서울의 얼굴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역이 주는 서울의 이미지는 지하철 출구에서 마주치는 노숙자들 그리고 출구를 지나면 횡단보도를 건너기 힘든 버스 정류장이 나온다. 서울을 대표하는, 더 나아가 한국의 이미지라고도 할 수 있는 서울역이 갖춰야 할 서울의 이미지를 재구성하고자 한다. 서울역이 줄 수 있는 한국성에 대해서 누구나 공감 가능한 한옥을 생각하게 되었고 한옥들을 지하철 출구로 설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서울역을 통해 서울과 한국에 대해 인식하게 하고자 한다. 이 한옥 출구는 현재

서울역 주변이 보이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형태에 맞게 현대적으로 재구성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은 지붕에 있어 지붕을 유형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3가지 지붕의 유형은 서울에 퍼져있는 다양한 전통 한옥 건축물에서 볼 수 있다. 광화문과 종묘는 우진각지붕, 경복궁의 근정전은 팔작지붕, 남산골 한옥 마을과 같은 서민들의 흔한 주거용으로는 맞배지붕이 사용된다. 3가지 지붕 유형의 특색을 살려서 보다 더 친화적이며 서울과 한국을 대표할 수 있도록 공간을 설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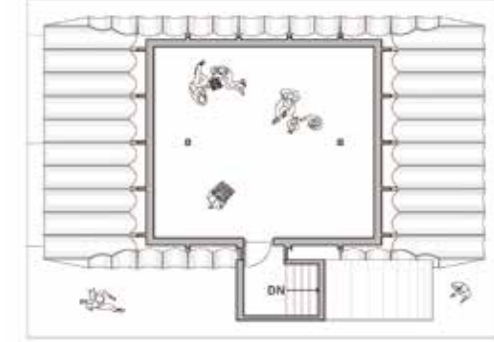
Plan

맞배 유형 출구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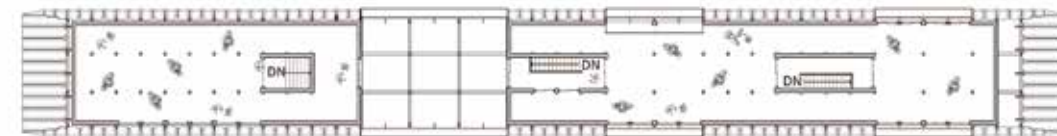
맞배지붕 유형의 출구는 역과 관련된 행사나 출퇴근 혹은 서울역을 오가는 사람들이 잠시 들릴 수 있는 공간이다. 때로는 팝업이 일어나기도 때로는 마치 파빌리온처럼 존재만으로 서울역에 정체성을 부여한다.

팔작 유형 출구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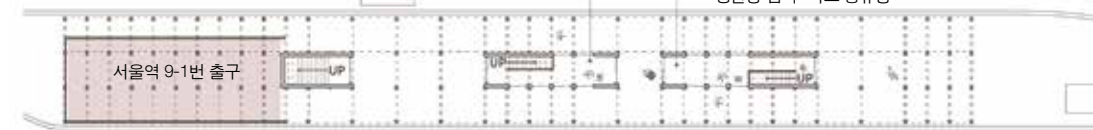
팔작 유형 출구는 노숙인들의 쉼터, 또는 출구 건설을 위한 노동자들의 대기 장소로, 일반인들과 동선을 분리했다.

우진각 유형 출구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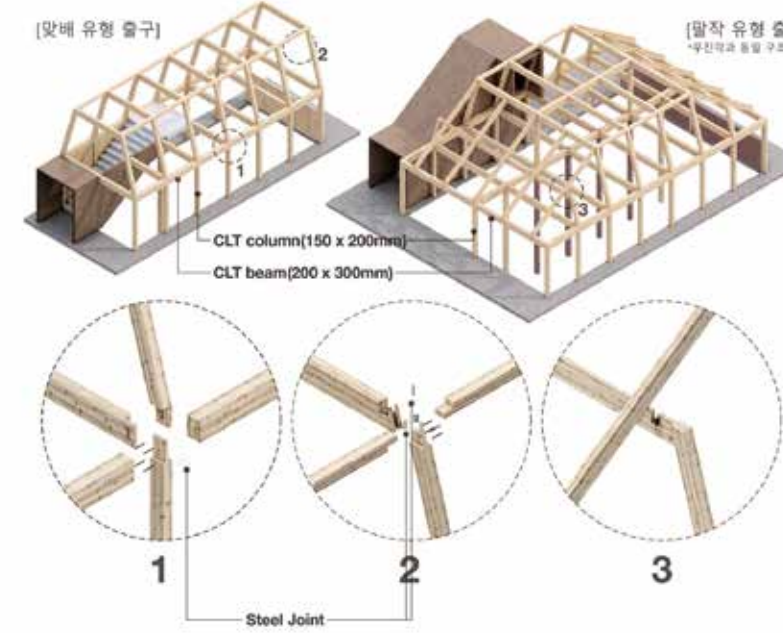
우진각 유형의 2층은 1층에 위치한 냉난방 쉼터와 연결되어 좀 더 시간을 내어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상업공간이다. 테이블이 자유롭게 배치되어 사람들이 머물다 갈 수 있다.

우진각 유형 출구 -1층 평면도



우진각 유형의 1층은 남쪽으로는 서울역 9-1번 출구가 위치하고 북쪽으로는 버스 정거장이 자리 잡고 있다. 이때 사람들이 쾌적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는 냉난방 쉼터를 목조 그리드 상의 공간에 배치하여 버스를 탑승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과의 동선을 구분했다.

Structure Sche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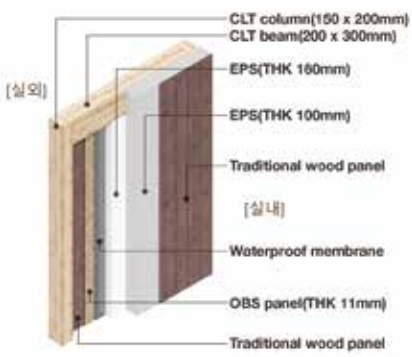


서울역 2.0은 프리패브리케이션 공법을 적용하여 시공 효율을 높였으며, 목재 외 다른 자재 사용을 최소화하였다. 한옥의 단순한 형태를 차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통 결구 방식을 단순화하여 구조에 반영하였다.

Passive Strategy



[우진각 유형-냉난방 쉼터]



많은 사람들이 서울역 버스 환승 센터를 가로지르며 지하철에서 버스로 혹은 버스에서 지하철로 이동한다. 이러한 상황 속 서울역에는 사람들이 이동을 위해 기다리는 매우 짧은 시간동안 있을 공간이 필요하다. 짧은 대기 시간(3~10분) 동안에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고단열 패시브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하였다. EPS 단열재를 적용하여 열관류율을 약 0.15~0.10 W/m²·K 수준으로 낮추었으며, 외기와의 열 손실을 최소화하여 냉난방 에너지 소모를 줄였다.

맞배지붕 유형



우진각지붕 유형



팔작지붕 유형

되살린 집, 덧입힌 삶

서울 도심지 주거 증축 프로토타입 활용 방안

사유현, 오지원, 김유진(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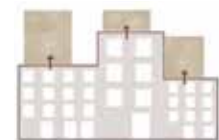
사이트 선정



공간 조성 전략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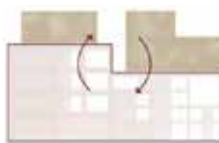
서울 도심 적벽돌 주택들은 대부분 1980년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밀집된 상태로 조성되었다. 기존 1980년대 적벽돌 주택을 철거하지 않고, 가벼운 목조 모듈을 수직으로 증축해 도시 주거환경을 지속 가능하게 개선하고자 한다. 친환경적이고 유연한 목재 구조를 통해 공간 밀도를 높이며, 다양한 삶의 방식을 수용하는 새로운 주거 유형을 제안한다. 이는 철거와 대체가 아닌, 기존 주거지를 존중하며 점진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식이다.

모듈 배치 전략



1. 위로 확장하는 목조 모듈

기존 적벽돌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가벼운 목조 모듈을 위에 더하여 공간을 수직적으로 확장한다. 이를 통해 주거 밀도를 효율적으로 높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



2. 유연한 용도 전환 및 프로그램 분리

기존 적벽돌 건축물과 새롭게 증축한 목조 모듈의 용도를 분리하거나 용도 전환을 통해 복합적인 프로그램을 구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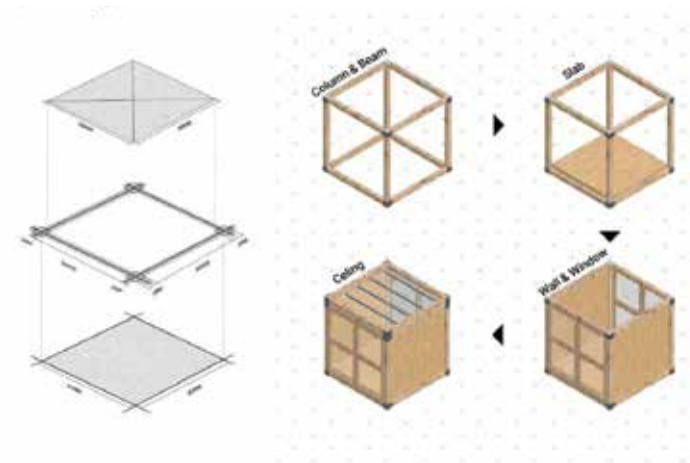


3. 임시 거처로 활용 가능한 가변형 모듈

기존 적벽돌 건축물의 리모델링이나 보수 기간 동안, 목조 모듈을 임시 생활 공간으로 활용한다. 가벼운 구조의 특성상 설치와 해체가 쉬워, 공사 기간 중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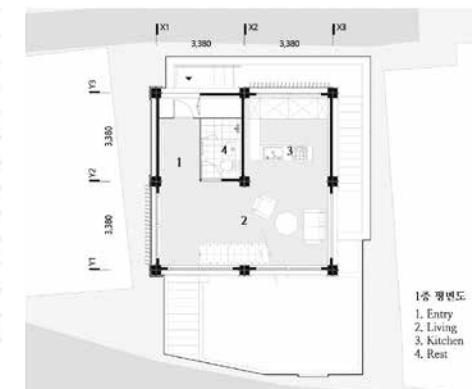
모듈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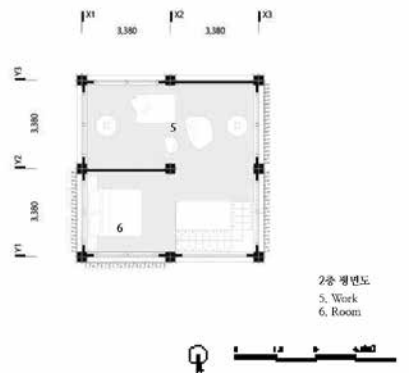
평면도

도시 성격에 따라 후암동은 예술가를 위한 작업 공간, 신당동은 주거의 확장, 불광동은 부족한 커뮤니티 공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계획하였다. 어디에든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목구조 모듈 프로토타입을 제안한다.

작업 공간: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38길 14



1층 평면도
1. Entry
2. Living
3. Kitchen
4. R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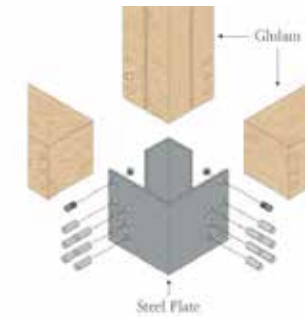


2층 평면도
5. Work
6. R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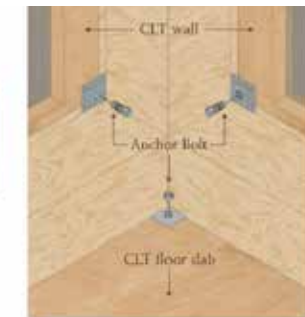
결구 구조 세부 구성

수직 · 수평 하중을 지지하는 기둥과 보에는 강도가 우수한 글루램(Glulam)을 구조적 면을 형성하는 벽체와 슬래브에는 시공성과 안정성이 뛰어난 CLT(Cross-Laminated Timber)를 적용한 하이브리드 목조건축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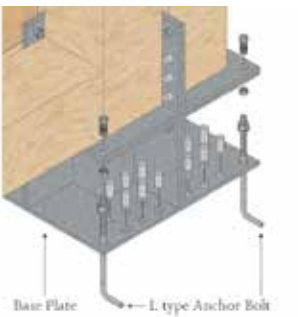
1. 기둥과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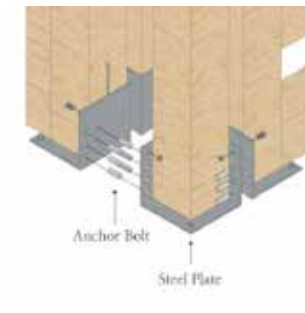
2. 벽체와 슬래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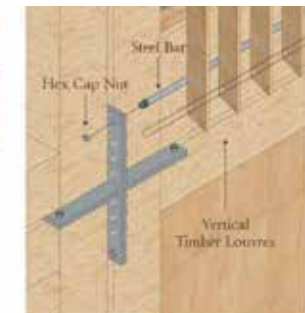
3. 지면과의 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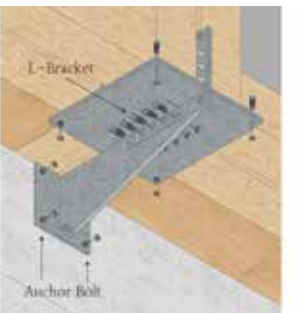
4. 모듈의 결구



5. 루버



6. 기존 건물과의 결구



구조 단면 입체도



재·결구: 목조건축이 일상화된 도시로 돌아가기

목재 친화 도시 구축을 위한 도심 속 소규모 시범 목조 주거단지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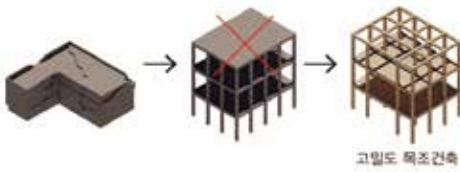
임정현, 홍유빈, 이하은(명지대학교 건축학부 전통건축학전공)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는 나무로 지어진 집에서 태어났고, 자랐다. 공부한 곳도, 각자의 생업을 위해 일하던 공간도,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며 늙어 간 공간도, 나무로 만들어진 건축물과 그것들과 어우러진 도시 공간이었다. 평생을 나무 향과 천연재료로 만들어진 공간에서 생활하던 우리는, 언제부턴가 철근콘크리트와 철골, 금속 등 인공재료와 자재로 만들어진 도시 속에서 살고 있다. 여러 가지 환경 문제와 기후 문제에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고 되풀이되고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옛날처럼 나무 향과 나뭇잎이 골목마다, 거리마다 넘쳐나는 도시를 거닐고 싶다. 우리 산하에서 자라난 나무로 생산된 공학용 목재와 아름다운 원목으로 다시 결구 된, 이 도시를 걷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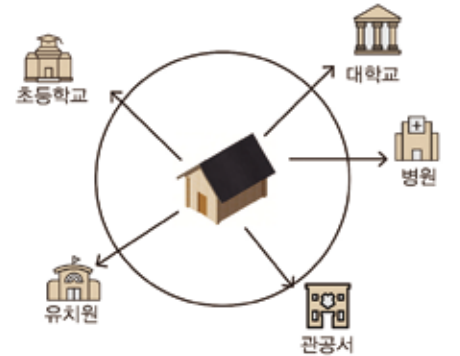
1. 콘크리트에서 목재로

기존 도심 노후 주거지역의 재건축을 목조, 혹은 목조 + 콘크리트 등으로 건축 시공 편리하고 경제적인 도심 속 친환경 도심 속 친환경 주거 유형으로 개발



3. 공공건축을 통한 목조공간 체험 확대

교육시설, 공공시설 등 의무 목조공간을 통한 친환경 건축의 사회적 공감대 확대



5. 친환경 저탄소 목재 친화 도시 형성

나무 + 도시의 재 결구

2. 나무와 친해지기 - 목조 주거건축의 활성화

삶의 대부분을 보내는 주거건축의 목조화로 목재에 대한 친밀도 증대와 선행적 경험을 통한 목조건축에 대한 노스텔지어 제공



4. 나무 향 가득한 골목길

다양한 스트리트 퍼니처와 목조구조를 설치로 채택하고 안락한 가로공간 창출



구조 및 단면개념

국산 목재로 생산된 공학용 목재와 철물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내진설계

내화설계



차음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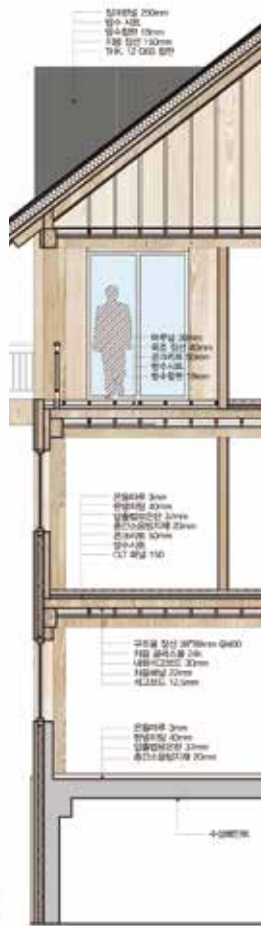


내진설계



주요 구조부 하이브리드 구조

단면상세도



소규모 필지: 다가구 근생주택 - A

대지면적: 129.3m²
건축면적: 77.19m²
연면적: 268.88m²



중규모 필지: 다가구 근생주택 - B

대지면적: 303.1m²
건축면적: 170.66m²
연면적: 816.73m²



유치원(유아원) - C

대지면적: 319m²
건축면적: 181.75m²
연면적: 693.99m²





(사)한국목조건축협회에서 하는 일



목조 건축업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우리나라 목조 건축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현장 경험 중심의 목조건축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최신 건축자재 및 기술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목구조 기술자 기술인력 양성

한국형 목조건축 시공기술의 향상을 위한 목조 건축업의 설계·시공·수리·보존 및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인력을 양성한다.

목조건축 품질 표준에 따른 감리 및 인증 연구

목구조 건축기술의 핵심이 되는 최소한의 규정을 제시, 우수한 목조건축 보급을 목적으로 민간 차원의 감리 제도인 목조건축 5-Star 품질인증 제도를 시행한다.

목조건축 관련 정부 지원 요청 사업

국토교통부, 산림청 등의 목조건축 관련 기관들의 홍보 사업을 지원하고, 관련 법령의 개선 및 정책 등을 지원한다. 관련 법령의 개선 및 정책 마련을 선도한다.

세미나 개최, 간행물 발간 등 홍보 활동

목조건축 시공기술의 향상을 위한 목조건축포럼 및 기술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안전하고 내구성 있는 목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을 위한 자료 간행물 등을 발간한다.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 활동

목조건축 관련 각종 법령, 제도, 기술의 합리적 개선 등을 현장 실무에 근거하여 조사·연구하고 결과물을 회원사에 제공한다.

각종 전시회 참가 및 주최

회원의 효과적인 홍보와 공동 이익 도출을 위해 각종 전시회를 공동 참가 또는 공동 주최한다. 매년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을 주관하여 목조건축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다.



목조건축 5-Star 품질인증 제도



목조 건축물 품질인증
QUALITY APPROVAL OF WOODEN ARCHITECTURES

목조건축 5-Star 품질인증 제도는 부실 건축으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막고 더 우수한 목조주택 보급을 위해 국립산림과학원,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의 지원으로 협회 회원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목조건축 감리제도로 2009년부터 (사)한국목조건축협회에서 운영 중이다.

목조건축 5-Star 품질인증 과정은 목구조 건축기술의 핵심이 되는 최소한의 규정을 제시하고, 사전 도면 검토 후 시공단계별로 현장

을 방문하여 기준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하고 기술적 지원을 더하여 목구조 건축물이 100년 주택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점검한다.

현재 기둥-보구조 및 대단면구조로 시공되는 공공시설물에도 5-Star 품질인증이 적용, 확대시행 중이다. 단체 표준으로 등록 예정이며, 목조건축의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현장 방문 시기 및 점검 사항



1차 실사

- 외벽 벽덮개 못박기 후 / 외부 투습방수지 설치 전 방문
- 부재 간 못박기 시공 등 점검



2차 실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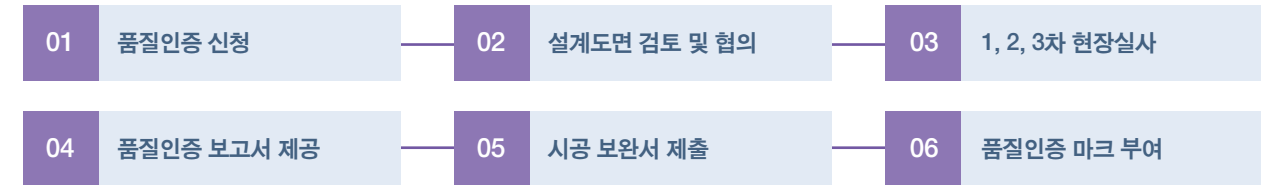
- 외부 투습방수지 설치 후 / 골조 시공 및 설비배관, 전기배관 완료 후 방문
- 전체적인 구조, 부재의 파변 및 천공 등 점검



3차 실사

- 단열재 시공 후 / 외부 마감 시공 중 / 내부 석고보드 설치 전 방문
- 단열 및 수분 관리, 외부 마감 등 점검

인증 절차



목조 건축물 품질인증
QUALITY APPROVAL OF WOODEN ARCHITECTURES

5-STAR ECO

5-STAR ECO는 한국임업진흥원과 협력하여 목재 탄소저장량 표시를 5-STAR 품질인증에 도입한 제도이다.

탄소저장량 측정·표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목재제품에 포함된 탄소저장량을 산정지침에 따라 계량적으로 표시함으로써 목재제품이 갖는 친환경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진행하는 법정제도이다.



목조 건축물 품질인증
QUALITY APPROVAL OF WOODEN ARCHITECTURES

5-STAR ZERO

5-STAR ZERO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5-STAR 품질인증에 도입한 제도이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고성능 단열재와 고기밀성 창호 등을 채택,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패시브(Passive)기술'과 고효율기기와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한 '액티브(Active)기술' 등으로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여 사용자가 외부로부터 추가적인 에너지 공급 없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축한 건축물을 뜻한다.



신청방법 및 문의

목조건축 5-Star 품질인증 신청은 시공사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공사가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건축주나 건축사사무소도 신청할 수 있으나, 반드시 사전에 시공사와 협의해야 한다. 이는 인증 과정에서 건축주, 시공사 및 협회 간의 사소한 분쟁이나 오해 등의 혼선을 방지

하기 위함이다. 건축도면 및 구조도면 검토를 위해 최소한 착공 한 달 이전에는 신청해야 하며, 이미 착공된 건축물은 신청할 수 없다.

(사)한국목조건축협회 02-518-0613

“목조건축에 더 깊은



가치를 담습니다”



설계 업체

업체명	대표	전화번호	소재지	홈페이지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김용미	02-534-1471	서울시 서초	www.gsarchi.co.kr
㈉노바건축사사무소	강승희	02-333-5863	서울시 마포	studio-nova.co.kr
㈉건축사사무소 스무쵸	홍진희	02-515-7106	서울시 강남	www.smusoop.com
㈉하우스타일 건축사사무소	김주원	02-564-7012	경기도 양평	hausstyle.co.kr
㈉생각나무파트너스건축사사무소	강주형	02-499-3338	서울시 성동	www.thinktr.com
건축사사무소 KDDH	김동희	02-2051-1677	서울시 강동	kddh.kr
㈉에이디모베건축사사무소	이재혁	02-511-5854	서울시 종로	admobe-myportfolio.com
㈉한인종합건축사사무소	천국천	02-2113-7800	서울시 영등포	cafe.daum.net/haninar
㈉건축사사무소 다솔	이성배	02-552-9962	서울시 송파	www.daasolee.com
플라잉건축사사무소	서경화	02-6013-5063	서울시 성동	www.flyingarch.co.kr
그루건축사사무소	정주광	02-333-4549	서울시 마포	www.designgroo.co.kr
종합건축사사무소백석그룹	전보영	031-8015-4595	경기도 화성	bs779900@naver.com
(주)건축사사무소 이인집단	이영재	070-7706-5100	서울시 마포	www.othersA.com
건축사사무소 예감_그리크지않은 집	강미현	063-288-9380	전라북도 전주	www.cckang.kr
㈉조한준건축사사무소	조한준	02-733-3824	서울시 성북	the-plus.net
마루건축사사무소	우현배	031-771-2964	경기도 양평	www.mahru.co.kr
소하건축사사무소	최성호	02-2038-4758	서울시 서초	www.sohaa.co.kr
홈플랜건축사사무소	김소연/이동진	031-275-5296	경기도 용인	www.homeplan.co.kr
건축사사무소 리얼랩 도시건축	허길수	02-318-4001	서울시 중구	www.reallab.kr
연이종합건축사사무소㈉	김종기	070-4101-6871	서울시 서대문	paulkimm@hanmail.net
건축사사무소 재귀당	박현근	02-408-6045	서울시 송파	www.jaeguidang.com
정감건축사사무소	김구태	031-707-8988	경기도 성남	jgarchitect.co.kr
㈉단감건축사사무소	김은희	02-6217-8754	서울시 영등포	www.edangam.com
가온건축사사무소	김은경	042-637-2458	대전시 서구	ekk1231@naver.com
소솔건축사사무소	왕성한	02-457-0218	서울시 광진	www.sosol.co.kr
피원건축사사무소	장진희	02-573-2627	서울시 서초	www.p1architecture.com
마로안건축사사무소	이옥정	02-2051-9330	서울시 강남	www.maroan.com
b2 Shapes	김계숙	02-554-2122	서울시 강남	b2shapes@gmail.com
㈉오월건축사사무소	심정열	02-2676-0827	서울시 영등포	owolarchi@naver.com
㈉유탄건축사사무소	김창균	02-556-6903	서울시 광진	www.utaa.co.kr
투닷건축사사무소㈉	조병규, 모승민	02-6959-1076	경기도 양평	todot.kr
건축사사무소 청목재	서정수	02-2058-3339	서울시 서초	blog.naver.com/soomok737
ZESS연구소	박정로	010-2222-3460	경기도 양평	zessconsultancy@gmail.com
디엔에이 건축사사무소	신범석	02-999-5855	서울시 도봉	danda.kr
수영아뜰리에 건축사사무소	최수영	0507-1437-2920	경기도 용인	blog.naver.com/mwchoi22
에이투디건축사사무소	박찬우	070-8877-1807	서울시 송파	atod.kr
㈉건축사사무소시드	이준석	02-543-8021	서울시 종로	https://sied.co.kr/
건축사사무소 현	현군출	064-702-6509	제주특별자치도	hyun6509@paran.com
아키펠렛폼건축사사무소	황동근	033-261-8527	강원도 춘천	yazasu0924@hanmail.net
에이루트건축사사무소	이창규	064-721-1210	제주특별자치도	www.arootarchitecture.com
문건축사사무소	김원일	070-8119-1755	성남시 분당	www.mun-arch.com
(주)정효빈건축사사무소	정효빈	02-6952-1105	서울시 송파	junghyobin.com
울산대학교	김범관	052-259-2707	울산광역시 남구	www.kimbeomkwan.com
(주)간삼종합건축사사무소	김태집	02-2250-6000	서울시 중구	www.gansam.com
해밀종합건축사사무소	길윤경	070-7652-9291	서울시 성북	hma201002@naver.com
건축사사무소 오	오정현, 김지희	064-755-2418	제주특별자치도	www.oarchi.com
㈉두항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	김각경	02-578-4462	서울시 강남	dhsc@chol.com
㈉위너스BDG	이 석	02-322-0438	서울시 금천	www.w-bdg.com
HAUSTEC Ltd.(하우스텍)	주종범	587-777-5230	캐나다	david@haustec.ca
㈉금나구조기술사사무소	마영민	02-6949-4651	서울시 금천	gumna2017@gmail.com

튼튼구조엔지니어링	박상욱	02-462-3620	서울시 성동	sdeng20018.modoo.at
도아구조기술사사무소	서연주	02-6412-1004	경기도 수원	doya1eng@daum.net
유노텍 구조기술사사무소	오용균	02-6284-1034	서울시 서초	mrmroh@naver.com
믿음구조기술사건축사사무소	황진섭	031-548-1601	경기도 수원	sagitta98@naver.com
하이온구조기술사사무소	김도현	010-2239-3039	서울시 성북	hyonstruct@gmail.com
㈉가와종합건축사사무소	최삼영	02-3143-0057	경기도 고양	명예회원

시공 업체

업체명	대표	전화번호	소재지	홈페이지
㈉스튜디오하우스	김갑봉	02-584-1090	서울시 은평	www.stugahouse.com
뉴타임하우징	강대경	1599-4169	서울시 서초	www.newtimehousing.com
㈉시스홈종합건설	이국식	02-704-0482	서울시 서초	instagram.com/igugsig?igshid=ZDdkNTZiNTM=
㈉중부이엘에스	김경환	043-533-1335~7	충청북도 진천	jbloghomes.co.kr
㈉케이에스피앤씨	장길완	031-771-1343	경기도 양평	jang-ks2013@hanmail.net
㈉스마트하우스	이영주	031-971-4818	경기도 고양	www.smarthousing.co.kr
㈉더존하우징	이용진	1644-3696	경기도 화성	www.dujon.co.kr
㈉제이디홈플랜	오권만	064-747-2178	제주특별자치도	jhomeplan.com
㈉브랜드하우징	문병호	031-714-2426	경기도 성남	www.brandhousing.co.kr/
니드택건설㈉	유창민	1577-0192	부산시 강서구	needhaus@naver.com
우드선	원유상	1644-0523	경기도 남양주	www.woodsun.co.kr
삼림하우징테크	김태국	053-313-3388	대구시 남구	slhousingtech.itpage.kr
화미건축	김태엽	031-772-7845~6	경기도 양평	www.whami.co.kr
호멘토	이건	1670-6234	경기도 성남	www.homento.co.kr
꿈꾸는목수	소태웅	1599-1723	광주시 남구	www.woodenhouse.kr
티비(TB)건설	한민희	043-853-4997	충청북도 충주	4997timber@naver.com
㈉원원하우징	이재국	1599-4323	세종시 금남	www.winwinhousing.co.kr
나무집공작소	윤세웅	010-3528-4661	경상북도 영주	cafe.daum.net/countrywoodhome
살구마을㈉	박은국	031-772-3305	경기도 양평	cafe.naver.com/ypjpforesthill
㈉에이치원(이건창호)	정해승	031-997-0103	경기도 김포	blog.naver.com/hone9970103
코빌하우징	양수복	031-775-7277	경기도 양평	www.cobil.co.kr
한솔건축	김상연	051-583-8697	부산시 금정	www.j-hansol.com
나무이야기	홍규택	010-3890-3751	경기도 하남	hongnamoo@naver.com
㈉에이치티종합건설	김강일	1588-9704	서울시 서초	www.house-talk.co.kr
디자인 하우스	김민기	055-583-6035	경상남도 함안	dscckcom@hanmail.net
㈉윤성하우징	윤용식	1566-0495	경기도 안산	yunsunhousing.co.kr
리더스건축	송용욱	1599-0481	경기도 양평	song3580@naver.com
가원하우징	김태희	053-964-5355	대구시 동구	blog.naver.com/gw5355
㈉아름단단	최동우	044-864-9665	세종시 나성	www.armdan.co.kr
휴먼홈	최통일	1811-7995	충청남도 천안	cafe.naver.com/no1tongil
골드홈업㈉	김진용	031-797-3005	경기도 광주	www.goldhomes.co.kr
㈉수피아건축	이주석	032-504-1025	인천시 서구	www.supiacon.co.kr
하우스컬처	김호기	044-867-7562	세종시 나성	www.hausculture.com
㈉위드하임종합건설	윤경일	031-774-4745	경기도 양평	www.withheim.co.kr
화이본(Whaibon)	박근량	055-267-5631	경상남도 창원	blog.naver.com/grpark0686
㈉제이종합건설	정재민	02-400-3594	서울시 종로	www.j-cons.co.kr
휴인㈉	최미경,최규웅	062-945-0036	전라남도 신안	www.huin.kr
공간연구소-집"	서문원	070-5129-2055	서울시 송파	www.spacehouse.kr
㈉더원하우징	이윤범	033-264-1147	강원도 춘천	theonehousing@daum.net
㈉망치소리종합건설	송동선	031-705-4636	경상북도 봉화	www.mangchisori.kr
㈉제이콘 종합건설	황소진	032-567-1610	인천시 서구	www.jconhousing.com
진성이엔지㈉	장관영	033-435-0477	강원도 홍천	jinsung1004@hanmail.net

(사)한국목조건축협회 활동 회원사 리스트

㈜미건하우징	김대기	02-897-7717	경기도 광명	www.meegun.co.kr
더홈 파트너스	김현덕	010-8787-8204	대구시 달성	m.blog.naver.com/kimscall7/222460433104
공간인(주엘피하우징)	진창진	010-2559-0427	경기도 여주	dyne22878@naver.com
㈜바움, 바움 패시브허브	임영권	031-928-6801	경기도 양주	www.baumbest.com
㈜아키리얼 종합건설	손창완	070-7867-1180	경기도 고양	www.arkireal.co.kr
㈜정담건설	이미숙	031-775-0625	경기도 양평	www.jung-dam.com
새하늘하우징	송세관	062-251-5459	광주시 북구	sky201108@daum.net
와이에이치 목조주택	최호순	010-2578-7110	강원도 강릉	chs1064a@gmail.com
더베스트하우징	김지율	010-7734-3954	강원도 원주	thekingkong1943@naver.com
에스와이우드(주)	문성렬	032-578-1500	인천시 서구	www.sywood.co.kr
(주)타이니 홈	박진서	1588-6293	충청북도 충주	www.tiny-home.co.kr
공간제작소(주)	박정진	031-351-0910	경기도 화성	www.gg-arch.co.kr
팀버이엔씨	이기노	043-853-5004	충청북도 충주	명예회원

자재 업체

업체명	주요품목	대표	전화번호	소재지	홈페이지
경민산업㈜	구조용집성재	이한식	032-575-7871	인천시 서구	www.kmbeam.co.kr
㈜엔에스홈	종합건축자재	박찬규	031-767-9400	경기도 광주	nshome.net
영림목재㈜	목재내외장재	이승환	032-811-9051	인천시 남동구	www.younglim.com
㈜삼익산업	독일창호디크닉	김종근	1588-3648	경기도 광주	www.siwwood.com
㈜우딘HAUS	Eco-friendly	강원선	032-578-8500	인천시 서구	www.wood.co.kr
㈜우드존	목구조내외장재	선 행,서양오	1600-1432	광주시 서구	www.woodzone.co.kr
㈜우드뱅크	석고각재방부목	이태호	032-581-4494	인천시 서구	www.woodbank.net
㈜진흥인터내셔널	종합외장재	박진영	1644-2111	경기도 이천	www.jhint.co.kr
㈜고려신소재	건축용타이백	이상욱	02-467-8740	서울시 광진	www.koreacns.com
㈜명성우드	목조주택자재	조영찬	1899-3327	경기도 양평	www.mswood.net
윈코	불연스카이텍	이연세	02-3272-0661	서울시 마포	www.winco.co.kr
한림에이치우드㈜	목조주택자재	최정상	1544-0488	충청북도 청주	www.hnhwood.com
전일목재산업㈜	목조주택자재	김병진	063-545-3131	전라북도 김제	www.jiwood.co.kr
㈜해강인터내셔널	기밀/단열/방수	이정현	02-416-1511	서울시 송파	www.hibm.co.kr
유니우드㈜	세르파/스타코	구본성	02-478-7504	경기도 하남	www.uniwood.kr
애니우드	목구조내외장재	곽은혁	031-321-0366	경기도 용인	www.anywood.net
우림주택	연결보강철물	권기병	031-764-6799	경기도 광주	www.megatie.com
㈜채우림	편백나무전문	최성근	031-821-1662	경기도 의정부	www.chaewoorim.co.kr
패시브웍스	열회수환기장치	이상근	031-5186-6158	경기도 수원	www.smartvent.co.kr
㈜지이그룹	프리컷중목구조	김병훈	031-773-2348	경기도 양평	www.gehome.co.kr
㈜케이디우드테크	건축목재마감재	홍 활	02-3401-5525	서울시 송파	www.kdwoodtech.com
㈜현성종합목재	목조주택자재	성기연	031-798-4455	경기도 광주	www.hyunseongtimber.co.kr
㈜하농	마루,주방,가구	이정빈	02-515-2626	서울시 강남	www.haanong.com
㈜미도커뮤니케이션즈	마루바닥재	임훈택	032-213-6832	경기도 김포	www.marucall.com
이우코퍼레이션㈜	종합자재시공	이우정	02-6081-2528	서울시 금천	www.ewcorp.kr
㈜커널시스템	단열현관문	전재완	031-366-0871	경기도 화성	www.kehy.co.kr
㈜용기	시스템창과문	김응규	031-852-2100	경기도 의정부	www.yungki.com
㈜가온우드	방염및난연목재	김영윤	063-224-7400	전라북도 전주	www.gaonwood.com
㈜이루카씨엔티(유로벤트)	투습방수지	조성훈	02-567-3181	서울시 성동	www.eurovent.de
㈜지복득마루	수입원목마루	임윤희	02-576-7736	서울시 강남	www.jibokdeukmaru.com
㈜케이에스우드	목구조내외장재	박종원	031-333-5100	경기도 용인	kswood.co.kr
㈜앳홈건설	수입건축외장재	유혁민	031-216-2625	경기도 광주	www.athomem.co.kr
동화기업㈜	동화구조용보드	채광병	032-770-9305	인천시 중구	www.dongwha.com
조은우드	목구조자재일체	손주실	031-775-0303	경기도 양평	con65@naver.com
이건산업㈜	합판/목질바닥재	백오현	032-760-0366	인천시 미추홀구	www.eagonstore.com/front/main.do

㈜지이티코퍼레이션	목재(CLT)/우드펠릿	권상현	032-832-2030	인천시 연수구	www.getcorp.co.kr
쿨트라시스템창호	알루미늄시스템창호	홍형준	054-773-0410	경상북도 경주	cultrasystem.com/
㈜LX하우시스	독일식시스템창호	노진서, 한주우	010-7611-0699	서울시 중구	www.lxzin.com
㈜파셉	MAMA-6H / 8H	김현승	033-373-1349	강원도 영월	www.pacep.co.kr
로쏘블라스코리아(유)	기밀/수밀 자재	최상혁	010-4380-1348	서울시 금천	www.rothoblaas.com
철벽방수	방수관련제품	이용국	1899-8584	대전시 중구	www.철벽방수.com
베어마운틴코리아㈜	목재(CLT) 건축 자재	장목순	033-251-0015	강원도 춘천	bearmountain.org
아이에스포르토㈜	코르크 건축자재	김수봉	02-713-1390	경기도 하남	www.cork4u.co.kr

Photo Copyright

치유의 집 © 노경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 김용수
진양호 우드랜드 부속동 © 석정민
명지각 1956 © 윤태훈, 노경
아중호수도서관 © 노경
당진 학생활동 커뮤니티 센터 © yangtaeyoung
제주 나의 집 © 박영채
상형서사 © 노경, 텍스처온텍스처
유지 커피 왁스 © 이정환
木苑 © 박영채
숲속의 사진관 제라 © 변종석

2025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K O R E A W O O D D E S I G N A W A R D S

www.kwda.or.kr
발행처 : 사단법인 한국목조건축협회
기획 :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운영위원회
발행일 : 2025년 11월

* 본 작품집에 소개된 사진과 원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 각 작품의 건축가와 사진작가의 서면 허락 없이 사진 또는 내용의 일부를 발췌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